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8월 16일(음력 7월 23일) 수요일 (주간) 제 591 호

율사들이 미국가는 까닭은?

해인율원 스님 12명 뉴욕원각사서 수계법회, 숭산 스님 발자취도 순례

해인총림 율원(원장 무관)의 율사 스님들이 미국의 불자들에게 삼귀의계와 신도오계를 설한다. 미주포교 반세기 만에 율사스님들이 공식적으로 현지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무관 스님과 연구과정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그리고 졸업을 앞둔 스님 등 12명의 율사들이 9월 7일부터 10월 2일까지 26일간 미국 동부와 서부지역 사찰을 순례한다.

순례기간 중 스님들은 9월 10일 뉴욕 원각사에서 동부사원연합회(회장 원영)가 주최하는 삼귀의 오계 수계법회에서 계를 설할 계획이다. 24일에는 서부 남가주 사원연합회(회장 혜철)가 주관하는 망향제에 참석해 무관 스님이 법문을 한다.

해인율원 스님들의 미국 동부 서부지역 사찰 순례는 율원 졸업을 앞둔 젊은 스님들이 졸업 후 보다 넓은 안목으로 수행정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관 스님

졸업 후 개인 수행은 물론 포교 일선에도 뛰어들어 한국불교를 이끌어야 할 스님들은, 세계속의 한국불교를 파악하고 장차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성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던 것.

율원 스님들은 이를 위해 다양한 인종과 종교 문화가 한데 엉켜 있으면서 세계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미국 속에 뛰어들기로 결심했다.

또, 해인율원 스님들의 이러한 뜻은, 미국 동부 서부지역 해외포교일선에서 뛰고 있는 스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호응을 얻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치밀한 계획까지 세우게 됐다.

해인율원 스님들은 26일간 뉴욕을 중심으로 한 보스턴 뉴저지 맨하튼 필라델피아 워싱턴 등 동부지역과 서부 남가주지역의 사찰들을 둘러보고, 해외에서 살고 있는 불자들의 가정을 방문해 불자들의 현지 생활과 신행활동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또, 한국불교가 세계적으로 뻗어가는데 큰 역할을 했던 숭산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 보스턴의 프로비덴스젠 센터를 방문해 숭산 스님의 포교원력도 느껴본다.

맨하튼에서 활발히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티베트 일본 스리랑카 사찰과, 해외포교에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되고 있다는 평을 듣는 대만 불광사의 분원 서래사와 서래대학도 방문할 예정이다.

해인율원장 무관 스님은 "미주지역 순례에 나서는 스님들은 믿음과 지계 그리고 원력이라는 수행의 3요소를 확고하게 다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에서 포교하는 스님들과 한국인 불자들에게는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현지인에게는 한국불교의 전통 계율 정신의 일면을 느끼게 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총림 율원 스님들은 이번 미주지역 순례기간 동안 체험한 수기를 작성하고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며 자료로 구축 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10~11면
정공 스님 장수 극락사 조실

시방세계 7면
사찰게시판 변신은 무죄?

조계사 학부모 입시특강 12면

특별기고 '간도는 우리땅' 19면

여름휴가 관계로
금주 20면 발행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93년만에 귀향했다. 8월 11일 오후 1시 오대산 사고지에서 시작된 환국고유제(고국에 돌아왔음을 알리는 의식)를 마친 실록이 채여에 실려 이운되고 있다. 월정사=박재완 기자

월정사 인근에 기념관 … 건립비 50억 확보

조선왕조실록, 오대산사고지로 돌아올 듯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이 원소장처였던 평창 월정사 오대산 사고지 인근에 소장될 전망이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8월 11일 월정사에서 열린 조선왕조실록 환국 고유제 및 국민환영행사에서 "오대산 사고지 인근에 기념관을 짓고 그곳에 소장토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광재 열린우리당 의원도 "기념관 건립에 드는 비용 50억원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같은 사실에 무게감을 더했다. 고유제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책임지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포교원 제3차 포교종책 연찬회

신도시포교 어린이가 '열쇠'

"아이들 절에 오면 어른 함께 와"
도심포교 '성공 노하우' 공유해야

지난 6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불교계는 신도시 포교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대표적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불교 신자는 10년 전인 95년보다 15.6%(7797명) 증가했다. 이에 비해 가톨릭 신자는 같은 기간 93.4%(3만8837명) 늘어났다.

같은 신도시인 경기도 고양시도 상황은 비슷했다. 불교 신자는 95년 보다 44.6%(4만0698명) 늘어났지만, 가톨릭 신자는 154.8%(7만5439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도시 포교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였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도시 포교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제3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었다. 신도시 지역에서 불교의 영향력과 비중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연찬회에서 박노현 중앙승가대 강사와 안산 보문선원 주지 보림 스님은 신도시 포교 활성화를 위한 방편으로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주목했다.

마케팅 기법을 이용해 신도시 포교 접근을 시도한 박노현 강사는 "신도시 특성상 젊은 층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자녀교육 열의가 높고, 주5일 제 근무 및 수업 등으로 여가시간이 많은 신도시 거주민들의 특성을 생각한다면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림 스님은 "어린이를 사찰로 이끌면 자연스럽게 가족 전체를 사찰로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경험담을 소개했다. 어린이 포교는 가족 전체에 대한 포교라는 지론이다. 스님은 또 어린이 포교는 사찰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 될 뿐 아니라 평생 불자를 만들 수 있는 '씨앗 포교'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산에서 포교당을 운영한 적이 있는 정산 스님(불교신문사 주간)은 "반드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신도를 지도교사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은 '포교연구실의 역할론'을 언급했다.

조기룡 연구원은 "포교연구실에서 성공한 도심포교당의 성공사례를 뽑아 지역적 · 시기적 성공요인, 조직관리, 재정관리, 주지스님 리더십 등에 대한 요인을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종단에서 스님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연수는 물론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교육한다면 도심포교당 운영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회 성장연구소가 교회운영 제반 기법을 다른 교역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을 참고한 것이다.

연찬회에서 또 '종단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박노현 강사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종단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산 스님도 "신도시 포교를 책임지고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부서에서 종교용지 분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각 본사에서 신도시에 법당을 건립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단 차원에서 부동산 관련 법규 등을 자문해 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투명화'는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경험이 있는 스님들에게서 나왔다.

정산 스님과 보림 스님은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신도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사찰 제반 행사에 자발적인 참여도 함께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에 따르면 2012년까지 100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 50여곳이 더 건설된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신도시 사찰 '종교용지' 설정 안해 피해

신도시 개발시 종교시설로서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찰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피해사찰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 김포 장기, 양주 옥정 등 미니신도시 구역내에 위치한 사찰 가운데 종교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사찰들. 이들은 실질적으로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종교용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거나 종교시설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다.

현재 보상단계에 있는 수원 광교 신도시의 경우 구역내 총7개 사찰이 위치해 있으나, 이 중 존치되는 사찰은 봉녕사 뿐이다. 용인 보현정사, 상현사, 수원 백운암 등은 실제로는 사찰로 활용되고 있지만 종교용지가 아니어서 강제이전명령을 받은 상태. 대토나 종교용지 불하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절을 포기하거나 땅값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이처럼 신도시 또는 택지 개발시 사찰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변경 등을 통해 종교시설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는 일이 급선무다. 또한 사찰재산의 종단등록을 통해 삼보정재를 관리하는 자발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봉영 기자**


세로 88 cm × 가로 58cm

불자가정의가보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수 월 관 음 도

가정의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

무명의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수월관음도는 세상 사는동안 **모든 재난과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오는 생애 좋은 과보와 무량대복을** 주고자하는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소재화다. 소재화인 수월관음도는 받아보는 순간 누구나 두번 감탄을 한다.

첫째는 처음 느끼는 영험에 감탄을 하고 둘째는 섬세함에 감탄을 한다. 험한 세상 자손만대로 안녕과 번영을 지키는 불자가정의 수호신인 수월관음도는 조계종 종정상과 대통령상, 한국불화대전 대상을 수상한 불화의 명장이신 法性 金義植 화백께서 3년간 기도와 영험으로 그린 불화로 100% 천연코튼 판화지에 28도 판화와 베를린 왁시를 사용해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줘도 변색되지 않게 제작 했으며 최고급 2단 돌출표구로 거실 또는 사업장에 모시면 대단히 품위가 있는 세계가 격찬한 영험의 불화다.

불자가정의 3대 가보중 첫번째인 수월관음도는 뒷면에 카필라 불광사의 보증서와 자자손손 후손에게 물려줄수 있는 소장인란이 있다. 영험이 나타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카필라 불광사에는 가보로 구입하는 분과 아들딸 자녀에게 한점씩 주기도 하고, 새집이사 선물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지난번 KBS역사 스페셜 수월관음도 방영 후 전화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특급택배로 보내주고 있으며 점안불공을 마친 수월관음도를 받으면 목욕재개하고, 정한수놓고, 삼배하면서 갖가지 소원기도 한다음 거실또는 사업장에 걸면 영험이 시작된다. (가격 19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용 어 해 설

-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 관세음보살 부처님의 모습이 그윽한 연못위에 비치는 달처럼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구제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 **소재화(消災畵)** 불교에서 소재화란 모든재난과 고통 액운등을 소멸하고 예방한다는 불화 그림을 말한다.

평생부자지갑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 부자의 선물!

옴마니반메훔福 지갑

음양의 조화로운 놀라운 재물과 땅속의 보화까지 얻는 비방


남성용중지갑(검정)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적색, 보라색)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고 물질로는 고통을 받고, 해결해야할 문제는 쌓이고, 부부간의 애정은 멀어지고,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답답한 것은 음양의 조화를 깨닫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세상사는 동안 고통중의 고통이 물질이 없어 당하는 고통으로** 부처님께서 시위국 기다림 산중에 계실 때 가난으로 헐벗고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불경에 입각해 법구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카필라불광사에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은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최고급으로 제작하고 천연가죽에 은나노처리까지 했으며 지갑앞면에는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동서남북에서 돈을 들어오게 하는 보병과 악귀와 잡귀를 쫓고 계획한 일과, 하고 있는 일을 막힘없이 성취시키는 영험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넣었다.

출시 100일만에 안되는 장사가 잘되고, 절망속에 있던 사업장이 희망이 넘치고, 생각지도않던 돈이 들어오고, 못팔아 걱정하던 재고가 팔리고 고민하던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등 모든 문제에는 비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지갑이다.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여성이 지닐때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금전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음양의 조화로 부부관계도 놀랍게 회복된다고한다. 고급 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대단히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때 사용하실 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축원불공을 드려드리며 지갑은 우체국택배로 바로 보내 준다.

여성용장지갑 95,000원
남성용중지갑 65,000원

■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http://club.cyworld.com/kapilla

조계사에 국제명상센터 선다

2008년 3월 개관 … 외국인 대상 '템플라이프' 등 계획

간화선 불교문화체험공간

하루에도 수십~수백 명의 외국인들이 방문하는 조계사. 하지만 보여줄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그래도 지금은 대웅전 보수공사가 끝나가고, 일주문이 건립돼 그나마 체면치레(?)는 하게 됐지만 '한국불교 1번지'라고 내세우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 같다. 조계사가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명상센터' 건립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8월 8일 대웅전 맞은편에 위치한 옛 현대장 여관 일대 철거를 시작으로 국제명상센터 건립부지 확보 공사에 들어간 조계사는 정부의 건축 지원예산이 승인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이 올해 안으로 승인이 날 경우에는 내년 3월 경 착공해 내후년인 2008년 3월 경 개관할 방침이다.

국제명상센터는 지하 2층, 지상 3층의 600평 규모로, 불교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시연하는 공간과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숙소, 불교입문자를 위한 교육관과 수련생들을 위한 수행관,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공부방 등이 들어선다.

조계사의 국제명상센터 건립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외국인들에게 간화선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경복궁-조계사-인사동-북촌-창경궁으로 이어지는 전통문화벨트에서 조계사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관광공사나 서울시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한국불교를 알리는 최고의 상품이 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불교 간화선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명상센터가 조계사 경내에 들어선다. 사진은 조계사가 최근 발표한 조감도.

특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의 80%가 서울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고(서울시 문화관광과 통계), 이들의 거의 대부분이 서울 5대 관광권역 중 전통문화 중심지인 경복궁, 인사동, 종묘, 창경궁, 북촌, 운현궁을 통해 한국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국제명상센터는 한국불교를 알리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조계사는 국내에 거주하는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나 장기 외국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선 문화강좌'를 개설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과, 현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템플 라이프(Temple Life)'와 국제워크캠프 등과 연계한 단기 수련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또 한국관광공사, 각 여행사와 연계해 선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사찰음식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 운영도 구상 중이다.

'템플 라이프'는 조계사를 찾는 외국인들이 계속해 늘어남에 따라 지난 2004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참선, 다도 등을 간단하게 체험토록 하는 프로그램이며, 국제워크캠프는 해마다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행사다.

국제명상센터는 서울 시민들의 정신적 휴식처이자 선을 통해 건강한 정신을 되찾아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또 초심자와 숙련자 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불자들의 수행 진작에도 기여하게 된다.

또한 현재 진행해오고 있는 종로구 내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도 국제명상센터 중심으로 조직화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케 할 방침이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조계사는 산사처럼 고즈넉하거나 아름다운 풍광을 지니지 못한 공간적 한계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국제명상센터는 조계사를 명실상부한 한국불교 1번지로 자리매김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대한민국도 신생독립국?

법등 스님, 서울서부지법에 질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법등 스님은 8월 3일 가평 현등사 사리구 반환 소송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공개질의서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앞으로 보냈다.

법등 스님은 공개질의서에서 "종단의 법통을 부정하는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었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전문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독립한 신생독립국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재판부의 역사 몰인식을 지적했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임시종회 9월 4일 총무원장 선거법 다룰듯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단은 8월 10일 연석회의를 열고 9월 4~8일 제171차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종헌종법개정기초위원회가 검토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등 현안을 다루기로 최종 합의했다.

사실상 13대 마지막이 될 이번 중앙종회는 8월 10일까지 12차 회의를 통해 검토된 △총무원장 선거법 △사설사암법 △승려법 △중앙종회법 △종무원법 △지방종정법 △종립학교관리법 △산중총회법 △교육법 △총림법 △총무원법 등을 처리하게 된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원로회의 16일 원로의원 선출 등 논의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는 8월 16일 청주 보살사에서 제26차 원로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의 안건으로는 △원로회의법 개정에 관한 건 △원로의원 선출의 건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원로의원의 자격에서 세납을 65에서 70세로 상향, 원로회의 정원 25인을 21인으로 줄이고, 기존 중앙종회의 원로의원 추천권을 원로회의가 직접 행사하도록 개정을 논의한다. 조용수 기자

종도교육장 건립 박차 미륵종, 위원회 구성

한국불교미륵종(종무원장 송정)이 종도교육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륵종은 8월 3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임시중앙간부 및 교구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교육장건립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에는 원로의장 연봉스님이 추대됐으며 총무원 각 부장과 전국 교구장이 위원을 맡았다.

미륵종은 이날 부산울산교구를 부산교구와 울산 교구로 분리키로 하고 울산교구장에 도신스님을 선임했다. 부산 교구장은 부산교구에서 선임할 계획이다. 미륵종은 또 총무원에서 단일 창구를 개설해 수재의연금을 모금하기로 했다.

영민 서부 경남 지사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만인동참캠페인, 군포교 견인 '이상무'

동참인원 현재 1440명 … 안국선원 등 특별후원금도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면)가 올초부터 의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인동참 캠페인에 후원이 증가하고 있어 군포교 활성화에 희망을 주고 있다.

만인동참 캠페인은 불자들이 한 달에 만원씩 후원해 군포교 후원금을 확보하는 불사로 현재까지 동참 인원이 1440여명에 달하며 3000구좌가 개설된 상태다. 매월 300만원 정도가 적립되고 있는 셈이다. 안국선원, 봉은사, 전국비구니회, 신흥사 등에서 보시한 특별후원금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2억 6000만원 가량이 모금됐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만인동참 캠페인을 알리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서울 및 경기도에 위치한 봉은사, 청계사 등 도심 사찰을 중심으로 매주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11일 서울 강남 봉은사에서 펼쳐진 홍보활동에는 봉은사가 1000만원을 기탁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만인동참 캠페인을 통해 모여진 후원금은 입대한 장병들에게 평생 불교신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불교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소, 신병교육대, 격오지 부대 위문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된다.

또한 군법사 활동 지원 인프라 구축, 군법당 건립, 군장병 인격지도, 군장병 무운장구를 위한 기도 등 60만 장병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와 희망을 여는 불사에 사용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실시하고 있는 만인동참 캠페인이 군포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사진은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맨 오른쪽)이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왼쪽)에게 만인동참 캠페인을 설명하는 모습.

군종교구 주지 일면 스님은 "만인동참은 불교의 미래인 청년포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만인동참 캠페인은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가 부족한 군포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불자 개인이 월 1만원을 년간 또는 매달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다.

또한 자식이 근무하는 부대 법당이나 사찰과 인연이 있는 법당을 지정해 후원하는 지정기탁 방식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전화 한 통(ARS 060-700-0108)으로도 동참이 가능하다.

조계종 군포교예산은 얼마?

조계종은 매년 2억원 안팎의 예산을 책정해 군포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군종특별교구를 공식 출범했고 올해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종단 예산으로는 군법당 하나 짓기에도 부족하다. 그래서 만인동참 캠페인이 예산확보에 상당한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군종교구가 만인동참을 통해 모연한 보시금이 2억 6000만원으로 종단 예산을 능가했다.

그러나 타종교와 비교해 보면 군포교 예산이 더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의 경우 군선교연합회를 통해 매년 100억원을 군선교 사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가톨릭의 경우도 군종교구에 3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합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 · 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계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불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군법당 건립 후원** : 낡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불자에 후원품 전달.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군종교구 (02)797-7266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군종특별교구)

윤 7월 삼사순례 방생

윤 7월 삼사순례는 금강 대약사사로 오십시오



경부고속도로 금강 휴게소 맞은 편에 위치한 금강 대약사사는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삼도를 아우르는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휴게소를 빠져 나오면 바로 넓은 강변이 있어 삼사순례에 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부처님의 세계를 그린 챠크라 만다라를 직접 친견하시어 업장소멸 액운소멸의 참배 기도를 드리고 아울러 큰스님의 축복의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43)731-2261
● 위 치 :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대전에서 옥천 IC 지나서) 맞은편



입종공고 및 행자모집

입종공고

빠르게 변모해 가는 사회상에 맞추어 韓國佛教如來宗 總務院에서는 불법홍포에 큰 뜻을 두신 스님들을 위해 본 종단의 문호를 개방하여 입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자격 : 사미,사미니계를 수료한 승려
◆ 지역 : 전국(타 종단에서체탈도첩된 자 제외)

행자모집

한국불교여래종은 불교의 미래를 위해 뜻있는 젊과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인원 : 00명
◆ 학력 : 고졸이상
◆ 나이 : 50세 이하
◆ 자격 : 부처님의 제자로써 바른 마음 가짐과 신체 건강한 남녀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
충청북도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총무원 전화 : 043)731-2261

韓國佛教如來宗 總務院

'열어 봐! 느껴봐!' 6개 종교 청년 평화캠프

종교청년대화모임 평화고리가 일반 청년들간의 종교간 대화와 평화의 장을 넓히기 위해 종교청년한마당 평화씨앗 2기 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열어 봐! 느껴 봐!'를 주제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6개 종교 28세 이하 청년들이 참가한 가운데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홍천 금강선원에서 열린다.

캠프에서는 △마음으로 듣는 강연 △함께 하는 각 종단별 의식 경험 △공동체 놀이(몸 깨우기, 도전골든 징) △너와 둘이서(다름의 소통, 진리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종교간 이해와 대화를 중심으로 일반 종교인들간의 연대와 우의를 나눌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남북불교도 합동법회 9월 1~3일 금강산 신계사

제2차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가 9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금강산 신계사에서 열린다.

남측 조계종 중앙신도회와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전국신도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법회는 2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합동법회와 조불련 불자들과 점심 공양, 금강산 및 해금강 합동 구경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은 "합동법회 동참은 평화통일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행사 참여를 독려했다. (02)733-7277 남동우 기자

동국대 해외의료봉사단 스리랑카서 14일간 활동

동국대 경주캠퍼스 해외문화의료봉사단이 8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스리랑카에서 의료봉사 및 문화교류 활동을 펼친다. 봉사단은 김용택 부총장을 단장으로 학생들과 의료진, 교원들로 구성됐다.

이번 스리랑카 봉사활동에서는 의학계열학생을 포함한 의료진의 양·한방 의료봉사와 한국음악과 학생의 국악공연, 불교아동학과 학생의 영·유아놀이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7월 24일 중국 난카이(南開) 대학과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이 난카이 대학의 국가고과기산업원구를 방문해 이뤄진 것. 이에 앞서 경주캠퍼스는 북경화공대학 북방학원을 방문해 양교간 교류 증진에 합의했다.

남동우 기자



김홍식 불교중앙박물관 전문위원이 유물을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중성지인 한지를 펼쳐 보이며 참관단들에게 한지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 들어가 보니 …

시설·보존 환경 수준급

"규모는 작지만 시설이나 유물 보존환경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내년초 개관 예정인 불교중앙박물관이 8월 9일 먼저 지하3층 수장고부터 선을 보였다. 안내를 맡은 김홍식 전문위원이 육중한 수장고 문을 열자 유물보존을 위해 적절히 맞춰 놓은 온·습도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먼저 참관자들을 감쌌다.

아직 유물들이 많이 이관되지 않아 장식장이 군데군데 비어 있었지만, 귀중한 성보문화재들이 은거(?)하기엔 최적의 조건이었다. 장식장 바닥도 유물 이동시 걸림을 방지하기 위해 100% 세로판으로 만들었다.

또한 장식장 면도 통판을 사용하면 더운 여름 갈라지거나 비틀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 적절하게 잘라서 꿰어 맞췄다.

김 위원은 "이 수장고에는 항온항습장치가 24시간 내내 가동돼 항상 문화재 보관에 이상적인 조건인 습도 60%내외, 온도 18~20℃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식장도 벽에서 30% 정도 틈을 두어 나쁜 공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좋은 공기만 내부로 들어오게하는 특수장치를 해놓아 성보문화재 보관에는 전혀 손색이 없다"고 자랑했다.

이곳에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공립박물관에서 이관된 '금동여래좌상' 등 '수종사 부도 출토유물'(보물 제259호) 26점이 보관돼 있다.

또 동국대박물관에서 온 '지정 4년명 고려청동은향로'(보물 제321호), '고려사경'(보물 제390호) '석씨원류응화사적책판'(보물 591호) 등 635점도 전시할 곳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다.

100여평 규모에 총 750점이 보관돼 있는 불교중앙박물관 수장고는 현재 3개의 창고와 전실 및 포

100여평 규모 750점 보관
전문가 20여명 관리·연구
전시실 공사 후 내년초 개관

장 해체실로 이뤄져 있다. 앞으로 보존처리실까지 갖출 예정이다.

우선 제 1수장고(16.72평)에는 김포 약사사석조불좌상과 같이 온·습도에 민감하지 않은 석조와 기와류 등이 보관돼 있다.

또한 바로 옆 제 2수장고(28.18평)에는 '영국사 영산회상탱'(보물 1397호)을 비롯해 '광덕사 고려사경'(보물 390호) 등 회화 및 전적과 같은 지본류가 있다.

가장 크기가 큰 제3수장고(50.62평)에는 '봉은사지 정사년명 고려청동향로'(보물 321호)와 신원사리기 등 금속이나 목재로 만들어진 불상이나 공예품들이 들어 있다.

최근 불교중앙박물관 수장시설에 성보문화재들이 속속 이관되면서 성보문화재 관리에 대한 교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심주완 문화부 문화재팀 행정관은 "이 수장고는 박물관이 갖춰지지 않은 사찰의 성보문화재를 기탁보관해주는 역할을 최우선으로 한다"며 "처음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던 스님들이 홍수 피해로 문화재가 심하게 훼손되자 사찰 문화재를 이관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성보문화재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총무원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과거에 이미 기탁한 상태지만 관리 능력이 없어서 이관을 유보시켰던 성보문화재들을 이제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찾아오고 있는 중"이라며 "박물관 학예연구실과 총무원 문화부 등에는 전문가 20여명이 있어 성보문화재의 보존관리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공사이권에 따른 각종 의혹 제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박물관 개관이 늦어지고 있지만 올해 전시실을 마무리하면 내년초에는 꼭 개관할 것"이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북녘 수재민 돕기 나섰다

정토회, 위령재 봉행 … JTS, 구호품 보내

남한 수재민 구호에 앞장섰던 불자들의 정성이 북녘의 수재민들에게도 전해진다.

수행공동체 정토회는 8월 8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청주 마산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지난 집중호우로 목숨을 잃은 남북한 수재민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위령재를 봉행했다.

정토회는 위령재에서 "수해로 목숨을 잃은 남북의 희생자들과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다"며 "아픔과 갈등을 넘어 남북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발원했다.

정토회 산하 한국JTS는 북한 수재민들을 위해 밀가루 100톤, 신발 2만켤레, 의약품 6박스, 이불 1만채 등 1억7천만원 상당의 3,4차 긴급구호품을 8월 9일과 10일 북한행 선박에 선적했다.

인천항과 중국 단둥항을 통해 북송된 구호물품은 남포와 신의주로 입항해 평안남도 신양군, 성천군 등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배포된다.

한국JTS는 북측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통해 8월 16일께 5차 구호물품으로 의약품을 지원한다. 조계종 총무원과 민족공동체추진본부도 의류, 신발 등 생활용품을 긴급모집, 북한에 지원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지자체장 종교중립운동' 추진

조계종 종평위, 서약서 받기 실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직자 정교분리와 종교중립 준수를 위한 서약서를 받는 운동이 추진된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손안식)는 8월 8일 16개 광역단체장과 230개 기초단체장에게 '국민을 위한 국정운영과 공직자 정교분리·종교중립 준수를 위한 2006 광역·기초단체장 선언문'을 발송하고, 이달 21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언문은 국민의 대표로서 청렴한 국정운영과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종교중립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담고 있다.

종교평화위는 "선언운동은 국민의 대표로써 소신을 밝히고 진정한 국민의 대표임을 천명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회신 여부와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영 기자

백천사, 교각 스님 기념 축제

남양주 백천사(주지 무구)가 교각스님 탄생 1211년을 맞아 '제9회 김교각 스님 추모 헌다례'와 '제2회 지장왕보살 큰 축제'를 개최한다.

8월 20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는 이번 '지장왕보살 큰 축제'는 '구화산의 신화, 김교각 스님' 다큐영화 상영을 시작으로 수효사 합창단의 찬불가 공연, 백천다경회의 헌다례, 살풀이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김교각 스님 행장 및 지장보살사상을 퀴즈로 풀어보는 퀴즈잔치도 열릴 예정이다. 행사 종료 후에는 김교각기념관 관람이 가능하다.(031)577-6433

이은비 기자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3일(음 7월 10일) 현생의 인연을 마감한 소생의 아버지 松溪堂 林盛秀 居士의 영면을 기원해 주신 사부대중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弔花를 보내 위로해 주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기획실장 동선 스님, 복지재단 상임이사 지현 스님, 불교신문사장 향적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스님, 현대불교문인협회장 수완 스님, 동국대 홍기삼 총장님을 비롯한 불교계 어르신들께 감사드리며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리는 점 惠諒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0 년 8월
현대불교신문사 편집·취재 부장 임연태 합장

월정사, 관음사 포교당 직영

강릉 관음사 포교당이 평창 월정사 직영체제로 전환됐다.

월정사측은 "8월 8일 관음사에서 열린 백중 법회에서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관음사 포교당을 월정사 직영으로 전환하고, 주지에 적천 스님을, 부주지에 무주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월정사 제10기 단기출가학교가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30일 동안 대학생 및 일반인 남녀 3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남동우 기자

원주 구룡사, '육화당' 기공 템플스테이 전용 공간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에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이 건립된다.

구룡사는 8월 8일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템플스테이 전용공간인 '육화당' 신축 기공법회를 봉행했다. 육화당은 51명 규모로 11개의 숙소 및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된다. 내년 2월 말 완공 목표로 6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남동우 기자

"강남 봉은사 운영 중앙승가대서 맡아야"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정념·월정사 주지)가 서울 봉은사를 중앙승가대 운영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총동문회는 "8월 9일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한 결과 중앙승가대의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서울 봉은사를 운영사찰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원장은 범산 스님이 맡고, 송강 스님 외 11명이 상임위원으로 구성됐다.

대책위원회는 지정 요청 건의서를 통해 "현재 학교예산의 58%에 해당하는 18억 8000만원을 종단에서 문화재관람료사찰 특별분담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문화재관람료 존폐문제로 종단에서 지원하는 예산지원문제를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원회 총무간사 공운 스님(서울 개운사 주지)은 "총동문회 회원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중앙승가대 이사장이신 지관 스님을 뵙고 결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생전예수재 · 호마기도 · 보살계

생전예수재

▶ 입재 · 회향 초청 큰스님



종범 큰스님
• 대한불교조계종 개운사 회주
• 대한불교조계종 봉원사 회주
•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입재 : 8월 24일 목요일



보각 큰스님
• 사회복지법인 자재공덕회 이사장
•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중앙승가대학교 교학처장
◆초재 : 8월 31일 목요일



무진장 큰스님
• 동국대 불교대 강사
• 조계종 포교원 포교원장
• 현 동국대 불교대학 명예교수
◆2재 : 9월 7일 목요일



정락 큰스님
• 조계종포교원 원장 역임
• 만의사 회주스님
• 용주사 율주스님(현)
◆회향 : 9월 14일 목요일



예수재 회향 법주
동주 큰스님외 11명
• 조계종어장 무형문화재 제50호
• 영산제 전수 조교
• 가양동 홍원사 회주
◆9월 14일 목요일

입재일 ▌2006년 8월 24일 목요일(음력. 윤, 7월 1일) **오전 9시 대웅전**
회향일 ▌2006년 9월 14일 목요일(음력. 윤, 7월 22일) **오전 9시 대웅전**

귀의 삼보 하시옵고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개운사**에서는 병술년 윤7월을 맞이하여 이생의 죄업을 소멸하고 선망부모의 왕생극락을 위해 **생전예수재**와 **호마기도** 및 **보살계**를 봉행합니다.

예수재는 일반적으로 윤달에 봉행하는데, 이는 사람이 죽은 뒤에 지내는 49재를 살아생전에 미리 지내는 재인 바, 전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업과 빚을 갚음과 동시에 그 업장을 소멸하고 또 죽은 뒤에 지낼 재를 미리 지내서 죽은 뒤에 지옥에서 받아야 할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는 덕을 베풀어줌과 동시에 자손이 창성하고 가내가 화평하며 재액이 소멸하고 무병장수하는 등의 기원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의 평화와 자신의 소원성취 및 위없는 해탈을 기원하는 호마기도와 이 생에 지은 죄업 때문에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을 선망 부모와 일가친척 및 인연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지장기도를 21일간 봉행하오니, 모두들 함께 동참하여 무상의 선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개운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57번지 02)926-4069, 02)924-3841

보살계 수계법회



혜인 큰스님
제주 약천사 회주 · 단양 광덕사 회주

2006년 9월 12일 화요일
(음력, 윤, 7월 20일) 오전 9시 대웅전
● 수계비 : 1인 2만원

※ 법명이 없으신 수계자는 종무소로 문의 해주세요.

보살계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현해 나가는 출가와 재가보살이 받아 지켜야 할 실천덕목이다.
〈보살계본지범요기〉에 보면 "보살계는 생사의 탁류를 거슬러 올라가서 일심의 본원으로 되돌아가는 큰 나무의 구실을 하며,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것을 이루는 요긴한 문이다."라 하였다.
오늘날까지 가장 널리 행해지는 것은 범망계로서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로 보살계를 삼는다.

호마기도

2006년 8월 24일 목요일
(음력, 윤, 7월1일) 오전 10시 대웅전
● 기도비 : 1인 1만원

호마는 '지혜'의 불꽃으로 '번뇌'의 제물을 태운다고 하여 보리심(菩提心)을 일으키기 위한 의식이 되었다. 밀교 경전인〈대일경(大日經)〉에는 외(外)호마와 내(內)호마가 있다.
외호마는 실제로 호마단을 설치하고 호마목·오곡음식 등의 제물을 화천(火天:불이 신격화 된것)에 공양함으로써, 번뇌의 소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사(事)호마라고도 한다.

내호마는 여래의 지화로써 무명·번뇌의 제물을 소진시키는 것을 '내관(內觀)' 하는 것이므로 이(理)호마라고도 한다. 그런데 호마는 기원목적에 따라 식재(息災: 재난의 제거)·증익(增益: 행복의 초래)·조복(調伏:악마를 굴복)·경애(敬愛:佛·보살을 찬탄)의 4가지로 구분된다. 이 의식을 행할 때는 본존으로서 부동명왕(不動明王)·애염명왕(愛染明王) 등을 안치하고, 그 앞에 호마단을 둔다.

진설하는 방법은 그 종류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나 108번뇌·육바라밀(波羅蜜) 등을 상징하는 공양구 등을 배치한다. 따라서 호마법을 닦으면 번뇌를 모두 소진하고 6바라밀의 공덕을 쌓는다고 한다.

호마기도는 호마나무에 각자의 생시와 소원을 적어 부처님께 올리어 소각한다.

"내실 다져 국민의 박물관 만들고 싶어"

국립중앙박물관 신임 김홍남 관장



"국립중앙박물관이 위탁 · 관리해오던 2건 20여점의 불교문화재 불교중앙박물관 반환 문제는 '종단과 박물관 측과의 긴밀한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8월 8일 단행된 차관급 정부기구 인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임명된 김홍남 前 국립민속박물관장(사진)은 박물관 운영 계획과 포부를 9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국립박물관 역사상 최초의 여성 관장' '비박물관 출신 외부 인사로서 첫 번째 수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김 관장. 또 3년 전, 당시 1급 개방직 직제였던 국립중앙박물관장 공모에서 고배를 마신 전력이 있는 김 관장에 거는 박물관계의 기대는 어느 때 보다도 크다.

"박물관은 박물관다울 때 비로소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고 생각해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인 문화재를 문화 · 예술 ·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재해석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국민박물관'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김 관장이 제시하는 21세기 박물관의 비전은 유물과 문화재 전시라는 기존 박물관의 한계를 뛰어 넘어 '역사교육과 문화예술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창출'이다. 김 관장은 이 같은 계획과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로 △추진력 있는 박물관 정책과 투명한 예산 △전국 박물관 학예실과의 유기적인 정보네트워크 조성 등 외형과 내실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박물관 간접자본을 꼽았다.

"얼마나 많은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컬렉션을 가지고 얼마만큼 창의적인 기획전시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컬렉션과 결합된 역사 교육과 기획 전시 · 공연 프로그램은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입니다."

김 관장은 "그동안 박물관이 소위 엘리트 중심의 닫힌 공간이라는 평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동양의 미소라고 일컬어지는 반가사유상과 민각(대중적인 조각)의 대표격인 수종사 나한상 등 불교문화재 특별 기획 전시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생명나눔실천본부, 난치병 환우에 지원금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조계사 설법전에서 난치병 환우 가족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우란분절을 맞아 8월 7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난치병 환우돕기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을 통해 고대 구로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정화씨(28 · 마비성 척추측만증), 경주 동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이상숙씨(54 · 뇌경색)를 비롯한 15명이 각각 200만원씩 총 3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일면 스님은 "백중을 맞이해 조상천도 위주의 소극적 실천에서 벗어나 투병 중인 환우를 살리는 적극적인 방생을 실천하고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매달 환우돕기를 통해 지원하고 남은 금액과 기탁자들의 기부로 이루어진 돈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1월에 있을 '자선음악회'를 통해 나머지 모금액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인권 주제 청소년 캠프 '천상천하…' 열려



부처님의 탄생 선언 '천상천하 유아독존'에 담긴 인간존중 사상과 인권을 주제로 한 청소년 캠프가 열렸다.

불교인권위원회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개최한 '2006 청소년 인권캠프'가 그 것. 전국에서 청소년 30여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인권을 바라볼 수 있는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천태종 새 스님 18명 탄생



천태종은 8월 7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 금강계단에서 2006년 승려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비구 6명, 비구니 12명은 십선계를 받고 불제자로서 거듭났다. 수계산림은 종정 도용 스님을 증명법주로, 정산 총무원장, 도정 종회의장, 춘광 감사원장과 총무원 각 부장 스님을 삼사칠증으로 봉행됐다.

전국교사불자련 화엄사서 여름수련회



전국교사불자연합회(회장 신연섭)는 8월 2~3일 구례 화엄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자비'를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불자교사 180여명이 참석해 자비명상, 연기암 순례 등을 펼쳤다. 신연섭 회장은 "수련회를 통해 회원들의 친목과 신심을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룡사,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단 초청법회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단 30여 명이 8월 10일 천태종 인천 황룡사(주지 무원)를 방문했다. 이날 무원 스님은 "동티모르의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고, 전 세계가 나눔을 통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하며 동티모르 유소년 축구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한솔복지관 평창지역 수해복구에 구슬땀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은 복지관 직원과 장안사 신도회 30여명으로 구성된 수해복구단을 8월 3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 투입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수해로 흙더미에 완전히 묻혀버린 논밭에 모종을 다시 심는 복구활동을 하고, 수재민에게 200만원 상당의 쌀과 떡, 김치를 전달했다.

나눔의 집, 인권캠프 '피스로드' 개최



나눔의 집(원장 능광)에서 한 · 일 대학생이 함께하는 인권캠프 '제9회 피스로드(Peace Road)'가 8월 7~12일 열렸다. 한국대학생 14명과 일본대학생 12명이 참가한 이번 피스로드캠프에서 양국 대학생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역사와 인권에 대한 이해를 길렀다.

어린이 포교 원력 위해 그림수행 30년

부산서 첫 '자연으로의 회귀전' 여는 성타 스님



성타 스님(사진)은 30년 동안 그림을 그려왔다. 한국화 문인화 등의 그림으로 수행을 삼아온 성타 스님은 6년 전 어느 날 절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에게 무심코 빵을 건넸다.

빵을 내미는 스님을 보고 아이들이 도망쳤다. 이유는 '스님은 사탄'이라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충격으로 스님은 그림을 통한 어린이 포교를 시작했다. 절문 앞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 10명중 9명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에 불교를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서예, 한문, 사군자 무료 강습을 시작했다. 주부들을 위한 서예교실도 열었다. 이후 아이들에게 그림지도와 함께 재미난 불교 이야기와 참선 등으로 아이들이 먼저 달려와 합장 인사하는 결실을 일궈냈다.

현재 범어사 금강암에서 머물며 천일기도 중인 성타 스님은 어린이 포교 원력을 새롭게 다지며 부산에서의 첫 전시회를 연다. 8월 21~26일 부산시청 갤러리(2층 1관)에서 열리는 '효산당 성타 자연으로의 회귀전'에서 국전에서 특선을 차지한 작품을 비롯 연꽃, 만행, 섭진강의 산 그림자 등 60여 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051)508-2917 천미희 기자

서울 삼광사, 쌀 108포 소년가장 · 수재민에 전달



서울 삼광사 주지 일경 스님이 8월 5일 열린 천도재와 '룸빕 린포체 마정수기 국제 보살계'를 통해 모인 동참금으로 쌀 108포대를 마련해 그 중 100포대를 전국재해구호협회에 8일 전달했다. 나머지 쌀은 각각 봉천9동 동사무소 '사랑의 쌀 운동본부'와 소년소녀가장에게 전달했다(사진). 소년소녀가장에게는 각 20만원씩의 장학금도 함께 지원했다.

일경 스님은 "법회에 일체의 화환을 보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대신 그 돈으로 수재민을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에 동참하자고 신도들에게 호소하자 짧은 시간에 많은 분들이 뜻을 보였다"며 "이번 쌀이 실의에 빠진 수재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은비 기자

서울 능인정사, 구내 저소득층에 자비의 쌀



서울 능인정사 포교원(주지 법경)은 7월 31일 이호조 서울 성동구청장과 정송학 광진구청장 취임법회 및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했다.

자비의 쌀은 20kg 쌀 50포대로, 구내 저소득층 및 수해지역 가구에 지원된다.

이성훈 불레협 연구위원 골수백혈병으로 별세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이성훈(41 · 고려대 박사과정 재학중) 연구위원이 8월 7일 급성 골수성백혈병 항암치료중 심장마비로 숨졌다.

영결식은 9일 고대 안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으며, 수원 연화장에서 화장을 한 뒤 유골은 9월 24일 49재가 열릴 목동 법안정사에 안치됐다.

이성훈씨는 불교계 최초의 1급 청소년 지도사로 불교레크리에이션을 보급하는 등 20여년간 어린이 포교에 헌신해 왔다.

김원우 기자

'서로 모여 부처님의 법을 듣고 토론합니다' 원각사 재가논강(在家論講)

원각사에서는 예수재기간동안, 재가불자들이 평소 신행생활을 함에 있어 접하고 행하는 신행 방법에 대해 **「불자들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놓고 1주일에 한번씩 총 6회에 걸쳐 각각 소주제를(육바라밀) 정하고 그에 따른 논주(論主)와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재가논강**을 봉행합니다.

- **주 제 :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불기2550년(2006년) 8월 11일 ~ 9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9시)
- **대 상 :**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동참비 무료)
- **논주(論主) :**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순규 의학박사, 이호근 법사, 박건주 전남대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 송광사 율원장 지현스님
- **장 소 :** 원각사 대웅전
- **주 최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 **후 원 : (주)BBS광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 발제 40분 / 토론 50분 / 토론자 2인(신행단체) / 총 진행 : 이중표 전남대 교수

- **보살 수계식 동참비: 2만원**, 송광사 율원장스님께서 수계하니 많은동참 바랍니다.
- **수행 결사반을 모집합니다**

생전예수재를 지내는 49일 동안 수행과 신행, 참회와 공덕행을 쌓는 결사(結社)모임을 만들고 신행을 혁신하기 위해 청규를 제정, 지키도록 함.

기간 : 생전예수재 기간(49일)
내용 : 매일 사시기도후, 저녁 공양후 각각500배씩(지도법사:주지스님)
사경, 독경은 매주 재가 끝난 후 원각루 2층(지도법사:설몽스님)

■ 생전예수재 안내

불기2550년 음력 7월 윤달을 맞아 원각사에서는 살아생전 진 빚, 즉 업을 죽기 전에 잘 닦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재를 봉행합니다.

- 49재 | **입재 : 2006년 8월 05일 토요일 오전10시**
  회향 :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10시

※ 매주 금요일 마다 재를 일곱번 지내고, 동참비는 **1인 10만원**, **가족 30만원**입니다.

- 영산재 : 초재, 3재, 5재, 막재에 영산재를 봉행합니다.
- 9월 4일 월요일 윤달 삼사순례가 있습니다.

장 소 : 서울 봉은사, 구룡사, 능인선원
출 발 : 원각사 앞에서 7시 30분
동참비 : 3만원
접수 및 문의 : 원각사 종무소 062)223-3168

올 가을 부산은 축제로 '들썩'

범어사 9월 22~24일 개산기념 문예대제전 개최

'현대세계' 주제 국제 학술대회
불무도 등 체험거리 풍성
말사 유물 상설 전시도

범어사(주지 대성)가 개산 1328년을 맞아 '2006 범어를 찾아서'를 주제로 개산문예대제전을 연다. 범어사는 올 개산대제를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6개 부문 27갈래의 행사로 부산 시민, 불자는 물론 전국에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과 함께 하는 열린 문화 축제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범어사는 8월 5일 범어사 신행단체장을 비롯한 부산지역 신행단체장과 실무자 등 20여명을 기획위원으로 위촉하고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범어사 문예대제전은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콘텐츠를 강화한 행사로 꾸미는데 초점을 맞췄다. 학술, 의식, 전시, 공연, 체험 등 분야별로 나눠진 올해 행사는 볼거리, 체험거리는 물론 불교의 현대적 가치를 조명하는 학술대회까지 풍성하다.

우선 동아시아불교학회 주최로 열리는 국제학술대회가 주목된다. 불교와 현대세계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기조발제에 이어 중국, 일본의 학자들이 참여해 한국, 중국, 일본의 불교의 과제와 동향을 점검한다.

특히 종립학교인 금정중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한 세미나에서는 동서대 건축공학과 윤석환씨가 '범어사의 가람배치 변화에 관한 연구- 일제 잔재 청산을 중심으로'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준비하는 본말사 문화재 전시회는 평소 보기 힘들었던 말사 유물을 상설 전시하는 자리다. 국청사, 성주사, 선암사의 유물과 탱화 재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전시도 준비 중이다.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야생화 심기, 컵등 만들기, 한지공예 만들기, 불무도 배우기, 전래놀이 한마당 등도 다채롭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불교의 전통 의식인 다비식과 천도재를 문화재적 가치로 재조명하며 삶과 죽음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장중한 시간도 마련된다. (051)508-3126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10년의 나눔' 새로운 시작이죠

불교사회복지회, 경로급식소 토요나눔마당 '업그레이드'

매주 1000여 어르신에 공양

지난 10년간 대구 달성공원에서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야외경로급식소가 차려졌다.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대표이사 지도)가 1996년 무더운 여름날 불교사회복지회 부설 기관인 노인상담전화 홍보차 태극무늬 부채를 갖고 달성공원을 들렀을 때 "유산균 음료라도 먹을 것을 줘야지, 부채는 뭐하로 주노?"라는 어르신의 말씀에 놀라 감자를 삶고 식혜를 만들어 달성공원을 찾으면서 시작된 토요나눔마당이다.

불교사회복지회는 8월 5일 달성공원에서 경로급식 토요나눔마당 10주년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이재만 동구청장, 불교사회복지후원회장인 영남대학교 박승위 부총장을 비롯한 관계기관장과 10년 동안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참가해 토요나눔마당을 운영해 온 진행봉사자 이상량, 이만희, 최종현 씨와 자매회, 무지개봉사단, 연꽃향기회, 대구주부봉사단 등 자원봉사단 봉사자 등 200여 명과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식전행사와 자원봉사자 및 지역연예인들의 공연, 무더위를 날려줄 보양식 삼계탕 공양, 10년을 이어온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축하하는 자축연의 자리로 이어졌다.

우수봉사단체와 봉사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40여개가 넘는 참여 봉사단체의 추천으로 뽑은 자랑스런 봉사상은 지역의 불자 가정주부봉사단 보리회(회장 황태연)가 수상했고, 대구은행남구사랑봉사단, 반월로타리클럽과 개인봉사자 신명옥씨가 불교사회복지회가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았다.



대구 달성공원에서 10년째 토요나눔마당을 열고 있는 불교사회복지회의 급식 모습.

이날 행사는 제일효병원 의료봉사와 영남북부 가사간병교육센터의 손 마사지 안마, 대구시노인학대 예방센터의 사진전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더욱 풍성했다.

처음 10여명의 봉사자들이 십시일반 자비를 털어 200여명의 어르신 식사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토요나눔마당은 한해 두해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거드는 사람이 생기고 도와주려는 손길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40여개의 고정적인 지역 봉사단이 참여하는 토요나눔마당이 됐다.

10여년의 세월 속에 참으로 많은 뒷이야기들도 녹아들었다. 아버님 칠순 잔치비를 후원해준 불자도 있었고, 아이들의 생일 잔치비를 후원해준 가족도 있었다. 1997년 IMF 때는 참으로 어려운 때였다. 후원봉사자는 줄고 실직자 · 노숙자들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8년에는 정부로부터 이동급식봉사차량을 후원받고 경로급식소 희망의 집(소장 최경분)도 운영하게 됐고, 2000년 4월 달성공원 무료입장이 시행되면서부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토요나눔마당을 찾는 이들이 더욱 늘어나 매주 1000여명이 공양을 하게됐다.

이제 토요나눔마당은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꿈꾼다. 10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식사와 문화를 즐기는 노인종합문화의 장으로, 주말 자원봉사의 요람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토요나눔마당 운영 봉사자들은 지난 6월 21일 각 봉사단체의 대표 봉사자들로 구성된 토요나눔마당 10주년추진위원회(회장 오형자)를 구성했다.

10주년추진위원회는 "철저한 위생관리, 즉석조리, 즉석배식의 원칙, 길서정연한 어르신 경로급식문화, 체계적인 봉사팀 운영으로 달성공원 토요나눔마당이 야외급식의 새로운 모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칠곡 도덕암 삼존불 등
경북 유형문화재 지정



경북 칠곡 도덕암(주지 법광) 소재 몽계당 선의대사(夢溪堂 善誼大師)진영 1폭과 나한전 내의 삼존불(사진)과 직부사자와 16나한상 등 제상(諸像) 21구가 각각 경상북도지정 유형문화재 387호, 문화재자료 509호로 최근 지정됐다.

몽계당 선의대사 진영은 상단 왼쪽에 묵서로 '몽계당 선의대사진영'이라고 적혀 있으며, 하단에 동치(同治)2년(1863년, 철종13년)등의 연대가 표기돼 있다.

배지선 기자

"광복절 의미 되새기자"
부산종교지도자 합동기도회

부산지역 6대 종교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8 · 15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행사를 열었다.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회장 정여)는 8월 11일 부산 여여선원에서 불교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유교 천도교 등 6대 종교지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 61주년 기념 합동기도회를 봉행했다.

6대 종교지도자들은 "선조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잃어버린 조국광복의 기쁨을 나누지 못했을 것"이라며 "그들의 뜻과 그날의 기쁨을 되새기고, 남과 북이 평화통일을 조속히 이룰 수 있도록 종교인들이 앞장서자"고 발원했다. 천미희 기자

경전 무료보급 110만부 돌파
백용성 유훈실현후원회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지도법사 도문 스님. 이하 백용성 유훈후원회)가 펼치는 경전 보급이 8월 1일 110만부를 돌파했다. 백용성 유훈 후원회 관계자는 "지난 7월 발간한 <상역과해 금강경>을 1차로 각 사암에 법보시 했다"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2차보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상역과해 금강경>은 <금강경>을 상세하게 분석해 과목별로 해설했으며, 제호는 명필 오세창 선생이 쓰고 동헌완규 스님이 서문에 사구게를 친필로 추서했다. (063)353-0108

이준엽 기자

미타선원, 시민선방 개원법회
현각 스님 등 법문, 9월 16일까지

24시간 개방되는 시민선방을 열어 화제를 모았던 부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이 시민선방 안심당(安心堂) 개원을 기념해 참선 안심법회를 연다.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이 법회에는 하버드대학교 불교학 박사과정 중인 일미 스님(8월 19일),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고 현재 봉암사에서 정진 중인 지하 스님(8월 26일)을 비롯 주지 하림 스님(9월 2일), 35년간 선방 수행으로 살아온 안심당 참선 지도 스님(9월 9일),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의 저자 현각 스님(9월 16일) 등이 법문한다. (051)253-8687 천미희 기자

경남 복지시설 관리자 세미나

영남권 불교복지시설의 화합과 상호 정보 교류를 위해 설립된 경남불교사회복지협의회(회장 효천)가 제 1회 불교사회복지시설 관리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8월 18~19일 하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경남 25개, 울산 3개 등 총 28개 복지시설 관리자 150여명이 참석해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비롯 재가 노인복지의 발전 방향, 자원봉사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특히 보건복지부 강윤구 前 차관, 김형균 경남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경남 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강외숙 회장, 무학소주 최재호 회장 등의 강의도 열린다.

천미희 기자

담양 용화사, 구오사미 수계산림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8월 1일부터 5일까지 아일다율원에서 제3차 동자승 수련대회 및 구오사미 수계산림을 봉행했다.

6일간 진행된 동자승 수련회에는 이미 계를 받은 구오사미와 신입행자 20여명이 참가했으며 수계식에서 5명의 새로운 동자승이 탄생했다. 수계식에 앞서 수련회에서 동자승과 행자들은 사찰예절, 예불집전 등 습의교육을 받았다. 이준엽 기자

초록으로 채워야죠
지율 스님 '공간 초록' 문열어
기자회견 등 다용도로 활용

"비어 있는 공간 초록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을 채워줄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8월 11일 부산교대 앞에서 문을 연 '공간 초록'. 지율 스님과 뜻을 함께 해온 환경단체, 전교조 부산지부, 불교 신행단체, 교사 등이 가정집을 한 달여 동안 직접 개조해 '공간 초록'의 문을 열었다.

지율 스님도 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회복되지 않는 몸이지만 힘을 보탰다. 아예 그 공간에서 머물며 벽지도 바르고 정원도 가꾸었다. 손이 많이 가는 가정집을 택한 것도 도심에서는 보기 드물게 정원에 들꽃과 앵두나무가 푸르고 포도 넝쿨이 그늘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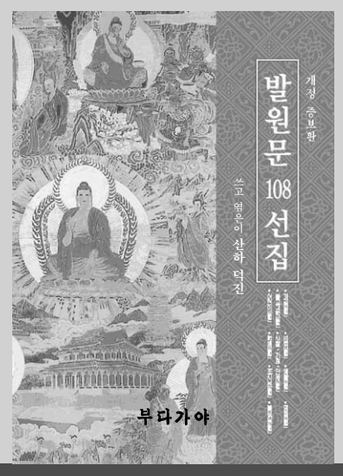
또한 공간 초록은 도배, 페인트칠 등 매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온 이들의 손길이 구석구석 느껴진다.

그동안 도롱뇽 소송을 변론해온 이동준 변호사와 박영관 교육위원 등 25명의 운영위원이 100만원씩을 출자했고 앞으로 월회비를 내는 회원을 모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공간의 알찬 활용. 비어 있어 그 가치가 더해지는 공간이 되기 위해 이곳은 특별한 관리인을 두지 않고 비워둔다. 그러면 누구나 공간이 필요한 이들이 이곳을 주인처럼 이용하고 또 다른 이들을 위해 깨끗이 청소하고 가꾸어 주어야 한다. 앞으로 이곳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강연, 전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간초록은 홈페이지(www.spacechorok.org)를 통해 회원 모집과 후원물품을 기증 받는다. 천미희 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청정한 마음으로 부르는 "보살의 노래"



정토사 주지 덕진스님께서 30여년 동안 대중교화를 위한 사찰, 청소년법회와 불교대학 등 각종 기도, 위문, 사회행사, 직장 · 가정의 의뢰와 포교현장에서 발원하고 서원하신 발원문을 모아 엮은 것입니다. 이를 수지 독송하여 자신을 바르게 지키고 수행을 곧게 하여 널리 일체서원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단으로서 전국 어린이 포교와 『불교천자문』 저자로서 널리 알려진 덕진스님께서 평소 수행정진이나, 포교 활동 중에서 얻은 마음을 꾸밈없이 진솔하게 표현.

'더러운 마음'을 '맑은 마음'으로 바꾸어
청정한 세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스님의 원력이
한껏 풍겨나온다.

〈서문 중에서 – 문학평론가 김용태〉



발원문 108선집
(덕진스님 엮음 / 4×6판 / 값 6,000원)

맑은마음 고운세상
(덕진스님 지음 / 문고판 / 값 6,000원)

전국 불교서점 및 유명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

※법보시 주문은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 울산 정토사 (052)258-9944 ·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34> 환(幻)인 줄 알면 환을 떠나니

근본무명이 어느 때 비롯되었는지 중생은 그 시초를 알 길이 없으므로 '본래부터' '맨 처음'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러나 무명은 일어나는 곳도 없고 그 실상 자체도 없는 것이므로 무명은 환(幻), 허깨비, 꼭두각시, 눈꽃이나 허공의 꽃과 같다.

눈앞에서 헛것이 어른거리는 '눈꽃'이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허공의 꽃'과 같은 환(幻)은 실체가 없는 허깨비요 꼭두각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이 환같은 무명에서 벌어지는 온갖 연기법이다. 그러므로 이 연기법 또한 하나하나가 모두 환과 같고 허깨비와 같다. 이 사실을 바로 알면 그 자리가 깨달음이다. <선가귀감> 34장에서는 이에 대해 이야기한다.

知幻卽離 不作方便 離幻卽覺 亦無漸次.

환(幻)인 줄 알면 환을 여의니
방편 쓸 일이 없을 것이요
환 떠난 그 자리가 깨달음이라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어지리라.

'환인 줄 알면 환을 여의니'의 뜻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실체가 환인 줄 알았다면, 더 이상 이것에 집착하여 중생의 꼭두각시놀음에 놀아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환을 여읜 이 자리가 깨달음이니,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집착하여 닦을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중생은 허깨비와 같은 이 세상의 모든 허망한 경계를 멀리 벗어나야 한다. 허망한 경계를 멀리 벗어나려는 마음을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생긴 '환같은 그 마음'도 다시 멀리 벗어나야 한다.

'환(幻) 같은 그 마음'을 멀리 벗어나려는 것도 환(幻)이 되니, 여기에서도 다시 멀리 벗어나야 한다. 멀리 벗어나려는 환을 벗어나고 또 벗어나서 더 벗어날 바 없는 곳을 얻게 되면 곧 모든 환이 없어진다.

불을 지필 때 나무를 서로 비벼 생긴 불이 그 불을 일으킨 나무를 태워 재와 연기로 허공에 사라지듯, 환으로써 환을 닦는 이치도 이와 같아서 마침내 모든 환이 사라진다.

모든 환이 사라지더라도 단멸(斷滅)에 들어가지 않고, 본디 있던 영원히 변치 않을 참마음만 남는다. 환인 줄 알고 환을 떠나니 방편 쓸 일이 없을 것이요, 환 떠난 그 자리가 깨달음이니 점차 닦을 깨달음도 없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心爲幻師也 身爲幻城也 世界 幻衣也 名相은 幻食也 至於起心動念 言妄言眞 無非幻也. 又 無始幻無明 皆從覺心生 幻幻如空華 幻滅名不動 故夢瘡求醫者 寤來無方便 知幻者亦如是.

마음은 꼭두각시를 만드는 요술쟁이다. 몸은 꼭두각시가 사는 마을이고, 세계는 꼭두각시가 입는 옷이며, 이름과 형상은 꼭두각시가 먹는 음식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내는 것이나, 거짓이다 참이다 말하는 것들이 다 꼭두각시 아닌 것이 없다.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꼭두각시 무명은 다 '여여한 마음'인 각심(覺心)에서 나온다. 꼭두각시 하나하나가 다 허공의 꽃과 같지만, 꼭두각시가 없는 깨달음은 '번뇌로써 흔들림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꿈에 부스럼이 나서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이 깨면 병을 고칠 필요가 없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꼭두각시인 줄 알면 꼭두각시에 집착하지 않게 된다.

꼭두각시는 남의 조종을 받아야 비로소 움직일 수 있으니, 실체가 없는 허깨비와도 같다. 이 꼭두각시를 다양하게 만들어 조정하는 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중생의 몸은 중생의 마음이 만들어낸 온갖 꼭두각시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비유할 수 있다. 이 세상 속에서 중생들이 사니, 이 세계는 꼭두각시들이 입고 사는 옷이나 다름없다. 이 중생들은 이름이나 형상에 집착하고 분별하며 사니, 이름과 형상은 꼭두각시가 먹고 사는 음식이나 마찬가지이다.

알고 보면 중생들이 시비 분별로 마음을 일으키고 생각을 내는 것들이 다 꼭두각시 아닌 것들이 없다. 참이다 거짓이다 말하는 것들도 다 중생들이 분별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니 이 또한 꼭두각시들이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원초적인 원인은 무명에 있다. 그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무명도 알고 보면 여여한 마음인 각심(覺心)에서 홀연 생겨난 것이다. 무명에서 시작되는 십이연기법 하나하나가 다 꼭두각시이고 허공의 꽃인 것이다. 이런 꼭두각시의 실체를 알아 그 공성(空性)을 보면 참마음이 드러나니, 우리는 그곳을 '번뇌에 흔들림이 없는 곳'이라고 한다. 꿈에 부스럼이 나서 의사를 찾던 사람이 잠에서 깨면 아픈 곳이 없어 병을 고칠 필요가 없듯이, 이 세상 모든 것이 꼭두각시인 줄 알면 중생의 병이 없어진 셈이므로, 병을 고칠 수행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萬里浮雲消散盡 一輪明月在寒空

하늘 가득 떠다니던 먹장구름 흩어지니
밝은 달이 두리둥실 저 허공에 떠 있도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cafe.buddhapia.com/community/wonsun

십이연기법이 다 허공의 꽃

실체 알아 공성 보면 참마음 드러나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적멸보궁(寂滅寶宮)

양산 통도사 대웅전에는 불상이 없지요? 석가모니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사리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멸보궁이라 부릅니다. 부처님의 분신과 다름없는 사리를 모시고 있지요. 그렇기에 전(殿)이나 각(閣)보다 상위개념인 궁(宮)이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궁에서 한층 올려 보궁(寶宮)이란 이름을 붙였지요.

보궁의 기원은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은 이후, 최초의 적멸도량회를 열었던 마가다국 가야성 남쪽 보리수 아래의 금강좌에서 비롯됩니다. 적멸(寂滅)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릅니다. 여기서 부처님은 <화엄경>을 설법하기 위한 해인삼매에 들어갔지요.

원래 적멸보궁은 언덕 모양의 계단을 쌓고, 불사리를 봉안한 양식이었지요. 이후 불상이 조성되면서도 그 경외와 숭배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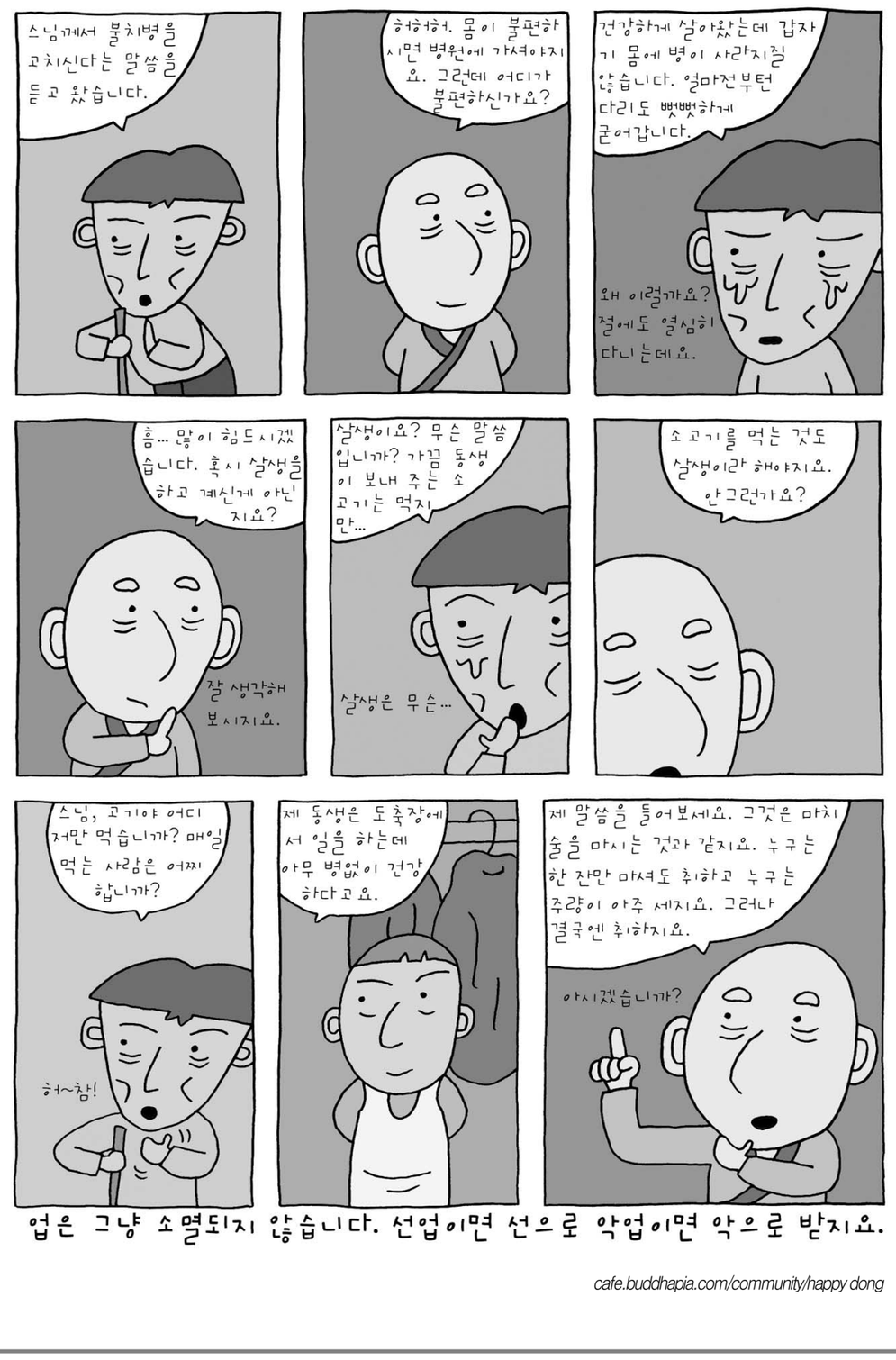
우리나라 적멸보궁은 편의상 진신사리 예배장소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천의 계단에서 참배하기가 쉽지 않았기에 때문이죠. 우리나라에는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님 사리와 정골을 나눠서 봉안한 5대 적멸보궁이 유명해 신도들이 자주 참배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행복동 사람들

육식을 좋아해요

배종훈 (bjh4372@hanmail.net)



cafe.buddhapia.com/community/happy dong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0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55강 제9장 일상무상분(一相無相分)

오늘은 9장을 읽기로 한다. 저번 시간에 인상 번역(?)을 질러놓고선, 뻗어가는 해석의 갈래를 수습하느라 애를 먹었다. 오늘은 층위별 번역을 다 놓고 길을 가보기로 한다.

(원문)

須菩提, 於意云何. 須陀洹能作是念, 我得須陀洹果不. 須菩提言, 不也世尊. 何以故. 須陀洹名爲入流, 而無所入. 不入色聲香味觸法, 是名須陀洹. 須菩提, 於意云何. 斯陀含能作是念, 我得斯陀含果不. 須菩提言, 不也世尊. 何以故, 斯陀含名 一往來, 而實無往來, 是名斯陀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那含能作是念, 我得阿那含果不. 須菩提言, 不也世尊. 何以故. 阿那含名爲不來, 而實無不來, 是故名阿那含. 須菩提, 於意云何, 阿羅漢能作是念, 我得阿羅漢道不. 須菩提言, 不也世尊. 何以故. 實無有法名阿羅漢. 世尊, 若阿羅漢作是念, 我得阿羅漢道, 卽爲着我人衆生壽者. 世尊, 佛說我得無諍三昧, 人中最爲第一, 是第一離欲阿羅漢, 世尊, 我不作是念, 我是離欲阿羅漢, 世尊, 我若作是念, 我得阿羅漢道, 世尊卽不說, 須菩提是樂阿蘭那行者. 以須菩提, 實無所行, 而名 須菩提是樂阿蘭那行.

(현토)

"須菩提, 於意云何오. 須陀洹이 能作是念호대 我得須陀洹果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하. 何以故오. 須陀洹은 名爲入流호대, 而無所入不入色聲香味觸法일새, 是名須陀洹이니이다."

"須菩提아, 於意云何오. 斯陀含이 能作是念호대, 我得斯陀含果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아, 何以故오. 斯陀含은 名一往來호대, 實無往來일새, 是名斯陀含이니이다."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那含이 能作是念호대, 我得阿那含果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하. 何以故오. 阿那含은 名爲不來로대, 而實無不來일새, 是故로 名阿那含이니이다."

"須菩提야, 於意云何오. 阿羅漢이 能作是念호대, 我得阿羅漢道不아."

須菩提ㅣ言하사대, "不也니이다, 世尊하. 何以故오. 實無有法名阿羅漢이니, 世尊하, 若阿羅漢이 作是念호대, 我得阿羅漢道라하면, 卽爲着我人衆生壽者니이다. 世尊하, 不說我得無諍三昧人中에 最爲第一이라, 是第一離欲阿羅漢이라하시나, 我不作是念호대, 我是離欲阿羅漢이라하노이다. 世尊하, 我若作是念호대, 我得阿羅漢道라하면, 世尊이 卽不說須菩提ㅣ 是樂阿蘭那行者라하시련만. 須菩提ㅣ 實無所行일새, 而名須菩提ㅣ 是樂阿蘭那行이라 하시나니다."

(언해)

"수보리야! 뜻에 어떠뇨? 수다항이 능히 이 념(念)을 하되, '내 수다항과(果)를 득하이 念을 하되, '내 아라한도(道)를 득하노라' 하느냐 아니냐?"

수보리가 사뢰되, "아니이다, 세존하! 어찌어뇨? 실로 '법 있음 없음'이 이름이 아라한이니, 세존하! 만약 아라한이 이 념을 하되, '내 아라한도를 득하노라' 하면, 곧 아(我) 인(人) 중생(衆生) 수자(壽者)에 착(着)함이니이다. 세존하! 부처께서 나를 무쟁삼매(無諍三昧)를 득하여 인중(人中)에 맛(*가장) 제일이라 하시나니, 이 제일 욕(欲) 여읜 아라한이니, 세존하! 내 이 념을 하되, '내 이 욕 여읜 아라한이로라' 아니하노이다. 세존하! 내 만약 이 념을 하되, '내 아라한도(道)를 득하노라' 하면, 세존이 곧 '수보리가 이 아란나행(行)을 즐기나니라' 이르지 아니하시려늘, 수보리가 실로 행한 곳 없을새, 수보리를 이름하시되, '이 아란나행을 즐기나니라' 하시나이다."

(번역)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수다원이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수다원의 경지를 얻었다'고…."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고요. 수다원은 '(성스런) 흐름에 들어섰음'을 가리키지만, 실제 들어선 경지란 없기 때문입니다. 형태나 소리, 냄새, 미각, 터치나 의식 등 어떤 형태로도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그걸 전제로, '수다원'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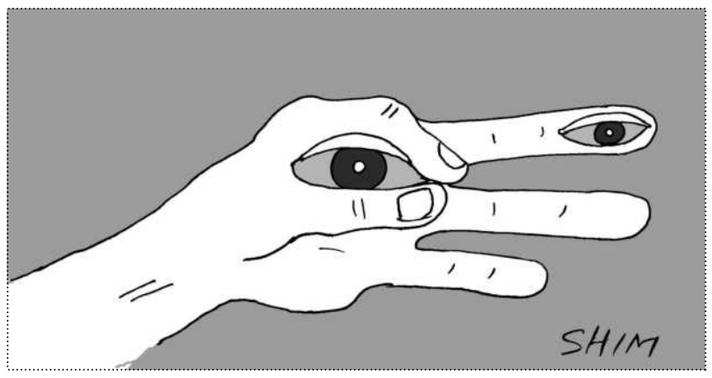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아나함이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아나함의 경지를 얻었다'고…."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고요. 아나함은 '(다시는 여기) 오지 않을 것임'을 가리키지만, 실제 오지 않거나 하는 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걸 전제로, '아나함'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네 생각에 어떠냐. 아라한이 그런 생각을 할까.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수보리가 말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고요. 아라한이라 꼭집어 내세울 만한 무슨 경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아라한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즉 '나는 아라한의 경지(道)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아와 세계의 이런저런 덫에 걸린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붓다께서는 제가 무쟁삼매(無諍三昧), 즉 더 이상의 쟁투와 소모가 없는 평정을 얻었다 하고… 그런 점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삶의 불순물을 완전히 떨군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저는 스스로 그것을 자랑삼아 떠올리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한 평정에 이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진정 아란나의 실천을 즐기는 자'라는 말씀을 유보하셨을 것입니다. 제게는 제 삶에 이름표를 붙일 그 무엇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전제로, '수보리는 아란나의 실천을 즐기는 자'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 현토, 언해, 그리고 번역



■한국학중앙연구원
cafe.buddhapia.com/community/plan_14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고풍스런 전통건축양식을 지닌 외형에 사찰은 물론 지역의 소식까지 알려주는 남양주 봉선사의 대형 게시판. 그 자체로 명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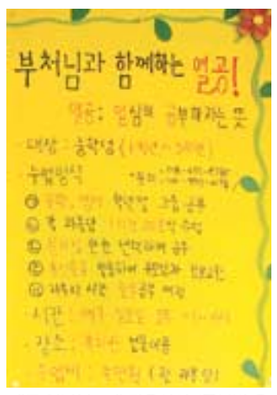
서울 화계사는 최근 깔끔한 간행물 비치대를 설치해 한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불교정보를 접할 수 있게 배려했다.

사찰 게시판 변신은 무죄?

봉선사, 20m 규모 9개 주제별 구성
사찰 과거·현재·미래 한눈에 '쏘옥'
적은 비용·노력으로 포교사 역할 '톡톡'
영남불교대, 신도·동문들에 공간 개방

봉선사를 찾은 불자들이 게시판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게시판(揭示板). 말 그대로 여러 사람에게 알릴내용을 글로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하는 판(板)이다. 게시판 하면 80년대 대자보(大字報)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90년대 모뎀전화선을 통한 BBS동호회 게시판 문화를 거쳐 지금은 강원도 산중 스님도 개인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질문과 답변, 검색어 조회까지 가능할 만큼 발전했다.



대구 영남불교대 관음사의 '공부방 운영안내' 게시물.

국가의 주요정책을 뒤흔들 만큼 인터넷 게시판 여론의 힘이 강해진 이 시대에 새삼 무슨 사찰 게시판이냐 할지 모르지만 아직 정(情)이 넘쳐나고 사람 냄새 배어나는 오프라인 게시판의 활용법은 무궁무진하다. 대다수 사찰 게시판이 법회일정이나 순회버스 시간표를 붙여두는 것이 고작이었지만, 최근 일부 사찰들이 게시판을 새로운 포교매체로 적극 활용하면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다.

절의 '얼굴'이자 말없는 '포교사'

8월 9일 오전,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 일주문에는 한글 큰 글씨로 '운악산 봉선사'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말복폭염은 조각 햇볕조차 무조건 피해 다니게 할 만큼 위세가 대단했지만, 대입 합격기원 100일기도 입제법회가 있는 날인만큼 신도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연꽃유치원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기 직전 환경교육문화관 앞에 있는 대형 게시판이 확 눈에 들어온다. 신도 서너 명이 게시판을 유심히 살피고 있다. 여느 게시판과는 달리 다포지붕에 기와를 얹고 한껏 멋을 부린 외형도 눈길을 끌지만 게시판을 채운 내용이 만만치 않다. 각각 12m와 8m의 'ㄱ'자 형태 봉선사 게시판은 모두 9칸, 각각의 주제에 맞게 사진과 글이 채워져 있다. △사찰 공지사항 △신도회 공지사항 △신도 참여마당 △행사와 동정(어린이 법회) △언론에 비친 봉선사 △불사동참 △합창단 △환경 △우리이웃 수목원(지역 소식) 등 다채롭다.

의정부에서 왔다는 김보연심(65) 보살은 "저기 종덕이 사진이 걸렸다"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신도의 얼굴을 발견하고 신기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절에 올 때 마다 게시판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찾는게 재미있다"는 김 보살은 "눈이 침침해 절에서 주는 사보(寺報)는 잘 읽지 못하고 인터넷은 사용할 줄 모른다"며 게시판에서 여러 소식을 접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한다..

강혜련(43) 보살도 "간혹 친구들을 데리고 절에 오는데 불교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게시판에 나온 내용을 보면서 봉선사를 소개하니 포교가 한결 수월한 것 같다"고 자랑했다.

수천 명 동문·신도들의 커뮤니티 공간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게시판을 신도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살아 숨쉬게 하고 있다. 하루 1천~2천여 명의 불자들이 드나드는 도심 포교도량인 영남불교대학은 각 층을 오르내리는 계단은 물론, 본관건물과 새롭게 불사를 마친 옥불보전 유치원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마다 각 공간에 맞게 다양한 모습으로 게시판이 마련돼 있다. 워낙 신도수가 많다보니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게시물이 붙는 것을 막고 종무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0여곳에 게시판을 설치해 신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법회안내부터 복지봉사 동참안내, 신문기사, 신도회 활동안내, 행사안내 등 다양한 내용의 안내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불교대학 동문인 법경 거사는 "신도회나 봉사단체에서 알릴 내용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신도 동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말했다. 때로는 사진반이 멋있게 찍은 사진들을 붙여 작은 사진전이 열리기도 한다. 종무소는 단지 유효기간이 지난 게시물만 정리한다.

대구 관오사(주지 지도)와 불교사회복지회에도 사찰 입구와 계단을 통해 법당으로 오르는 입구엔 늘 오늘의 법회안내와 주제 등을 게시하는 '이동식' 게시판이 자리잡고 있다. 게시판 아래에는 관오사보와 108순례회보, 불교사회복지회 나눔집 등 관오사 산하기관에서 발행되는 간행물을 비치해 처음 사찰에 들어서거나 초심자들을 배려했다.

불교계 신문·사보·회보를 한곳에서

광주 증심사(주지 진화)가 자리한 무등산은 하루 수만 명의 시민이 찾는 명산이다. 증심사 종무소앞에 아담하게 꾸며진 게시판은 등산객과 시민들이 피해갈 수 없는 명소다. 깔끔하게 단장돼 한번 더 눈길이 가는 게시판은 사찰행사 안내뿐 아니라 삭막한 현대인의 마음을 정화하는 법구(法句)들을 선보여 무등산을 찾는 이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고 있다.

서울 화계사(주지 수경)도 최근, 신도들이 불교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대형 간행물 비치대를 종무소 앞에 새롭게 설치했다. '현대불교'를 비롯한 각종 불교계 신문은 물론 사보와 불교단체들이 발행하는 회보 등을 가지런히 배열해 한곳에서 다양한 정보와 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한 것.

사찰의 입구에서 그 절의 '얼굴' 역할을 하는 게시판은 활용여하에 따라 무궁무진한 매력을 발휘할 수 있다.

부임하면서 게시판 정비부터 했다는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인터넷이나 사보 발행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글·사진=이준엽·조용수·배지선 기자



깔끔하게 정리된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의 게시판.



광주 증심사는 게시판을 활용해 무등산을 찾는 시민들에게 삶의 감로수와도 같은 법구를 들려주고 있다.

동신대학교 차(茶)학과 안내

1. 학과소개
최근 '웰빙'이라는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갈망, 건강지향, 문화지향, 편의성추구의 소비자 트렌드에서 볼 수 있듯이 차 문화와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고 유망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유기농 농법에 의한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품종 개량, 선진 가공기술, 글로벌 마케팅과 체계적 유통에 의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 차 효능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여 2007학년도부터 차(茶)학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에 의한 실무 중심 교육과정과 중국 절강대학과의 학점교류에 의한 복수학위제(추진중), 국제 학술 세미나, 국제 차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2. 교육목적
본 학과는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론과 실험실습을 통하여, 차의 품종을 개발하고 차 산업화를 선도하며 차(茶) 문화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향한다.

3. 교육목표
- 차(茶)의 재배 및 차 문화에 대한 기본지식 습득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육종개발을 통한 명차 생산 및 차(茶) 품종의 자원화
- 국제경쟁력을 갖춘 차(茶)전문 인재 및 지도자 육성
- 차(茶)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체계 확립
- 제다기술 개발 및 명차(茶) 생산과 품질관리사 배양

4. 교과과정
◈ 1,2학년 -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및 정보전산 교육, 차의 역사, 다도, 철학, 전통예절, 행다법 등 기본 교양교육
- 차문화 고전연구, 차 재배 및 제다 등에 관한 기초이론 교육
◈ 3,4학년 - 육종 및 생산, 유통, 마케팅, 차 문화기획 등 차에 관련한 전공교육
- 품질평가학, 제다학, 품종개량학, 다예학, 차나무재배학, 차문화사
- 중국 절강대학교 다학계(茶學系)의 교류 협력(추진중)

5. 교육환경
◈ 교내 : 삼매원(전통예절교육관), 산업용가속기이용생물연구센터(RRC),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BT)의 품종 개량실, 종자 은행, 의과대학, 한약재산업학과
◈ 교외(협력시설) : 영농조합지리산명차원, 초의선원, 초의선사기념관(무안군 삼향면 소재), 보성군차영농조합

6. 자 격 증 ◈ 다도사범증 기사 1, 2급(추진중), 제다사, 품종개량사, 품질평가사, 다예사

7. 졸업후 진로 ◈ 기업체 및 학교 다도예절 전문강사 (유통업계, 백화점, 호텔 등의 매니저)
◈ 차 문화 행사 연출 기획가, 차 요리 전문가, 차 미용 전문가 ◈ 대학원 진학
◈ 국내외 관련기관 및 식품가공 연구소, 식약청 등의 공무원 취업
◈ 국제 차 전문가, tea 마케터, tea 매니저, 차 브랜드개발 , 차 비즈니스리더, 차 무역업
◈ Tea shop 운영, tea consulting, tea house ◈ 차 산업 전반에 대한 창업

◆ 입학안내 : 동신대학교 입학관리처 (☏ 061-330-3333) www.dsu.ac.kr

20년 연구끝에 '대승기신론 통석' 펴낸 **이홍우** 서울대 명예교수

교육학자가 풀이한 깨달음의 세계



"대승기신론은 문헌학적이나 내용 면에서도 중요하지만 시적 감동과 아름다운 문장의 가치 또한 크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대승기신론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와 시적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의 기신론 공부와 연구결과를 집대성하여 <대승기신론 통석(通繹)>을 출간한 이홍우(67 · 사진) 서울대 명예교수.

이 교수는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로 정년퇴직한 교육학자. 그러나 불교신자는 아니다. 왜 어떤 인연으로 대승불교시대 후기 나타난 불교이론서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꼽히는 <대승기신론>을 연구하게 됐을까?

"제가 대학에서 교육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시기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의 40년중 딱 절반이 되는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령 지금 당장 영어로 된 서양 교육학 책이 한 권도 없이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교육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뒤에 알고 보니 이게 화두였습니다."

> "기신론, 현재 어떻게 살고 있나 생각케 해 종교 떠나 '삶'의 보편적 문제 다뤄"

이 교수는 그때부터 전공에서 그다지 멀리 벗어나지 않는 유가와 도가 사상에 관련된 고전들을 한학기에 한권씩 학생들과 읽고 그것을 교육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교육이론의 동양적 이론을 발굴하고 해석하는 일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교과목을 담당하던 저에게도 껍질을 깨는 아픔이 수반됐습니다. 그 계통의 책을 보다보니 결국 불교에도 읽어야할 책이 있으리라는데 생각이 미쳤고, 그때 눈에 띈 것이 <대승기신론>입니다."

이 교수는 '대승의 믿음을 일으키는 논술'이라는 대승기신론의 제목부터가 교육학적 의미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대승기신론이 '일으키고자 하는 믿음(起信)'은 진여가 세상의 근본이라는 믿음, 세상은 진여로 말미암아 생겼다는 믿음, 우리의 삶은 세상을 그것이 생기기 이전의 진여로 되돌리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진여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여를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믿음"이라고 말한다. 그렇기에 "<기신론>은 우리가 현재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허심탄회하게 생각해 보도록 권유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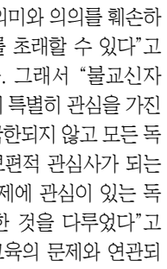
이 교수는 "<대승기신론>을 좁은 의미에서 '불교적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이 책의 의미와 의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불교신자나 불교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독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독자에게 보편적 관심사가 되는 문제를 다루며, 따라서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만한 것을 다루었다"고 한다. 저자는 "삶의 문제치고 교육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책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독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대승기신론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길잡이인 만큼 왜, 무엇을, 어떻게 기신론을 읽을 것인가 하는 주제에서부터 교육과 종교, 그리고 삶에 관한 주제에 이르기까지 23장에 걸친 폭넓은 기신론 읽기가 전개된다. 저자는 또한 통석의 마지막 부분에서 추기 형식을 빌어 칸트철학으로 대표되는 선험철학을 해설하고 있다. 우리는 이책을 다 읽고 나면 대승기신론은 종교이론이기에 앞서 교육이론이요, 삶의 이론이라는 점을 갈파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 본문을 참고할 수 있도록, 대승기신론 번역과 자세한 주석을 덧붙였다. 이것은 통석에서 인용되고 논의되는 대승기신론 본문의 구절을 쉽게 찾아보고 독자 또한 저자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하려는 저자의 배려에서 비롯됐다.

이 책은 부록으로 대승기신론 본문 번역과 주석, 그리고 기신론에 대한 하께다(Yoshito S. Hakeda, 일본학자) 해설과 저자 자신의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대승기신론 통석
이홍우 지음
김영사 | 3만5000원



전통사찰 총서 완간

21권 제주도편 끝으로 14년만에 마무리

사찰문화연구원이 전통사찰총서 제 21권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를 발간했다.

이로써 사찰문화연구원 연구위원인 신대현 박사의 노력으로 시작된 전통사찰총서 발간작업은 1993년 제 1권 강원도편을 시작으로 이번 제 21권 제주도편까지 14년에 걸쳐 마무리됐다.

전통전통사찰총서 21권인 <제주의 사찰과 불교문화>는 5부로 구성됐다.

1부 '제주의 전통사찰'은 7월말 현재 전통사찰로 지정된 관음사를 비롯 법화사 불탑사 월정사 천왕사 제석사 월성사 월영사 선광사 보덕사등 총 10개 사찰을 수록하고 있다.

2부 '제주의 주요사찰' 편에는 제주사암연합회와 제주불교사연구회의 추천을 받은 34개 사찰이 수록됐다.

3부는 고려 혜일, 조선 허응보우와 환성지안 스님 그리고 근현대 불교사의 획을 그은 법정사 항일운동의 김연일 방동화 스님, 비룡 스님 서경보 스님등 18인의 전기가 실려있다.

4부 '제주불교사'는 제주에 불교가 전래된 이래 현재까지의 역사를 수록했고, 5부 '제주의 절터'에서는 문헌에 등장하는 절터의 역사와 유적들을 자세히 다루고 있다.

한편 전통사찰총서의 보완작업 및 보급에 주력하고 있는 솔바람출판사(대표 동출 스님)는 연내에 제 1~2권 강원도편과 2007년 3~5권, 8~12권의 증보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또 300명의 회원을 모집해 300질을 한정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02)720-0824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다라니 공덕과 영험담 등 소개

'불정존승다라니'를 수록한 <불정존승다라니경>의 주된 내용은 제석천(帝釋天)이 선주천자(善住天子)에게 죽은 뒤에 일곱번 축생의 세계에 태어날 고통을 가엾이 여기고 부처님께 구제방법을 여쭈어서 받은 다라니의 공덕과 인연을 설한 경이다.

'불정존승다라니'는 날마다 21번 독송하면 업장이 소멸되고, 수명이 연장되며, 액난이 제거되는 공덕이 있다고 한다. 이 다라니는 중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송되었다.

고봉법사가 이번에 발간한 <불정존승다라니경 독송 · 사경기도>집은 송경의식을 소개하고, <나무불정존승다라니경>을 수록했다. 또 당나라 계빈국(지금의 캐시미르지방) 불타파리라는 사람이 <나무불정다라니경>을 683년 중국 장안으로 가져온 이야기와 기도 영험담, 사경방법, 다라니 사경등의 순으로 편집돼 있다.



불정존승다라니경 독송 · 사경 기도
고봉법사 지음 | 하늘빛 | 6000원

새로나온 책



■ **바다를 삼킨 물방울**(주훤 법장 지음, 불지사)=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다 인연인 것 같다. 한국에서 혈혈단신 걸림없이 어깨에 걸망메고 수행하던 자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자리를 잡았나 까마득하기만 하다. 화엄사를 창립할 당시, 나 자신 운전도 못하고 컴퓨터도 못하고 짧은 영어도 못하고…, 수행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시내 복잡한 곳에 있었을 지도 모른다."

20년 동안 미국에서 포교를 펼쳐온 법장 스님의 만행기. 이 산문집은 스님이 미국 필라델피아에 화엄사를 창건하고 포교활동을 벌이기까지의 과정을 풀어썼다. 또 저자가 신문, 라디오, TV 등에 발표해온 글을 수정정리하여 묶었다.



■ **꽃섬, 독도의 울음**(랑승만 지음, 문학아카데미)= 8 · 15 광복 61돌을 기념하는 원로 시인 랑승만 씨의 열 다섯번째 시집 <꽃섬, 독도의 울음>이 발간됐다. 이 시집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Ⅰ부 '신라 천년의 꽃섬, 독도의 울음'은 독도에 대한 최근 일본의 억지 주장에 대한 시인의 분노와 지극한 애정을 전작 장시로 집필한 작품이다. Ⅱ부 '영산재 24마당'은 세계평화 및 남북통일을 기원하기 위하여 영산재 춤사위 스물 네 마당 전과정을 작품화했다. Ⅲ부 '간난이 한'은 시인의 사모곡이다. 50년 넘게 시만 써온 랑승만 시인이 20여년 전 반신불구 장애인이 된 몸으로 가시밭 삶을 살아오면서 왕성한 시작품활동을 해온 역정을 실었다.



■ **붓다, 행복의 길을 보이다**(K. 스리 담마난다 지음, 장승)= 우리의 괴로움은 일체가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온다. 부와 재산, 건강과 청춘이 언제까지나 유지되길 바라지만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스러져 버린다. 젊은 날의 아름다움도 주름지고 희끗거리는 백발로 변할 때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에게는 근심과 불행이 찾아든다. 이 책에서 붓다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사색하여 불행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도록 가르침을 베푼다.

우리는 이생에서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붓다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사색하여 불행의 근원을 이해하고 이를 제거하도록 가르침을 베푼다. 이 책은 바로 붓다의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행복으로 가는 길을 제시한다.

yosiamun.com 추천도서

· 길위의 삼국유사	미래M&B, 고운기, 1만5000원
· 신심명 증도가	동국역경원, 혜원 스님, 8000원
· 마음이 단순해지는 선화	마음산책, 김홍근, 1만2000원
· 생명산필, 종이거울	김재일, 1만1500원
· 우리가 정말 알아야할 우리차	현암사, 여연 스님, 1만5000원

도서주문 (02)2004-8220

초심자를 위한 불교기초교리 강좌개강 (8월 30일)

2006년도 정릉 봉국사 불교교양대학 신입생 모집

1. 불교교양대학 개설 취지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심과 원력을 돈독히 함으로써 보고, 믿고 행하고, 중득하여 불교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불교교양대학 제 1기생**을 모집합니다.

2. 교 과 목

구 분	과 정	강 의 과 목
기초교리반	3개월	불자예절과 기초상식, 불교교리 불교의 수행법, 불교의 세계관, 불자의 신행과 실천, 선실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구 분	지원자격	제출서류	접수일자	강의장소	특 전
주간반	불교초심자및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분	• 입학원서 1통 (소정양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2006년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봉국사내 천불전	• 생활보호대상자 • 보훈대상자 • 입학금면제
야간반					

4. 입 교 일 : **2006년 8월 30일(수요일) 오후 2시 봉국사**

5. 원서교부처 : 본사종무소 **TEL 02)919-0212 / FAX 02)919-0216**
서울시 성북구 정릉 2동 637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봉국사 불교교양대학

新 유식학

유식사상연구회 고목 지음 돌섬출판 밀 양

••• 내 마음의 안과 밖을 여실히 깨달아 上智로 거듭난다.

유식학은 일상생활 속으로 과학과 진리와 종교를 한꺼번에 아우르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길잡이>이다.
내 몸과 마음을 알고, 사물과 세계와 우주를 알고, 그 지말과 근원을 알아 진리에 부합하면서 이상세계를 지향해가는 길을 밝히고 안내하는 독보적인 안내서이다.

-머리말 中에서-

이 책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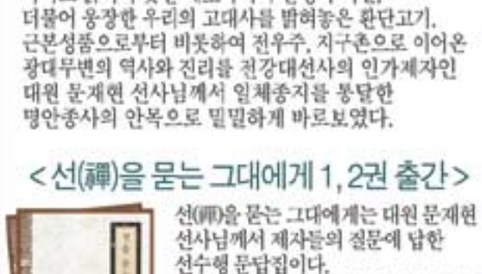
- 비교적 이해하기 쉽다
- 유식학 전체를 파악하기 용이하다
- 유식학의 현대적 의미 부각, 특히 현대물리학, 창조론과 진화론, 생명과학, 정신과학 등과 관련된 부분
- 유식학의 무한한 미래 가치 摘示
- 자기발견 · 생활속 수행과 習學 실용성 · 편의성 제고
- 의식개혁 · 이상세계의 비전 제시

····· 구입문의 ·····
전국불교서점 · 유명서점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지 / 저술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천강대선사의 인가제작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후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천하게 통달하여 낱낱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지금, 문학관에서는…

한국문학 향기에 취해볼까?

유명 문인들 육필원고·사진·초판본 등 전시
문예학교·낭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열려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토지 박경리, 가산 이효석…. 전국 각지에는 한국문학사에 한 획을 그은 문인들과 지역의 유명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관들이 있다.

문학관은 문학동호인만 찾는 곳은 아니다. 이곳을 찾으면 유명 문인들이 남긴 육필원고에서부터 사진, 각종 그림과 글씨, 책 초판본 등이 관람객들을 반긴다. 사진 속에서나 만날 수 있었던 초창기 잡지, 월북작가 자료 등도 접할 수 있다.

또 문학관은 단순히 고인이 된 문인들을 추억하는 장소만도 아니다. 문인들이 강사로 나서는 문학창작교실, 음악과 함께 하는 낭송회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문학에의 관심과 옛 문학의 향수를 느낄 수 있어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제격이다.

게임에 푹 빠져 시험과 관련된 서적이 아니면 잘 보지 않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예학교, 청소년 문학강좌 등도 욕심내보자. 문학관은 청소년 문학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습의 장으로 탈바꿈한다.

문학의 향기를 흠뻑 느낄 수 있고 다양한 문화행사도 참여할 수 있는 문학관, 지금 그곳에서는….


만해 한용운


미당 서정주

8월에 태어난 만해 한용운 스님의 발자취는 인제 백담사 만해마을과 백담사 만해기념관, 서울 남한산성 만해기념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해축전(8월 11~13일)으로 한바탕 축제의 장을 벌인 백담사 만해마을(033-462-2303)에서는 8월 한달간 현대시조 100년 기념 '대표시인 100인 시조 걸개시화전'이 펼쳐진다. 12월까지 하는 님의 침묵 문예학당도 있다.

백담사 만해기념관(0502-815-3133)에서는 <조선불교유신론> <불교대전> 등 만해 한용운 스님의 저서 원전과 <님의 침묵> 초간본, 100여종의 판본을 만날 수 있다. 독립운동을 했던 공로로 받은 최고훈장 대한민국장 등도 전시되고 있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031-744-3100)에서는 '나룻배와 행인'의 시비와 원로 조각가 민복진이 작업한 만해 흉상이 관객들을 반긴다. 10월 22일 만해문학 청소년백일장 등이 열린다.

'꿈과 사랑의 시인'으로 불려지는 조병화 시인을 만나고 싶다면 문학의 집 서울(02-778-1026)을 찾아가자. 문학의 집 서울이 조병화 문학관(031-674-0307)과 공동으로 8월 31일까지 개최하는 '조병화 시인의 시 생애 사진전'에서는 53권의 시집을 낸 조병화 시인이 남긴 유품과 사진 자료들이 관람객들을 찾아간다. 이밖에도 '금요음악이 있는 문학마당-정한숙 소설가의 밤'(18일 오후 6시) '수요문학광장-구인환 소설가'(23일 오후 3시)이 8월에 마련된다.


문학의 집 서울에서 매달 열고 있는 '수요문학광장'. 7월에는 김규동 시인과 함께 했다.

한국현대문학의 계보를 한 눈에 보고 싶다면 한국현대문학관(02-2277-4857)을 찾아가보자. 한국현대문학 1백년사를 한눈에 개괄할 수 있도록 꾸몄다. 소설가 진열장에는 이광수의 <무정>, 현진건의 <무영탑>, 김동리의 <무녀도> 등 작품집 초판본과 사진 자료들이, 시인 진열장에는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서정주의 <귀촉도> 등이 전시돼 있다.

이와 함께 한국현대문학관은 스페인어권 독자들을 위해 한국 시를 스페인어로 번역해 낭송하는 '한국 시의 밤' 등도 열고 있다.

2만5000여점의 문학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영인문학관(02-379-3182)은 문인서화전 등 기획전시를 마련하고 있다. 문인의 초상화 육필원고 문방도구와 문인의 글·그림, 문인들이 주고 받은 편지나 책의 삽화 등을 전시한다. 문학작품 낭독회와 문학강연도 매년 두 차례씩 마련된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전국 문학관

문학관	연락처
세계여성문학관	(02)710-9120
한무숙문학관	(02)762-3093
김유정문학촌	(033)261-4650
이효석문학관	(033)330-2700
토지문화관	(033)762-7382
경남문학관	(055)547-8277
구상문학관	(054)979-6447
마산문학관	(055)240-2415
이육사문학관	(054)840-6593
이주홍문학관	(051)552-1020
청마문학관	(055)650-5358
추리문학관	(051)743-0480
미당시문학관	(063)564-1321
박화성문학기념관	(061)245-2953
아리랑문학관	(063)547-9472
조태일시문학기념관	(061)362-5868
채만식문학관	(063)450-4467
한국가사문학관	(061)383-3253
농민문학관	(043)743-5186
원서문학관	(043)653-0978
정지용문학관	(043)730-3588

"다도 통해 전통문화 보급한 '독립투사'"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사상' 학술대회

"효당 최범술 스님은 불교계 항일투쟁 비밀결사조직인 '만당'의 수장 역할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속에서 다도(茶道)를 통해 민족의 전통문화 보급과 대중화를 꾀한 독립투사였습니다."

효당사상연구회(회장 채원화)는 8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 채원화 회장은 초의선사와 효당 스님(사진)의 차도의 내용과 성격에 대해 중층적 접근을 시도했다.



채 회장은 '근·현대 한국 차문화를 중흥시킨 초의와 효당' 주제 논문을 통해 "초의 선사는 개혁적인 실학사상의 물결 속에서 효당 스님은 민족의 독립을 위한 독립운동 속에서 차(茶)문화와 선(禪)문화를 재편한 선각자"라고 말했다.

특히 채 회장은 "효당 스님은 한국 최초의 차문화 개론서인 <한국의 다도>와 차동호회인 '한국차도회'를 조직해 일반인들에게 우리 전통의 차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섰음은 물론 제다법(製茶法)을 전승시켜 우리 차 맛의 우수성을 입증시켰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다도>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근대의 차 생활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놓았으며 서산대사, 설총, 충담사, 초의선사, 정약용, 이규보, 정몽주 등을 비롯한 선현들의 품격 높은 차생활상도 반영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효당 스님은 △다도를 통한 의식주의 검박한 생활 강조 △인격수양의 적도 △역사의식의 함양과 고취 △불보살 대비원의 실천행 등을 강조하면서 '민족의 독립을 위한 국민 개개인의 내실다지기'라는 행간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동국대 김상현 교수도 논문 '효당 최범술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 "효당 스님은 원효의 교학과 사상을 체계화했다"며 "그 대표적 예가 효당 스님에 의해 1970년대에 간행된 <반야심경복원소>와 <십문화쟁론 복원을 위한 수집자료> 등이다"고 밝혔다.

김상현 교수는 또 "효당 스님은 독립운동과 교육사업 및 정치활동, 다도교육 등 일제강점기 당시의 현실적으로 직결된 사회문제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이날 만해기념관 전보삼 관장의 '만해와 효당의 인간관계 연구' 동국대 고영섭 교수의 '원효 <십문화쟁론> 연구의 지형도' 등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노병철 기자

불국사 석가탑 긴급보수

꼭대기 장식 일부 떨어져 나가



석가탑으로 잘 알려진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국보 제21호)의 꼭대기 부분 장식 일부가 떨어져 나가 긴급 보수작업에 들어갔다(사진 원안).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8월 8일 "불국사 삼층석탑의 상륜부 보륜(寶輪: 탑 꼭대기의 장식)부분 꽃무늬 장식 일부가 낡아서 13㎝ 가량 떨어져 나간 것이 확인돼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접착 보수하기로 했으며 훼손의 심각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번에 탈락된 상륜부 장식은 1966년 석가탑 해체 보수 당시 남원 실상사 삼층석탑을 모방해 복원했던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불국사 삼층석탑의 원형보전과 안전관리를 위해 2003년 4월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해 상시계측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종합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해 보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병철 기자

낙산사 동종 9월 복원
총 예산 1억200만원

2005년 4월 산불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내린 낙산사 동종(보물 제479호)이 올 9월께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 박찬정 주임은 "현재 밀랍작업이 진행 중이며 9월 초에 주물성형을 마친 후 9월말쯤이면 복원된 동종을 낙산사로 이운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는 동종의 탁본과 실측자료, 성분분석 등을 토대로 동종 복원의 기초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밀랍작업과 주물성형 등 동종 복원의 본 작업은 원광식 주철장이 맡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 중인 낙산사 동종 복원 작업에는 1억 200만원의 예산과 20여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됐으며 제작기간은 성분분석 등을 포함해 약 1년 4개월이 소요됐다.

노병철 기자

2006학년도 불교지도자 과정 제8기(3년) 신입생 모집
법사과정 불교대학원

과 목	일 시	개설경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통신 각30명)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선사상	김호귀 교수
		팔천송반야경	김형준 교수
근본불교학과(주간,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산스크리트본 금강경	최봉수 교수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 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이수자	① 입학원서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2006년 8월 1일 ~9월 4일(월) [서류전형]	•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3. 개강일시 • 불 교 학 과 : 9월 4일(월), 5일(화) 오후 7시
• 근본불교학과 : 10월 12일(목) 오후 4시

4.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졸업장을 수여함.

5.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대학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3년과정)9월 개강 신입생 모집
2006년도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대학은 <불교학과>,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장례문화학과>, <불교미술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 불교학과(20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포교사과정 (30명) 법 사 과 정 (20명) • 불교미술학과(3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2006년 8월 1일 ~9월 7일 입학금 200,000원

전형방법	강의개강일시	
서류전형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불교학과정규반) : 8월 접수중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불교학과주간반) : 8월 접수중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포교사과정) : 9월 5일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다도학과, 법사과정) : 9월 12일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장례문화학과) : 9월 5일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미술학과) : 9월 6일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한문학과) : 9월 7일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2006 학년도 불교의식법사과정(2년) 신입생 모집
불교한글의식교육원

과 정	기간	요 일	법 사	내 용
• 토요정규반	2년	매주 토요일(오후 3시~5시40분)	만춘스님,문종순법사	이론,실기
• 수요야간반	2년	매주 수요일(오후7시~9시)	민병홍법사	실 기
• 범 패 반	2년	매주 금요일(오후3~5시)	인각스님	실 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30명(2년) • 범패반 30명(2년) • 야간반20명(2년)	• 한글불교의 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1통 • 반명함판사진3장	2006년 9월 9일까지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3:00~5:40 • 매주 수요일 오후 7:00 (야간반) • 매주 금요일오후 3:00 (범패반)

3. 개강일시 9월 9일(토) 오후 4시30분(정규반)
6일(수) 오후 7시 (야간반)
8일(금) 오후 3시 (범패반)

4. 원서 교부 및 접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 dongsanbud.net

5. 특 전 수료자는 불교의식법사 수여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원 • 동산불교대학 • 동산불교의식교육원

“인연의 소중함 알아야 합니다”



더위 아랑곳 않고 몸 쉴 틈 없이 마루 텃밭 법당 앞 화단 등 돌아가며 종일 울력

철저한 검약생활은 주위에 귀감…“신도들 시줏돈 함부로 써서는 안돼”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정공 스님 (장수 극락사 극락선원 조실)

밤낮 없는 무더위가 사람들을 지치게 한다. 한편에서는 독거노인들이 무더위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고, 한편에서는 냉방병에 시달리는 환자들로 병원이 북적인다. 우리 시대 여름의 두 얼굴이다.

무더위와 바쁜 일상에 시달리던 8월 1일, 전북 장수 극락사를 찾았다. 서울에서 세 시간 가량 달려서 도착한 극락사는 허름한 시골집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곧 쓰러질 듯 서 있는 요사채 앞마당에는 자그마한 텃밭이 가꿔져 있고, 그곳에서 울력을 하던 정공 스님이 고개를 들어 기자를 맞는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법당에 들러 부처님께 인사부터 하고 와요.”

벌써 한 줄기 땀이 얼굴을 타고 내리는 기자와 달리 법당 앞 커다란 토란잎은 더위에도 아랑곳 않고 싱싱한 모습으로 작은 그늘을 만들었다. 그늘 밑에는 잠자리 한 마리가 더위를 피해 앉아 있었다.

먼지 묻은 법복을 툭툭 털고 요사채 마루에 걸터앉은 정공 스님께 “불사하신지 꽤 오래된 것 같다”고 여쭈었다.

“부처님은 의왕(醫王)이에요. 의사가 병원이 크고 화려하다고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부처님도 그곳이 낡고 누추한 곳이라 할지라도 아프고 힘든 중생이 있다면 어디든 찾아와 병을 고쳐 주십니다.”

마침 정공 스님을 모시는 시자스님 한 분이 음료수를 건넸다. 잠시 목을 축이고 날씨 얘기를 꺼냈다.

“이곳에도 지난 태풍 때 비가 많이 왔나요?”

“여름엔 비가 많이 오고 덥지요. 이 우주 법계 돌아가는 이치에요.”

“덥진 않으세요?”

“더울 겨를이 있나요?”

시자스님에 따르면 정공 스님은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한다. 새벽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종일 울력을 하신다는 것이다.

스님과의 대화 역시 울력을 위해 자리를 옮기는 스님을 따라 요사채 마루에서 텃밭으로, 텃밭에서 뒤란으로, 뒤란에서 법당 앞 화단으로 이어졌다.

요사채 앞마당에 놓인 평상을 살피던 스님은 한쪽이 기울어진 걸 발견하곤 기자를 재촉해 기어이 읍내까지 평상을 고치러 다녀와서야 대화를 이어갔다.

조용히 텃밭을 손질하던 스님은 잘 여문 오이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빛을 먹는 것이에요. 빛 속에는 우주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빛을 제대로 먹고 자란 과일과 야채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밝아지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맺는 인연(因緣)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우리가 인연을 맺고 사는 모든 것은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입니다. 나와 인연을 맺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면서 스스로 내면의 진화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 모두가 부처라는 말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올해로 세수 78세인 정공 스님은 매일같이 울력을 하느라 회색 승복엔 흙이 묻고 승복 바지를 동여맨 끈이 낡아도 “신도들의 시줏돈 귀한 줄 알아야 한다”며 새 승복 사는 것을 만류한다. 낡은 승복이 극락사의 조촐한 법당과 더 없이 잘 어울려 보였다.

“요즘 사람들은 법과 진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욕심만큼 안 벌리니까 불안해하지요. 진실한 믿음만 있다면 돈은 중요치 않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정공 스님은 극락사를 찾는 신도들에게 ‘옴마니반메훔’ 수행을 권한다. 염불삼매를 경험하고 화두를 참구했던 수행이력에 비춰보면 그 까닭을 짐작하기 쉽지 않다.

“늘 옴마니반메훔 육자 진언을 외면 우리 몸에 중음신(中陰神)이 붙을 구석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염불이건 참선이건 수행을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어집니다. 또한 옴마니반메훔은 우리의 실상과 근원을 일깨워 주는 진언입니다.”

극락사 곳곳에 ‘옴마니반메훔’이 새겨진 비석도 세웠다. 요사채와 법당 사이는 스무 발자국도 채 되지 않는 짧은 길이지만 그곳을 오가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진언을 외라는 뜻에서다. 잠시 잠깐도 몸을 쉬지 않고 수행의 끈을 놓지 않는 스님의 모습에서 한철 더위는 한낱 내 몸을 쉬게 하려는 핑계일 뿐임을 느끼게 된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극락사 법당 앞에는 토란이 자그마한 그늘을 만들고 있다(왼쪽 사진). 신도들이 늘 보고 진언을 외라는 뜻으로 세운 ‘옴마니반메훔’ 비.

화 고통받는 중생들의 소원을 성취 하다 !! 제
신비와 영험의 치우천황(붉은악마) 영험도량 지장사 출현



소승이 그 동안 치우신의 기도를 통해 얻은 놀라운, 영험을 많은 중생들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치우천황을 세상에 공개하니 치우신의 영험을 직접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치우천황 (붉은악마)? 현제 SBS 방송중인 연개소문이나 MBC 주몽에 나오는 전쟁의 신, 군신으로서 그자체로 승리를 상징 합니다.

한국팀의 2002년 월드컵 첫경기인 폴란드와의 결전이 있기전 치우신께 정성껏 제를 올려 치후천황의 도술이 고강하여 한국팀을 돕고져 안개의 조화를 부려 한국축구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절망속에 빠진 신도분이 땅과집이 매매가 되지않아 법당의 신장상을 친견하고 놀라면서 스님 머리관이 붉은악마 치우천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연개소문에 나오는 치우천황 입니다. 스님은 시절인연이 옴을 깨닫고 치우신의 신비한 영험을 얻고져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정진중 치우신이 꿈에 선몽 되면서 집과 땅이 매매가 되었고 이후 많은 기도가성취되고 있읍니다. 스님은 치우신의 고강한 도술이 스님을 돕고 있는것을 깨닫고 절망속에 빠져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원하고져 합니다.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점을보고 굿을해도 되는일이없고 기도영험을 못보신분
치우신을 친견하고 신비의 영험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위치 : 지하철 7호선 수락산역 4번출구 하이마트앞 지장사
치우천황을 멀리서 친견 못하시는분들을 위하여 지장사 치우천황의 기를 받은 족자와 스님이 치우신께 올린 기도비법이 담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치우도는 소원성취 입니다 소장 하시면 큰 영험을 보실것입니다.
◆ 족자크기 : (가로 50cm×세로×120cm) ◆ 시주금 : 10만원
◆ 입금계좌 : 조흥은행 962-04-302262
◆ 문의 : 02)930-6052 지장사
※ 입시생은 치우신께 꼭 합격 발원을 하십시오 치우천황은 그자체로 승리 입니다.

“이름 대사전”
아직도 이름을 짓고 계십니까?

작명을 하는 데는 우선,
- 수리가 좋은 획수로 구성되어야 하고,
- 상생의 원리를 따르고,
- 수리구성에 의한 수리오행과 삼원오행 및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 작명에 쓰지 않는 글자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 한 글자가 두가지 음으로 소리나는 글자는 쓰지 않고,
- 장남과 차남을 구분해야 하며,
- 오행이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우리나라 약 320여개의 성씨 별로 약 2000여개의 최고의 이름들을 선택해서 이름풀이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사람이름, 법명, 상호, 기타 이름이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작명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책만 있으면 최고의 작명가가 될 수 있습니다.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정가 : 50,000원 ◆ 농협 121076-56-092613 (예금주:손선미)
※ 지금 주문하시면 5일후에 도착합니다

우주 에너지로 건강을 지킨다! www.chgg.co.kr
氣주입법
이재복 지음 2권 값 16,000원
우주에너지에 파동을 맞추면 누구나 氣를 방사할 수 있다.
생명에너지의 레벨을 높이면 몸이 더워지고 손에서는
전류처럼 자장이 흐르고 오라(Aura)가 증폭된다.
척추디스크 자연치유법
가정에서 골반보정운동으로 골반, 척추 바로 잡는다.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계통질환 치료율 98.8% (호주,북한보고서)



MBC - TV (통일전망대 방영)
2005년 11월 22일
북한의 조선중앙 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혈관계통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쪼여주면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책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 받으실때 택배비 3,000원 부담하시면 책2권(정가 16,000원)을 보내드립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 1544-2181



모든 것은 내게 답 있어

정공 스님의 가르침

지금부터 할 얘기는 용화세계의 주인공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일곱 살 때부터 아미타부처 명호를 외면서 자랐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은 중생을 구제하고 지상을 극락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설령 아미타부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참 눈을 뜨지 못하고 아미타부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하는 일을 몸이 알지 못하고, 몸이 하는 일을 영혼이 알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불성(佛性)이 있습니다. 깨달음은 내 안의 불성이 우주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불성과 부처님의 불성과 같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잣나무의 씨앗이 잣나무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라는 제한된 공간 때문에 그 불성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 법당에만 계신 줄 압니다. 말로는 '시방세계 어디에나 부처님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저기 있는 바위 모두가 부처인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한 발 떼면 미타국토요, 한 발 떼면 아미타국토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보살님 부처님을 찾으니 면사포를 쓴 어머니의 모습을 하고 나투는 것이지, 실제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처님 따로, 하나님 따로, 지구 따로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보존하지 못하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앎과 삶이 분리되었을까요? 바로 분별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 자체도 의식의 집합체요,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구 역시 깨달음을 향해 진화해 나가는 존재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과 지구는 동반자고 한 몸입니다. 내가 밟는 이 땅 역시 부처의 얼굴이고 내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구를 생각하기를 내 몸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날 자연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불성만 소중한 줄 알고 자연의 불성은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도(道)라는 것은 현실의 삶 속에서 진화해 가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삶 밖에 따로 있는 줄 압니다. 도인이 따로 있고 수행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개신교나 천주교나 종교의 가르침은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불교는 틀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깨달음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인데, 깨달음에 어떻게 틀이 있겠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의식의 확장을 말합니다. 유정무정에 모두 불성이 있습니다. 흙도 불도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에 연결되어 있는 불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의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불성이라는 등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켜지 않으니 암흑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켜기 위해 옴마니반메훔 주력도 하고 염불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부에서는 간화선이 아니면 사도(邪道)니 외도(外道)니 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수행법만 최고이고 수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 우주의 모자이크 한 조각일 뿐입니다. 부분으로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처가 된다는 것은 곧 내가 부처임을 기억해내고 인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휴대폰 통화하려고 해도 주파수가 잘 맞게 하려고 자리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면서 애쓰잖아요? 그런데 왜 공부는 그렇게 애써 하지 않습니까? 책도 안 읽고 공부도 하지 않는데 거저 이뤄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두 도통(道通)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지와 어둠으로 싸여 인정하려 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자신이 부처임을 모르는 것이지요.

용화세계 주인공은 바로 우리
인간과 지구는 동반자며 한 몸
재앙은 자연의 불성 무시한 탓

요즘 사람들은 물질만을 좇기에 날이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이 몸뚱이가 '완전한 나' 인줄 압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닌 몸을 위해 물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몸에 좋은 것을 좇습니다. 이 몸은 지구라는 무대에 연극을 하기 위해서 쓴 탈과 같은 것임을 알아야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곧 내 마음이 창조자라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이뤄집니다. 내가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안 된다는 관념, 어쩔 수 없다는 관념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나에게 답이 있습니다. 내 영혼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모든 답을 다 가지고 있지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희망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의 불성을 깨닫는다면 왜 삶에 희망이 없겠습니까? 나 자신이 부처임을 인식하고 믿는다면 희망은 절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도를 구하는 자는 진정 자신의 불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용화세계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정리=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18살 때 염불삼매 체험
전강 선사 만나 화두정진

정공 스님은 1920년 11월 19일 경북 성주군 용암면 구룡리에서 태어났다. 7세 때부터 '나무아미타불'을 염해 18세에 염불삼매를 경험했다.

성인이 된 후 선지식을 찾아 전국을 헤매던 스님은 29세때 해인사에서 전강 선사(田岡永信, 1898~1974)를 만나 본격적으로 불교 공부를 했다. 곡성 태안사에서 비구계를 받았으며 전강 선사에게 '이뭣고' '판치생모(板齒生毛)' 화두를 받고 정진했으며, 전강 선사에게 '정공은 오후사(悟後事)를 마쳤다'는 인가를 받기도 했다. 전강 선사 열반 후인 1975년 무주 원통사를 복원하고 장수 극락사를 창건했으며, 30여 년간 극락사에 주석하고 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78>



맑고 서늘한 열반으로 피서가기

숨 막히는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찜통더위 속에서는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습니다. 뭔가 계획을 세워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짜증만 날 뿐입니다.

더위는 또 그렇다 쳐도 소음과 매연으로 뒤덮인 도심에서는 맑은 대기, 청명한 하늘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더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일 물속에서 첨벙거리거나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일 것입니다. 이 무덥고 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곳을 떠나 맑고 서늘하고 청량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도망가고픈 심정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뒤덮여 고함치고 미워하고 시기하느라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열뇌에 지글지글 끓고 있다면 이와는 정반대인 세상이 있습니다. 대기는 맑고 깨끗하며 청량한 바람이 불어와 그 누구를 만나도 즐겁고 행복한 세상, 바로 열반의 경지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여름휴가에 가장 어울리는 피서지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바가지, 교통체증에 지치는 휴가
열반이란 피서지로 떠나보세요
불법 실천은 완벽한 여름나기죠

그러나 이렇게 멋진 피서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곳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열반이라는 피서지에 가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혼탁하기 그지없는 세상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며 악에 물든 채 그냥저냥 묻어가는 사람들에서부터 맑고 청량한 열반의 저 언덕에 도달하여 정착한 사람까지 해서 모두 일곱 종류의 사람을 비유로 들면서 말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물속에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더러움에 물들어 매일매일 열 가지 나쁜 업을 짓고 그에 따른 괴로운 과보를 받으며, 나고 죽는 윤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물에서 나왔다가 다시 빠지는 사람입니다. 불자라면 언제나 잊지 말고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계율 지키기, 남에게 베풀기, 법문 많이 듣기, 지혜롭기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사항을 닦고 익히기는 했지만 견고하게 익히지 못하여 잃어버리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물에서 나와 머무는 사람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 실천법을 잘 닦고 익혀서 수행의 기본이 견고하게 잡힌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물에서 나와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법을 완전히 몸에 익힌 뒤에는 그에 멈추지 않고 다시 현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하여 괴로움, 괴로움의 집기, 괴로움의 소멸,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정확하게 압니다. 그리하면 덧없는 자기에 대한 집착과 계율에 얽매이는 일과 의심이라는 세 가지 번뇌를 끊고 성자의 첫 번째 지위에 올라 괴로움을 없애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물에서 나와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 번째 사람의 경지를 모두 밟은 뒤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엷어진 단계로서 성자의 두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물에서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모두 닦아 익힌 뒤에 사성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며 이로써 욕심과 성냄과 자기는 영원하다는 그릇된 견해와 계율이나 금지조항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일과 의심이라는 다섯 가지 번뇌를 끊습니다. 성자의 세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는 물에서 나온 뒤에는 머물고 머문 뒤에는 살펴보고 살펴본 뒤에는 건너가고 건너간 뒤에는 저쪽 언덕에 이르며 이른 뒤에는 언덕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다섯 가지 실천 사항을 모두 닦아 익힌 뒤에 사성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며 이와 같이 알고 보았으므로 모든 번뇌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해탈하였습니다. 또한 자기가 해탈한 줄을 알고는 영원히 윤회에서 떠난 사람으로 성자의 네 번째 지위에 해당합니다. (중아함 수유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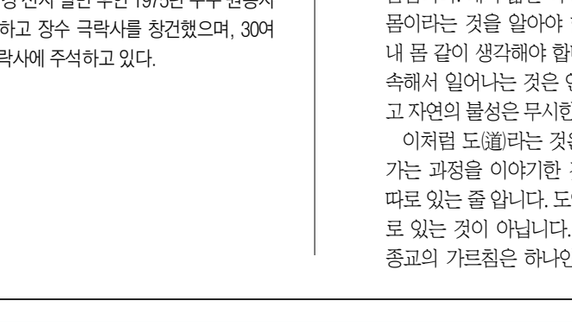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여름휴가철. 하지만 매번 바가지 상혼이나 교통 체증, 혼잡한 인파에 시달리느라 정말 몸과 마음을 개운하게 쉬고 오기가 힘듭니다.

혹시 내년 휴가철에는 열반이라는 피서지로 떠나보실 계획 한번 세워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믿음과 계율 지키기, 남에게 베풀기, 법문 많이 듣기, 지혜롭기의 다섯 가지 사항을 차분하게 실천해 가신다면 아마 내년 여름에는 가장 완벽한 피서지에서 행복해하실 것입니다.

■ 이미령(동국역경원 역경위원)

계룡산 대자암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

대승보살계(大承普薩戒) 십중대계(十重大戒)와 사십팔경구계(四十八輕拘戒)는 출가비구와 재가신도를 막론하고 다 같이 수지하여야 할 계법입니다.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계를 지키면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남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 같고 병난 이가 쾌차함과 같고 갇혔던 죄수가 풀려남과 같고 멀리 집나간 이가 돌아옴과 같나이다 (범왕경)라고 하셨습니다. 금번 대자암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계사 송광사 총림 방장 보성 대화상을 모시고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봉행하오니 무루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법회안내
▷ 보살계 수계법회 : 윤달 음, 7월 25일 (양 9월 17일)
▷ 접수마감 : 윤달 음, 7월 15일 (양 9월 17일)

계룡산 갑사 대자암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5880 / 팩스 041)857-5215

正宇 천연무공해 황토방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요사채를
천연 순100% 황토방으로
장엄하게 불사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정우 천연황토는 화학물질, 석회석, 시멘트, 본드 등 일체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첨가하지 않은 순100% 천연황토만을 사용하며, 묻어 나거나 갈라짐, 깨어짐, 들뜸 현상이 없어 벽지나 장판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순 100% 황토가 아니면 시공비 전액을 받지 않겠습니다.



고건축,일반건축,동기와,황토방,인테리어시공 전문
正宇文化財建築
정우천연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이메일 bestceo12@naver.com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망사 단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건강 슬리퍼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 색상 : 회색, 흑색

좋은 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수험생을 둔 부모 마음은 타들어가게 마련이다. 대신 더워 줄 수도,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이 그저 자녀가 건강하게 여름나기만을 바랄 뿐이다.

서울 조계사가 마련한 '07학년도 입시생 학부모를 위한 학업성취 특강'은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강좌다. 8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수험생 클리닉' 주제 특강에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녀를 응원하는 마음을 보탰다. 이날 김수현 생명치유아카데미 소장의 강의 내용을 정리했다.

조계사는 8월 25일에는 이석록 메가스터디교육연구소장의 '입시 마무리 전략', 10월 20일에는 이만기 UA중앙교육 평가이사의 '수능 직전, 직후 학부모의 자세' 주제로 특강을 연다. (02)732-2187

현미밥 먹고 가정 편안하면 집중력 쑥~

조계사, 학부모 입시특강

혈당 불규칙하면 신경질 · 우울증 유발
무조건 아이 기분 맞추려는 것은 잘못

▷건강관리 핵심은 혈당 조절

흔히 수험생 먹을거리라고 하면 '육류'나 '고열량식'을 먼저 떠올리고, 우리 몸의 주요 열량 공급원인 '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칼로리만 생각한다면 밥이나 고기, 튀김으로 얻는 에너지가 똑같을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 가장 안전한 칼로리원으로 작용하는 것은 밥이다. 육류나 튀김 등은 소화 후 노폐물을 많이 생성하는데, 이 노폐물은 피를 탁하게 하고 면역체계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험생들의 주 에너지 공급원은 밥, 그 중에서도 현미밥이 되어야 한다. 현미의 씨눈과 껍질에는 전체 영양의 약 90%가 들어 있는데 반해, 도정한 쌀은 비타민 B1 등의 영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현미식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혈당 조절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다. 수험생 중에는 손발이 차갑고, 다리가 붓고, 소화가 안 되고, 생리주기가 불규칙적인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히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나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혈당 수치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뇌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지 않으며, 이렇게 되면 집중력과 일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특히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이나 인스턴트식품 등을 섭취 후에는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데, 신체는 혈당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다분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체내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아드레날린'이라 불리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저혈당증과 신경질, 우울증 등을 유발한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잡곡이나 제철 채소를 천천히 씹어 먹는 동안 미각이 골고루 자극되어 발달한다. 미각세포가 발달하면 음식의 맛과 향과 질감을 기억하게 되어 편식을 하지 않게 된다.

▷아이 믿고 부부관계 회복해야

씨앗에 불과한 콩 안에 열매가 될 생명력이 깃들어 잇듯, 모든 생명체에는 나름의 생명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나와 같은 존재'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 늘 아이가 부족하다 생각해 과도한 관심을 쏟고 사사건건 참견한다.

아이 역시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고, 언젠가 자신의 생명력을 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아이 역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현한다. 아이라는 '불성'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이의 기분에 맞춰줄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달아야 한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집의 아이는 정서불안과 우울증을 겪게 마련이다.

부부싸움은 아이들이 '생존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위기상황이다. 아이는 '나'를 이뤄낸 부부가 서로를 부정하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부정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가정불화를 겪는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비행, 폭력에 빠지는 이유도 거기서는 자신이 존중받고 인정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부부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일은 비단 아이의 성적을 올리는 일일뿐 아니라 가정의 안정을 찾는데도 필요한 일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지혜경영硏, '합격플래너' 출간

지혜경영연구소(대표 손기원)가 대입 시험과 고시 준비에 한창인 수험생들을 위해 <D-100 합격플래너>를 펴냈다. '시험 가이드북'이라 할 수 있는 이 책에는 시험 100일 전부터 작성하는 마스터플랜과 성적관리, 일일 성취평가, 전문가들의 조언 등이 담겨 있다. 매일 매일의 학습 진도와 컨디션 등을 메모함으로써 체계적인 학습계획을 세워볼 수 있다.

또 수험생을 위한 3분 체조, 전문가들의 조언 등을 통해 학습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능인불교연구소 방기연 법사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허무함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방 법사는 "시험 합격으로 모든 것이 충족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으면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욕구좌절과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잘 살펴 현실에 맞게 조정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손 대표는 "<D-100 합격플래너>은 학습법 전문가들의 실전경험을 토대로 지혜로운 학습법을 정리한 것으로, 시험공부의 충실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고 출간의의를 밝혔다. 각권 8천원.

5000원으로 만드는 사찰음식 <29>

연자육차와 연자육 경단





이제 입추도, 말복도 지나고 가을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날이면 특별한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여름 보양식이라고 하면 삼계탕이나 보신탕 등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저만의 별식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 보양식 재료인 이것을 처음 맛보았을 때는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딱딱하다는 느낌과 향이 너무 진하다는 느낌 그리고 너무 졸깃하고 부드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너무 구수해서 꼭 숭늉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다양한 맛이 입안에서 머리끝까지, 가슴 속까지 울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수만 가지 다양한 맛과 향으로 저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연(蓮)입니다. 연은 꽃으로 내 가슴의 혼을 빼앗아가 버리고 크고 넓은 푸른 연잎과 송송이 박힌 연자는 제 혀끝과 가슴까지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또한 연근은 정과와 조림으로 또 한 번 제 미각을 사로잡은 마술쟁이입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올라 곱디고운 자태를 뽐내며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안겨주고, 넓은 잎은 건강한 먹을거리로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는 연. 거기에 한 가지 더해 연꽃의 씨앗인 연자 또한 소중한 먹을거리가 됩니다.

연자로는 밥을 해 먹어도 좋고, 볶아서 차로 만들어 마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보양식입니다. 최근엔 연자로 만든 음식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연자를 이용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연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연 덕분에 여름이 그렇게 더운 줄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드는 법



<연자육차(1인분)> 재료 : 연자 1큰술, 우유 1컵, 꿀 약간

①연자는 하루 전에 찬물에 불려준 후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볶아준다. ②볶은 연자를 분쇄기에 넣고 간다. ③우유는 살짝 데워준다. ④데워진 우유에 연자가루를 넣고 섞은 후 꿀을 더해 완성한다.



<연자육 경단(2인분)> 재료 : 찹쌀가루 1/2컵, 백년초 가루 약간, 죽염 약간, 연자 3큰술, 대추 5알, 꿀 약간, 시럽(설탕 3큰술, 물 3큰술) 고명(대추 1개)

①찹쌀가루는 익반죽해 30분 정도 숙성시킨다.(백년초가루가 있으면 함께 넣어 반죽한다) ②연자는 프라이팬에 볶아 분쇄기에 갈아준다. ③대추는 곱게 다져서 연자와 대추, 꿀을 넣어 반죽해 소를 만든다. ④분량의 재료로 시럽을 만든다. ⑤찹쌀 반죽을 완자로 만들어 소를 채워준 후 뜨거운 물에 데쳐낸다. ⑥고명으로 쓸 대추를 모양내어 잘라준 후 경단에 올려 장식한다.

▶다음 주에는 버섯전골, 버섯전을 만들어 봅니다.

■ 박상혜(사찰음식연구가)

경주 도심속 자연경관이 수려한 「비구니선원」분양안내



경주시 충효동 선도산에 위치한 금선사 여래선원은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의 수행처를 성황리에 분양합니다.

경주시내, 동국대병원, 경부고속철도, 고속버스 5분거리, 교통의 요지이자 편안한 지리적 여건으로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 개별 단독(난방) 축열식 심야온돌 · 온수 등 불편함이 없는 최적의 수행처를 제공합니다.

성황리 분양 중

제3차 여래선원 보현동 분양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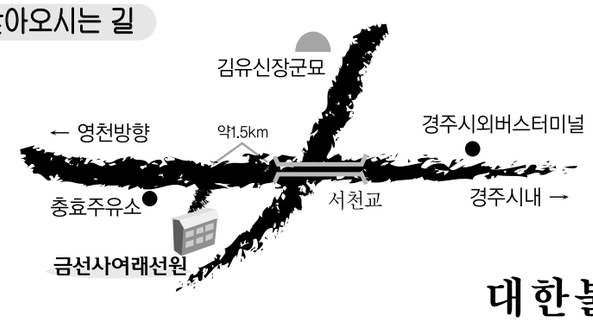
(1차 금선선원 30세대, 2차 여래선원 문수동 24세대 완전분양 완료되었음)

■ 28평형 - 2세대
■ 22.2평형 - 6세대
■ 18평형 - 6세대
■ 14평형 - 8세대

총 22세대 평당분양가 (390만원)
(8월 30일까지 완납시에는 360만원으로 할인 분양함)

※ 먼저 분양금 내신 스님 방부터 모델하우스를 꾸밀 계획이오니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께서는 연락하여 주십시오.

찾아오시는 길



경북 경주시 충효동 450번지 • 문의전화 : 054)772-7171 / 011-538-3879

대한불교 조계종 선도산 금선사 여래선원 주지 휴정 합장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 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본 통신대학에서는 통신교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에 알맞은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 각종 통신지도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과정으로 경학. 율학. 논학. 선학. 밀교 등 대학원 연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구 분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모집기간	수 시	수 시
수업년한	2년(4학기/각 6개월)	경.율.논.선.밀교 각1년
수업방법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가정과 직장에서 통신으로 교육 (년 2회 합숙 수련)
전형방법	서류전형	서류전형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 등본 1통 반명함판 3매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 특전 :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출가 수행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체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 사집과 · 사교과 ·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 모집학과

학 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 격
사미과	주 2일	6개월	초발심자. 출가를 원하는 불자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
사집과	주 1일	6개월	사미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사교과	주 1일	6개월	사집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대교과	주 1일	6개월	사교과 이수자. 동등자격이 인정된 자 불교대학. 교양대학. 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법사. 포교사

□ 원서교부 : 2006년 8월 1일 부터
□ 입 학 일 : 9월 4일(월)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특 전 :
1.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교 수 진 : 활안(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 약간명
□ 수업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수시 입학 가능)
□ 강의내용 : 천수바라,사다라니바라, 요접바라, 도량게작법, 다게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 지도교수 : 대혜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www.kumgangnet.com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1-14 전화 02)969-2410, 4981 / 팩스 02)964-2433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2006학년도 후학기신입생모집안내

[2년-4학기]

30년 전통의 대원불교대학이 재)대한불교진흥원의 교육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모집과정
- 대학과정
  - ◇불교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 출석]
  -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 : 주간, 야간 각100명 [주2회 출석]
- 대학원과정 : 야간반 30명 [주2회 출석 / 야간 오후7시]
- 통신과정 : 00명 [대학원은 제외]

강의시간
- 주간 - 오후 2시부터 4시40분까지
- 야간 - 오후 7시부터 9시40분까지

지원자격
- 대학과정 :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자
- 대학원과정 : 불교교양대학졸업자 및 해당학력이 인정되는 자 [법사 · 포교사 자격소지자 우대]

제출서류
- 입학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전형일정
- 원서교부 : 2006년 7월 1일 - 2006년 9월 11일
- 원서접수 : 2006년 7월 1일 - 2006년 9월 11일
- 입문, 대학, 대학원전형 :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 : 2006년 9월 12일(당일통보)
- 입학 ·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 : 9월 2일(토) 오후3시 마포 불교방송 3층 큰법당

전형료 및 수업료
- 전형료 : 대학과정 2만원 / 대학원과정 5만원
- 수업료(학기당) : 대학과정 30만원[교재비 별도]/대학원과정 40만원[교재비 별도]

※ 수업료는 입학식전에 완불하셔야 입학하실 수 있습니다.(카드결제 가능)
▣ 장학혜택 : 부부(가족)입학시 : 50%, 성적우수자 : 50%, 스님 : 30%

전형료 및 수업료 납부
- 외한은행 : 630-005063-139 [예금주: 대한불교진흥원]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대원불교대학 교학과 전화 02)707-1072 / Fax 02)3273-1618

※ 전화 신청 시 입학원서 및 안내문을 발송 해드립니다.

문 의 ● 대원불교대학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지하 1층 ☎ 02)707-1072

특 전
- 불교학과 졸업 후 법사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소정의 법사고시 후 합격자에 한해 법사품수식을 거쳐 법사자격증을 드립니다
- 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증 부여
  - 본교의 불교상담심리치료학과를 졸업하시면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거쳐 2급불교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시어 구체적인 전문영역(아동상담, 청소년상담,가정상담등)을 수료한 분에 한하여 소정의 실습 및 연수과정을 통하여 1급불교전문심리상담사 자격을 부여합니다.

재)대한불교진흥원
대원불교대학 · 대학원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불교방송 3층
☎ 02)707-1072 / Fax 02)3273-1618
www.buddhaschool.or.kr

윤년 윤달의 효도 선물 대광[금물]수의로 하세요

(상표출원번호 0039174)

불자님들을 위한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02)747-1760
전화 주시면 희망 상품 삼베 견본을 보내드립니다. 미리 확인하세요!
견본과 상품이 다를 경우 100% 교환 환불 해드립니다.

- 상품은 온라인 입금 후 원하시는 일자에 배송시켜 드립니다
- 홈쇼핑이나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어떠한 상품과도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우수한 품질의 삼배로 한땀한땀 정성드려 만들었습니다.
- 상품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의류시험연구원(국가기관)에서 발급한 원단 성분분석표를 첨부해드립니다.
- 모든 상품은 오동나무상자에 포장해드립니다.

수의 가격표

상품호칭	제작방법	재질(성분)	원단가공손질	원사생산	판매가격(25%할인가)
안동포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경북안동	3,800,000
1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천연가공 경북 안동	중국(산동)	1,250,000
2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경남 남해	중국(사천)	835,000
3호	수제직	대마(삼베) 100%	중국	중국	475,000



수의제품 품질보증업체
2002년 한국의류 시험 연구원
Q마크 획득



세시풍속〈歲時風俗〉

윤달(閏月)은 재액없이 무난하게 여기고 모든일을 거리낌없이 하는 풍속이 내려오고 있다. 특히 일년중에 한달이 덤으로 있는 윤달에는 손재 등이 없는 기간으로 모든일에 부정을 타거나 액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고, 그래서 평소에 꺼려하던 이장(조상의 묘를 옮기는 일), 집을 헐고 새로 짓는 일 등을 윤달에 하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예이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집안어른의 수의를 마련해두면 집안어른이 무병장수하고 자손도 번창한다는 세시풍습이 있다.
그 뜻을 미루어 짐작컨데, 수의를 마련함으로 자손들은 여생이 얼마남지 않으신 집안어른을 더욱 공경하고 효심으로 받드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며 집안어른은 죽음을 다스리고 대비하면서 여생에 대한 진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조상들의 지혜라 여겨집니다.

대광 금물 수의 서울시 종로구 예지동 296-19 광장시장(1층) TEL : 02)2279-7450, 02)2275-8075, 02)747-1761 / FAX : 02)2272-6715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범천명리학강의실

사일잔법주	9월 1일(금) 낮2-5시첫강의
육 효	9월 4일 (월)낮2-5시첫강의
용신특강	9월 5일(화)낮2-5시첫강의
궁통보감	9월 6일(수)낮2-5시첫강의
기문둔갑	9월 7일(목)낮2-5시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12주)에 확실히 책임완성지도
www.beumchun.com
02) 389-6597(연신내)

육임입문 출간기념

육임학 특강
■역학의 공식화, 쉬운 학습
■최고의 길흉적중율, 검증된 정확성
■강태공 · 제갈공명 애용 역학
고려육임학회
02)816-2115

팔자를 알아야 성공한다

명리 6개월 무료강의
정락스님 직강
032)662-5701
010-3448-6612

방편비법전수

침술 한약	급소를 활용하라 ※ 치료, 처방, 진단에 통달할 분
사주 역학	핵심 및 통변의 달인이 되라 ※ 배워도 배워도 답답하신분
영가 빙의	전생을 보고 귀신을 부려라 ※ 천도방법과 치유능력을 원할분

※ 만성병 상담 및 출장교육가능함
011-1737-2882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역학개인지도

명리,성명,택일,풍수
쉽게 풀어보는 명리첩경
著者 반야선원 혜공 합장
02)421-8494
017-606-6628
(전화 상담도 함)

數(수)修理(수리) 사주팔자

• 천체의 이동에 따른 지축의 정립으로 인해 1년이 360일이 되며 양력과 음력이 일치하니 기존의 달력이 새달력으로 바뀌며 周易(주역) 다음으로 제 3역인 교易(정역)으로 쓰인다. (일부김환선생의 정역편에서 발췌)
•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기본적) 숫자를 통한 특유의 접술로고..
• 숫자가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 교재) 수수리수인작법서 무료증 (시중에 절판된 책)
수강처 : 031)633-1517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눈

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빼빼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阿彌陀佛

축원문카드관리는 기본, 신도증발행 및 바코드 마그네틱카드사용가능, 전화걸기 기능, 이메일전송, 축원문카드내에 신도사진 첨부기능과 지속적인 무료업그레이드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31)746-1560
www.10879.com

범음범패 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천도재 49재	수륙재	예수재	바라나비	사물	각종의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중국 고대 비방 침술

허리, 목디스크
(3회~5회) 신효함
접수비 50만원
010-2553-3306
도안선원052) 224-3306

氣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지난 10년동안 많은 스님 거사님 보살님들이 배웠습니다.
• 동서양식 레이키 :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0만원
교육기간: 2~3일
※ 교육1개월 후 무료 추가 보충교육있음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 www.reiki.co.kr
(한글검색어 : 레이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연화석예석재 (구.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567-1260
전송 031)564-2464.551-1500
e-mail:yhstone3535@hanmail.net

과연 수행환경 이대로 둘 것인가?

불자동참연대 회원모집
cafe.daum.net/Buddha0408com

천수 바리춤, 오공양작법(나비춤)

(살풀이, 극락춤, 승무, 지전춤, 연화무)
여법하신 스님들을 모시고 사찰의 모든 대소 행사를 정성으로 장엄해 드립니다
도림 불교 무용 예술원
원장 연지심 합장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정원빌딩
051)515-7865
019-502-8868
바라춤, 나비춤 수강생 모집 中

총무님 모십니다

(30 ~ 40대)
011-9778-0408

평생 함께 하실 비구니스님,처사님 (60대이상),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태고종스님 환영)

극락사 납골당 공원
018-427-2256

사찰(女)사무원 (45세이하) 공양주보살님 (58세이상) 구합니다

041)673-3222

공양주 구합니다

(부부도 가능)
농사지을 수 있는 부부도 가능
▷용인지역
011-270-2675
031)335-2576

비구니기도스님 모십니다

031)533-2854

미국 갓실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자소유)
042)282-9270
042)282-718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곳 동해사
033)672-2900

기도정진할 30~40대 비구니부전스님 행자스님모십니다

055)271-5753
010-3193-6433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공양주, 관리처사 모십니다
02)3411-8103
011-9795-7602

공양주 모십니다

부산시 사하구
▷실상사
051)293-4569

비구 · 비구니스님 연락바랍니다

(남 · 녀 행자 모집)
011-459-3282

신심 깊은 처사님 모십니다

▷운전가능 (60세 전후)
삼천지장보궁 영명사
054)482-139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지역
011-527-590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50세이하 행자 구함-30세이하

▷포항
010-7642-200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조용한 암자, 사찰이나 운영이 어려운 사찰, 운영 맡기실 분 주지소임 원함.

(부산, 울산, 마산, 진주 등 경남 남부 일원)
010-5408-4949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3)256-265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초반
▷경남 창원시 동읍
010-4874-320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40~60세
031)571-5424
016-307-8878

조계종 산사 비구승이 정진하는 내원암에서 불심있고 후원 채공의 경력을 겸비한 40~50대 공양주를 구함. 그리고 자기 기도하며 후원을 보조할 기도보살님도 구함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 054)653-1180

기도스님(비구) 모십니다 법당 화주보살 모십니다

www.muryangsa.or.kr
무량사 041)836-5066

부전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스님)
▷울산지역
010-4559-8682
052)243-3881

모 집

기도스님, 처사, 법당보살, 공양주, 입산출가를 희망하는 남녀 49세이하
대구 팔공산 신라천년고찰
011-9176-4403
054)383-8032

사찰, 암자 전세 및 임대 구합니다

(비구스님)
053)767-6959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1-229-6061 / 02) 338-2158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 사암 등록 환영합니다
- 종무원 개설 원하시는 사찰 환영합니다
- 스님이 되시고자 하는 분 적극 환영합니다

총무원 행정실 ·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054)464-4725, 4735/010-7302-0077

28숙 특별지도

• 풍수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1:1로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02)374-9886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누구나, 재식, 염불을 쉽게 배울수있는 각단불공책

상단불공 · 신장불공 · 지장불공 · 산신불공법
용왕불공 · 조상천도 · 칠성불공 · 불명짓는법
책마다 순서대로 불공을 쉽게 할수있는 각각단권으로 맞춤형식 제작판매함



불공을 배우고자 하는분, 초보스님, 법사, 철학사, 보살님 기도하는 불자는 절대필요한 불공책 (역학.염불.배울학인모집)
대구시 중구 달성동 284-34 (농협) 743016-51-022866(정은정)
종단사찰등록 · 국제역술인협회 가입 환영 ☎ 053)561-4440

행자(예비스님) 모집

● 산중 분원인 감포선원(무문관)에서 수행함
☎ 문의 : 054)771-8350. 011-881-9710(주지스님)
- 대구큰절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것도 가능함
- 화주이신 우악스님 성좌됨
- 1인 1실, 민주적 교육, 수계 후 모든 교육비 지원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011-9852-0075(총무스님)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기도

태아영가천도

마음이 불안하고 뜻대로 되지 않는 분
태아영가천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회향 : 2006년 10월 28일 토요일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능엄신주 해석 독송기도

대학입시합격기도

입시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은 열심히 기도하시면 소원이 성취됩니다.

자녀교육문제

자녀탈선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
사법 행정고시 각종 취업 합격기도 책임지도
가정에서 전국 포교활동 하고 싶은 분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방법

경전독송기도특강

(3개월과정) • 기도와 회향
매주 화요일 • 보시와 불공방법

①우리말 천수경 ②문수보살예찬문 ③보현행원품 ④관세음보살보문품 ⑤지장경 ⑥금강경 ⑦아미타경 ⑧약사여래경 ⑨능엄신주 ⑩신년법어 ⑪불탄법어(성철큰스님) ⑫영가천도 ⑬기 타

● 지방분 환영 ● 전국 포교활동 하실분
★가정방문 상담과 기도해 드림
스 님 동참환영
● 군부대 법당 ● 경찰서 법당 ● 교도소 ● 병원법당 법보시 하실분 문의 및 상담
● 노후에 건강하게 오래살고 회향을 잘하고 복짓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밝은 사회 만들기

맨발등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서울 부산 대구 마산 안성
치매예방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963-9583 · 상담문의 : 055)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이런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부부갈등, 혼사지연, 학업성적부진, 가출,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 빙의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www.10cho-unse.com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직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6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 법당 : 20평
- 요사 : 100평
- 부지 : 등기 및 실사용 평수 1000평
- 가액: 12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0평
- 요사 : 80평
- 부지 : 650평
- 가액 : 3억 5천

- 위치 : 대전
- 법당 : 80평
- 요사
- 부지 : 50평
- 가액 : 7억 5천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젼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미래공인중개소)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1.서울봉천동100평-4억5천
2.은평구포교당40평-월50
3.경기광주사찰850평-12억
4.여주사찰임대120평-2억
5.강원사찰물많음-5억5천
6.서울국유지무허가사찰多
•기도스님공양주신속연결
불교정보센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마산시 산호시장앞
- 건물: 평주 30평
- 가액: 전세1천만원 월 45만원.시설비 상담후결정 (절충가능). 시설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55)243-3758
055)232-7151
011-599-847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인접서창 신도지
- 대지 : 60평
- 건물 1층 32평, 2층 29평 산신각 4평(단청필) 신축한지 3년(법당시설 A급)
- 가액: 2억 6천만원(대출 9천포함) 아파트 대단지 인구 10만 육박 주차시설편리

*꼭 필요하신 스님분만 전화바랍
011-868-599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연제구 (4 F 중 3 F)
- 평수: 25평 법당 1, 방 1, 부엌, 세면장
- 특징: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 포교당 앞으로 온천천이 흐르는 전망 좋은 곳 (조망권 양호, 시설 깨끗함)
- 가액: 2천만원 월 10만원
- 시설비: 5백만원

011-9557-4979

사 찰 안 내
- 위치: 천안근교
- 부지: 370평
- 법당: 20평 한옥
- 요사: 30평 한옥
- 가액: 2억 7천

- 위치: 대구근교
- 부지: 550평
- 법당: 15평 고찰
- 요사: 20평 산속
- 가액: 2억 1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삼소 (구,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시 내당동 전철역에서 걸어서 3분 아파트 주택가
- 40평 3층
- 주지실, 상담실, 공양간, 화장실
- 전세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200만원 몸만 오시면 됨

011-437-695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 2층건물 , 위치 좋음
- 법당 2층 28평, 요사채 1층 45평
- 대지 105평 뒤는 야산. 용왕당有.지하수 실내 화장실 2, 실외 2,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융자 4천 포함) 절충가능

011-226-2880

암 자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 얼음골 주위
- 임야 450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가액: 4억5천만원
- 유명관광지 입구

010-4876-5535
010-4699-9387

사찰(급)안내
- 영천-건천 IC에서 20분 종교부지 350평 임야(뒷산)
- 대웅전 10평, 요사채 30평
- 산신각, 용왕당, 집기비품
- 가액: 1억5천만원 (답사 후 절충)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6-831-3022

위치	부 지	가 액
• 부산	약 200평	5억
• 마산	약 100평	2억5천
• 서울	약 1000평	6억
• 충북	약 500평	2억
• 경기	약 1500평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경산시소재
- 부지: 800평(종교용지)
- 법당: 25평 (목조, 단청)
- 요사: 30평, 산신각: 5평(목조, 단청)
- 가액: 2억 5천만원
- 특징: 도심에 이쓰면서 계곡과 산세가 어우러진 사찰이며 특히 신라시대 유물이 있는 고사찰임

- 위치: 경남(함양읍)
- 부지: 800평(종교용지)
- 법당: 35평(목조, 단청)
- 요사: 40평(목조)
- 산신각 : 5평(목조, 단청)
- 기타 : 석불,석탑,석등
- 가액: 2억 4천만원
- 특징: 도심인근의 전통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가야산앞)
- 평수 816평 : 합 5천만원
- 특징 : 가야산 정상이 보이고 전망 최고, 산세 수려 절터 명당

※금액 불변,꼭하실분만 연락요망
010-9268-6166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 홍천군 하오만리
- 법당16평, 요사채31평 산신각 5평
- 대지: 1025평(국유림포함)
- 가액: 3800만원

010-9551-1201
033)435-2993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광역시 금남로5가 (충장로5가)
- 3층 중 2,3층 사용
- 평수: 총 40평
- 2, 3층 법당으로 이루어짐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3163-474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5일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시설하지 약 1년 됨, 주지실, 법당 지대방, 각 에어컨, 나방완비
- 보증금 :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5천 소유(2천 1백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사 찰 안 내
- 위치 : 천안
- 평수 : 1,100평
- 가액 : 9억 5천만원 (절충가능)
- 중부.경부고속도로 근접, 국도인접 요즘보기드문 명당자리 신행정수도 15분이내 근접지역

016-9558-0306

사찰 인연을 맺고자합니다
- 경주 남산
- 보물 부처님 계신 사찰
- 기암 괴석 수 많이 있음
- 터 5만평 (垈 2만평)
- 요사채 공사 10억
- 온천개발 및 고시완료
- 지방도 접 35억

- 무학대사 기도도량
- 경북 포항시 죽장
- 터 2만평 요사채 등 10채
- 천하절경 계곡물 多
- 지방도 접 인연 중요시
- 불사 비용 20억

016-512-7777 / 016-502-431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 범일동
- 약 20평 (3층건물 3층)
- 시설일체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시설비 포함 1천만원

※사정상 급히 안내함
019-634-3069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근교
- 평수 : 목조 20평 요사채 43평
- 땅부지: 550평
- 가액 : 절충가능
- 용왕당, 산신각 모두 되 있음

010-2300-2209

사 찰 안 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1.2층)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부산시내 및 근교
- 2억, 3억, 5억, 10억, 25억 등
- 사찰 신축 부지 다량 보유

016-558-4909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화순 광주에서 30분거리
- 평수: 1200평 , 조립식 임법당, 창고, 차고
- 해발 400미터, 연하도수 형국
- 법당을 중심으로 양쪽 계곡 흐르고 큰 호수 있음 산중불, 후불, 신중, 지장탱화 ,무료보시
- 가액: 1억 4천만원 스님 건강 상 급매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5255-9288

사 찰 안 내
- 위치: 충남 당진군 면천면 (아미산 최고의 명당)
- 평수: 10,000평 중 종교부지 600평 허가득
- 가액: 16억원
- 건물: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2동 국유지 600평 주차장 사용중
- 당진읍에서 10분거리 진입로 4미터 포장됨

연락 : 011-329-841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대명동 구남여상 구모닝병원 중간 대로변
- 4층건물 중 2층
- 평수: 42평
- 가액: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900만원

010-3191-6237

토 굴 안 내
- 위치: 남원시 주생면 남원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 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건물 3동, 방 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천만원

010-6401-4939
010-5631-8439

암 자 안 내
- 위치: 팔공산 갓바위 뒷길 경북 경산시 와촌면
- 대지: 약 224평, 건평 40평
- 건물: 법당, 요사채 산신각 조경시설
- 가액: 2억 4천만원(조정가능)

011-529-7799
018-534-1777

토 굴 안 내
- 위치 :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
- 평수 : 178평
- 건물 2동
- 가액 : 9000만원

011-662-9242
055)745-1083
017-587-7193

토 굴 안 내
- 위치: 충북금산 대전에서 가까운 거리
- 목조 23평, 임법당, 황토방
- 대지 100평, 전 305평
- 가액: 1억 5천만원

041)753-8137
010-4202-36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산자락)
- 전체평수 1,400평
- 건물 85평/ 임법당 심야전기, 일체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5억 5천만원

010-3941-0113
054)975-6642

토 굴 안 내
- 위치: 전남 강진군 음천면
- 면적: 1,000평 (사찰에서 차 출입 가능)
- 건물 2동 (법당, 요사채)
- 가액: 사글세 (1년 280만원) 권리비 없음, 즉시 법회 가능 생활가능 시설 완벽함

010-8009-1020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남산동
- 법당: 30평
- 2층 건물 중 2층
- 청동아미타 부처님, 약사여래 지장보살, 각단탱화 (범종)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500만원 (조정가능)

053)255-8984
011-822-808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대구 지하철 송현역부근
- 평수: 75평 2층건물 2층, 옥상 사용가능
- 시설: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1900만원 대형주차장 있음

011-450-5574

암 자 안 내
- 위치 : 익산시 황동면 소재지
- 국유지 450평, 사유지 300평
- 목조인법당 25평, 조립벽돌요사 33평
- 산신각, 문화재급약사여래석불
- 시내 5분거리, 포교도량으로 적합함
- 양도가 : 1억 7천 일시불 절충가함 심심풀이 전화 금합니다

011-677-8525

사 찰 터 안 내
- 절터, 전원주택, 펜션 민박촌, 연수원, 기타
- 경남 거창군 남하면 대하리 224, 약 2000평 151-3 , 약 3000평
- 위치: 가조 온천(지산)와 (가천) 합천호 사이

016-831-3366
055) 944-6636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 삼존불, 돌탑부처님(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1억9천5백만원

033)766-0057
011-471-1996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대동병원 옆 (지하철 동래역 2분거리)
- 평수: 15평
- 가액: 보증금 1200만원 월 23만원
- 시설비: 300만원

051)554-8163
010-4628-3657

토굴안내(예경선원)
- 위치: 충북 옥천 (대전에서 20분 거리)
- 대지: 200평 중 100평 등기필
- 건평: 법당 25평 산신각 7평 요사채 2동(18평, 11평)
- 시설: 예쁘고 완벽하게 갖추었음
- 가액: 1억 1000만원

011-9405-8186
043)733-818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북 의성군 안계면
- 평수: 대지 150평
- 대웅전 12평(3존불, 16나한) 요사 42평 수세식 화장실(욕실2개)
- 가액: 보증금 650만원(선세 140포함)
- 시설비 1,000 만원(총1,650만원)
- 특징: 산세좋고, 교통편리 넓은마당, 요사 70평 수용

054) 861-3014.861- 3015
010-6734-003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상계 1동 수락산 전철역
- 평수: 50평
- 가액: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3500만원 교통편리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011-715-6333

포 교 당 (급) 안 내
- 위치:대구 수성구 최요지
- 법당 65평 기존 포교당 운영
- 즉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75만원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6-528-3736

암자 별장 펜션부지안내
- 위치: 거창군 논 867평
- 가액: 관리지역 평당 13만원 절충가능
- 덕유산의 수려한 경관과 입구에 계곡 소폭포 있고 부지 조성됨 해발 500M. 마을과 1KM떨어짐 무주리조트 20분거리. 도로공사중

011-583-2097
055)963-2097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0-7473-5117

사 찰 (급) 안 내
- 위치: 부산시 북구 구포 3동
- 법당 60평 (방 3개, 주방1) 기존 포교당 운영(비품일체 완비)
- 보증금 2천만원,월 50만원
- 시설비는 만나서 보고 절충

018-528-7758
053)981-4439

사 찰 안 내
- 위치: 정선군 인계부근
- 대웅전 20평(목조건물) 산신각 5평(목조건물) 요사채, 행랑채
- 평수: 총 2312평 산세수려하고 소슬용궁
- 가액: 3억 5천만원 (융자 4천 포함)

033)562-7053
011-9793-7052

포 교 원 안 내
같이 운영하실 분 또는 인수하실 분
- 위치: 대구시 동구 - 현재운영중
- 건물 : 3층건물에 3층 전체사용
- 총평수 130평
- 법당 70평, 요사 30평, 후원, 보일러, 휴식공간 30평
- 가액: 전세 6000만원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컴퓨터 및 행정에 익숙한 분 기다립니다.
010-3475-0047

암 자 안 내
- 위치: 아산시 대방면 호서대 근처 천안에서 20분거리 온양에서 20분거리
- 산신각 4평, 법당 15평 요사채 50평
- 사용할 수 있는 부지 3백평
- 옷샘, 약물
- 가액: 8천 5백만원

010-2000-580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천안 병천 입장리
- 평수: 대지 150평 건평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답사후 절충

011-529-254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전주시내 고급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35평 , 3층건물 중 2층 법당, 스님방, 공양간, 사존불 각단 후불탱화, 지장단, 신중단, 산신단 영가단, 집기일체 완비, 시설완벽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후 협의 절충

063) 271-7688
010-3038-6788

사 찰 (급) 안 내
- 위치: 경남 의령군 궁류면 소재
- 임야 총 1700평 중 종교부지 허가면적 600평
- 건물: 토목공사 완공, 약 40평, 전기수도 완비
- 총 공사비 약 2억 5천만원 소요
- 가액: 2억 (방문 후 가격 절충)

주지스님이 지병이 악화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급하게 양도 하오니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055)572-0405 /011-9850-8208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익산 근교
- 대지 : 130평 건평 : 1층, 요사 50평 2층 법당 30평 산신각 5평
- 교통편리,심야보일러
- 가액: 2억 7천

017-336-7523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시에서 15분거리 큰도로변에서 5분 나주역까지 7분
- 대지: 400평
- 법당: 18평
- 요사채: 30평
- 가액: 1억2천만원 가격절충가능

010-6308-7320

도 심 포 교 원 안 내
60평의 포교원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된 비구비구니스님 초대 합니다
- 위치: 부산 중구 3층 전관 (EV有)관리비 없음
- 인테리어: 법당 24평 외 접견실 2, 방 3, 주방2, 황토벽 게르마늄 맥반석 시설비 총 9천 소요 되었으나 2천에 보시합니다. (양도 또는 같이 운영하실 분)
- 가액: 보증금 4천 5백 월 40만 (전월세조절가)

010-8678-5442
010-9250-2358

포교당안내
스님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포교원을 운영하실 원력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 위치: 서울 신림동 2층건물 중 2층
- 석가모니 관음지장 삼존불과 후불 및 신중탱화 봉안, 지장보살 원불 297분
- 법당외 방 1, 주방 1, 화장실, 약 30평
- 가액: 보증금, 시설비 5천만원 / 월 50만원
- 12년 포교하였고, 신도가 3백가구 넘으며 꼭 맡아서 포교하실 스님만 연락주세요

010-2304-22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당리동 혜원사
- 평수 : 2층 전체 170.80평방미터
- 방 4개, 공양실, 법당, 베란다 공간 넓음
- 삼존불과 산신 용왕, 칠성, 탱화 봉안 되어 있음
- 보증금: 4천만원 월 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51)203-7896
010-7375-789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동
- 대지: 110평
- 법당: 40평(단청)
- 2층(주지실, 종무소, 요사채) 1층 (창고 및 공양간) 도심 속 기도 및 포교도량 으로는 최적지 입니다
- 가액: 3억 5천만원

017-531-2888

포교당안내
- 위치 :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 평수 : 37평 3층 건물중 3층(옥상 사용)
- 특징 : 상가, 아파트 지역 (교통편리), 포교지로 최적지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집기일체)

019-656-2766

어머니가 닦은 복전 (상)

하용이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장)



그림 · 문병성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아집과 망상에 가득찼던 젊은 시절에 천 년 만 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모든 복이 내게로 올 것만 같았던 터무니없는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오히려 편안했던 마음.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기 위해 일심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기 시작했던 학창시절. 한국은행 불교회 활동을 할 때 가르침을 주셨던 스님들. 모두가 다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이다. 타국 땅에서 떠오르는 지난 기억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내 삶 속에 남아 있다는 것이 기쁘고 반갑다.

타국 땅에서 부처님 법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고 자랑이다.

홍콩 땅을 밟은 것은 올해 4월 1일이다. 한국은행 홍콩사무소장 발령을 받아 첵랍콕 공항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부처님오신날을 맞았다. 그 때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들었던 청담 스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또렷하게 떠올랐는지….

타국에서 맞는 부처님오신날,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을 돌아보니 복들 더 많이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한국에 있을 때보다 더 간절하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청담 스님 말씀이 귓가에 맴돈다.

중생은 누구나 다 수명이 허공과 같아 시작과 끝이 없고

중생은 누구나 다 복이 우주에 가득해 있고 없음이 없다.

다만 스스로 지은 바에 따라 누릴 뿐이다.

홍콩의 생활은 생각보다는 편안하다.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서울보다 훨씬 좁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며 살고 있기는 하지만 다행히 아파트가 산중턱에 있어 아침마다 50분 동안 산 정상을 오르내리면서 염불을 하노라면 부처님 세상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게다가 자연경관도 좋아 자연과 하나가 되니, 그 기분을 즐기는 것이 여간 재미있지 않다. 누가 홍콩생활의 가장 큰 낙을 꼽으라면 주저없이 이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곤 한다.

아파트가 위치한 뒷산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을 딴 '빅토리아 피크'인데, 기차를 타고 정상까지 올라 갈 수 있는 홍콩에서 제일 높은 유명관광지로, 한자로는 '태평산'이라고 한다. 정상에는 '사자정'이라는 동양식 정자도 있다.

풍요롭고 주위에 베풀며 살았던 우리집
아버지 사업 실패 후 끼니 걱정하며 생활
발길끊은 사람들 보며 각박한 인심에 절망

아침마다 태평산 사자정에 오르내리면서 체중이 5㎏이나 줄었고, 덩달아 욕심도 줄었다. 3년 전 과천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서 많은 것을 버린다고 버렸지만 욕심은 버리지 못했었는데, 이곳을 오르내리면서 매일매일 다짐을 하곤 한다. '서울로 돌아갈 때는 욕심까지도 버리고 가겠다'고.

산에 오르내리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했다. 이곳 사람들과 친해지고, 이곳 정서에 익숙해지기 위해서였다. 그랬더니 이제는 만나는 분들이 먼저 반갑게 아침인사를 건네 온다. 하심한다는 것이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피부로 느낀다.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한다. 어머니의 불심과 정성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내 어머니는 부산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하신 아버지와 결혼해 5남 2녀를 두셨다. 우리집은 행복했다. 형제들은 우애가 좋았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근하게 지냈다. 게다가 아버지 사업도 번창했고, 친가나 외가 친척들 모두 편안했다.

집은 항상 친척들로 북적였고, 어머니는 그렇게 사람 사는 냄새를 좋아하셨다. 어떤 사촌 형제들에게는 학비까지 대주셨고, 며칠씩 묵고 가는 인척들에게는 아버지 몰래 차비까지 두둑히 챙겨 주셨다.

심지어는 형 친구들까지 먹이고 입혀주셨는데, 그 중에는 소위 출세한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여유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부모님은 우리 형제들에게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 아닌 정신적인 지주였고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평안하던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부산 광복동에서 큰 빌딩과 해운대에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사업가로 제법 이름을 날리던 아버지가 40대 후반에 사업을 서울로 확장하시다가 실패한 것이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지만 우리 집은 그렇지 못했다. 서울 남산 밑 후암동 500평 규모의 2층 양옥 대저택에서 살았던 우리 식구는 적선동 40평 한옥으로 옮겨가게 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은 악화됐고 다시 화동 2칸 방 전세로 내려앉았다. 이렇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도 되지 않았다. 그야말로 순식간이었다.

식구들은 모두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게 큰 집에서 살다가 2칸 방에서 9명의 가족이 살자니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받은 충격이 컸다. 아버지는 매일매일을 술로 견디셨다. 아버지는 식구들을 보며 매우 힘들어했다. 모두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셨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까지 했다.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남산엘 자주 오르시는 아버지를 보는 식구들의 마음도 무너져 내렸다.

힘들기는 어머니와 형과 누나들도 마찬가지였다. 형과 누나들은 급작스런 생활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풍비박산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었다.

가세가 기울면서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던 식구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지금은 편안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때 당시에는 그처럼 절박하고 어려운 일도 없었다.

하지만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또 있었다. 그렇게 자주 찾아오던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진 것이다. 단 하루도 손님이 찾아오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항상 시끌벅적하던 집안이 순식간에 적막강산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끼니 걱정보다 더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은 이렇게 각박한 세상인심이었는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었다. (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당신에게 연꽃향기를 전해드립니다

혜정정사의 밀교수행강좌 모음집

불교TV에서 방영됐던 혜정 정사의 밀교수행강좌 26회분 모음집입니다.
컴퓨터로 볼 수 있고 일반 DVD로도 볼 수 있습니다.
DVD로 볼 수 있는 것은 압축한 시디 1장입니다.
모두 10장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100세트 한정으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료를 포함해서 6만원**입니다.
국민은행(예금주 : 최종웅) 계좌번호 661725-89-144651로
송금하시고는 반드시 전화 **031)254-2585**로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송금확인과 주소확인이 되는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행스님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을 한데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게 참선

(지난 호에 이어서)

천도를 시켜달라고 할 때 스님네들이 어떻게 하든 그것을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떡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물 한 그릇을 놓고 하든지.

외국에서 천도를 시켜달라고 그래서요, 초하고 물하고 향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아니라도 되는데 그거라도 방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틀림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벌써 영령들은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내주고 다녔지, 다니면서 목탁 들고 다녀, 무슨 뭘 들고 다녀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에서 천도해 달라고 보내도 "알았다."고, 그게 천도지 뭐 다른 건가요. 내 (가슴을 짚어 보이시고) 마음이면, 이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아주 작다면 작고, 없다면 없고,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아요.

그러니 그 관습에 젖어서 무슨 이사를 갈래도 못 가고 날짜를 봐야 하고, 제사를 지내도 왕창 차려놓고 해야 하니까 "아휴, 그냥 바쁘기는 한데 이런 것 해야 하고 아휴, 제사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그냥 잔소리 군소리 죄 할 거 다 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군소리 할 것도 없고, 바쁠 것도 없고 그리고 정성은 정성대로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처럼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에. 그러니 시대가 발전이 되고 과학, 의학 모든 것이 발전이 된다 하면은 우리 인간도 좀 달라져야 그 발전에 대비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발전이 돼야 모든 게 물질도 발전이 돼서 나오죠. 마음의 발전이 없는데 어떻게 물질이 발전이 돼서 나오겠습니까? 질문하실 것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여):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남편이 삼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여태 병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스님께 좀 도와달라고 왔습니다.

▲스님: 그건 질문이 아니에요. 여기 스님네들한테 관하는 도리를 배워가세요. 관하는 도리는 아십니까?

▲질문자1(여): 잘 모릅니다.

▲스님: 처음 오신 분이로군. 그러면 관하는 도리, 아까 얘기했죠. 자기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그 땅을 짚고 일어나야만 일어나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도리를 저 스님네들한테 이따 물어서 알아가지고 가세요.

▲질문자2(남): 오늘 네 가지를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놓고 맡기는 것 외에는 별도의 수행 방법을 강조하시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좌선이 좋은 수행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생활이 곧 참선이다 하는데, 과연 생활 중의 모든 언행을 곧 참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얼른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생활이 곧 참선이라는 스님 말씀의 참뜻을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아이 참, 그저 평상시에도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건데….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있다면 선생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죠. 일상생활의 일거일동말입니다. 이 세상이 형성된 것부터 죽는 것 사는 것,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 전체 말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자기,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하고 자기가 내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앉아도 참선이요, 서도 참선이요, 누워도 참선이요, 또 일을 해도 참선이요, 행선 · 와선 · 입선 · 좌선 다 한데 합쳐서 생활하는 자체가 그대로 참선이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따지지 마시고 일상생활의 모든 걸 내 마음속에서 한다, 그냥 들이고 내는 것이 한마음이다 이런다면, 그냥 거기다가 놓고 돌아가면, 믿고 놓으면 그냥 이것저것 따로따로 챙길 게 없이 그대로 놓고 가면 그것이 참선이 되는 겁니다.

> "내게 일일이 다가오는 것 그저 근본에 맡겨 놓고 지켜보는 게 바로 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렇게 놓는 반면에 그렇게 놓고 지켜보고, 지켜보는 게 바로 관하는 겁니다. 지켜보고 체험하는 그것이 참선입니다. 뭐 별다른 게 참선이 아닙니다. 내게 일일이 다가오는 것 그저 거기다 맡겨 놓고…, 즉 말하자면 오늘도 차 타고 오면서 봤는데요, 차가 망가져도 운전수 탓이고, 차가 받혀도 운전수 탓이지, 차를 가지고 누가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차 운전수 붙들고 야단이지. 하하.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몸뚱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운전수. 그러니깐 그 운전수가 모든 걸 해나가는 거니까 운전수에다 모든 거를 한데 모아서, 그냥 모으고 안 모으고도 없어요. 거기 놓고 그냥 돌아가는 그것이, 그러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나 몰라라 거기다가 그냥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 이러고 가도 아니 되고, 허허허. '너만이 할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어. 가고 오는 것도 다 너만이 알고 너만이 물리가 터지게 할 수 있어. 이끌어가게 할 수 있어. 이끌어갈 수 있어.' 하는 거죠.

▲질문자2(남): 두 번째는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여여하게 자유인으로 행하라는 뜻으로 사려됩니다만 그렇다면 마구니가 온다 해도 막지 않고 부처가 간다 해도 붙잡지 않는 것인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스님: 우리가 수행을 하려면요, 가는 것 일부러 그냥 쫓아가서 잡고 이러기보다는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무조건, 하다못해 부처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고 또는 마구니가 온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건 뭐든지, 하다못해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꿀떡 삼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가 깨닫지 않으면 그 도리를 납득을 못합니다.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는다, 이 뜻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 즉 말하자면 지금 말했듯이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 안 된다. 그냥 놓고 가는데, 그 가는 것도 오는 것도 그대로 법인데 뭣 때문에 간다 온다 야단법석을 하겠습니까? 공부하는 도중의 수행자는 그렇다 이겁니다.

▲질문자2(남):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에게 맡긴다, 주인공을 관한다고 할 때에는 맡기는 자와 맡는 자, 관하는 자와 관하는 대상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을 '주인공 당신'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 주인공이라는 대상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맡기고 그것을 관하는 줄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주인공' 하고 자주 생각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을 대상화하여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스님: 그러게 누가 상대를 두고 해달라고, '주인공! 해주시오.' 하고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몸뚱이 네가 고장 났으면 네가 고쳐서 끌고 가라.' 이렇게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대중 웃음) 아니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해결해라.' 그러고 놓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네가 벌여놓은 거니까 네가 수습해라.' 하고 놓으라고 그랬지. 하하하. 그것이 마음 없는 마음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모두를 둘로 보지 마세요. 이 주인공을 상대로 놓고 해달라고 한다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벌써 잘못 들어가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네 몸뚱이 이렇게 만든 것도 너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너니까 네 몸뚱이 네가 끌고 가려면 건강하게 끌고 다녀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놓을 수 있고, 그 놓을 수 있는 마음이 믿음직해야 됩니다. 그냥 장난기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그런 것은 핀트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로 보지 말고 열심히들, 어떠한 거든지 둘로 보지 마시라 하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많이 해드렸습니다. 수억겁 광년으로부터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광력을 찾고, 이 모든 진화를 찾고 형상을 찾고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 자체를 볼 때에 만나서 헤어졌으면 또 딴 걸로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해왔으니, 지금 생각을 한대도 어떠한 부모가 됐을 때 부모라고 하고 어떠한 자식이 됐을 때 자식이라고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는 거고 내 형제 아님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말입니다.

▲질문자2(남): 네 번째는 오조 홍인 대사께서 육조 스님께 의발을 전하신 뒤 길을 떠나라고 하시니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품을 회(懷)자가 든 고장에서는 머물고 모을 회(會) 같은 데는 감추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인 대사께서 하신 말씀을 스님의 뜻으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 "가는 것 잡지 않고 오는 것 막지 않고 무조건 꿀떡 삼킬 줄 알아야!"

▲스님: 이것을 뜻으로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는 그건 자기가 가는 거지 누가 대신 가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한마음에 뿌리와 나무 가지, 잎새, 열매가 모두 익어서 제대로 맛을 아는 자에게, 그 도리를 아는 사람한테는 행해주고, 즉 행하고 거기 머무르고, 또 그냥 겉탕으로 이렇게 모일 때는 감추어라. 즉 자기가 행하지 마라, 이 소립니다. 이게 이 속마음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 앞에는, 듣고 받아들이고 하는 자에게는 머무르지만 이게 겉탕으로 모여서 흉이나 하고 그러는 자에게는, 겉탕으로 하는 자에게는 아예 말문을 열지 마라, 감추어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 어디 간다 하더라도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해라. 그 자리가 바로 네 자리니라.' 이런 거거든요. 말은 할 줄 몰라도 뜻은 알지 않습니까? 하하하. (대중 웃음)

그러게 이 마음공부를 이끌어가는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알고 보면 오히려 더 쉬운 일이죠. 세세생생에 끄달리고 돌아가면서 이 모습으로 태어나고 저 모습으로 태어나면서 이렇게 하기보다도 거기에서 그냥, 여러분이 오신통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훌쩍 벗어난다면 견우와 직녀 속에서 훌쩍 벗어나는 겁니다. 예.

▲질문자3(남): 작년 4월 울산 KBS 공개홀에서 스님 뵙고 그때 말씀 네 마디를 듣고 지금 한 마디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제….

▲스님: 뭘 가지고 있다고요?

▲질문자3(남): 한 마디요. 말씀 한 마디만 가지고.

▲스님: 네.

▲질문자3(남): 그런 힘이 있다는 걸 믿고 이제 계속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지난번에 와가지고 울산 아들이라고 질문을 드릴 적에도 다 외우고 있고, 또 먼저 지난 4월달에 와가지고는 제가 질문하려니까 스님께서 박문수 어사 백지 얘기를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와가지고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주지 스님께서 울산에 오셨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할 적에 불상인 부처가 탁 나타났습니다. 도로를 건너는데, 한길을 건너는데 나타났습니다. '아, 그래 이게 뭔가.' 하고 찾으려는데 계속 찾으려는데 못 찾았습니다. 오늘 들어와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엄마가 저를 낳고 일찍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게 한 네 살쯤 되었습니다. 그래 한 네 살쯤 돼서 혼자 걸어 다니면서 놀잖아요. 노는데 새로 처녀가 시집을 와서 나를 키웁니다, 이제. 키우는데 노는 걸 보면 혼자면서, 누가 꼭 둘인 것처럼 얘기를 계속 하더랍니다. 가보면 혼자 있는데 얘기는 둘이 한다 이거야. 아, 이게 뭔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알았다, 이겁니다. 집안에서는 엄마 없이 혼자서 큰다고 만날 불쌍하다, 불쌍하다 이거야. 만날 불쌍해라, 불쌍해라 이거야. 그런 말을 흔히 하죠, 그죠. 아, 그것을, 이 도리를 오늘 스님한테 받아듣지 못하였으면 큰일 날 뻔 했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둘로 안 보고 하나로 딱 볼 적에는 전부가 나의 화신이요, 보살이라 미리미리 보여줬는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스님: 하하하.

▲질문자3(남): 이게 맞습니까?

▲스님: 예. (대중 웃음)

▲질문자3(남): 어쨌든 간에 지금 알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잊어버립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잊었는데 '불쌍해라, 불쌍해라' 하는 게 그게 도로를 건널 적에 부처가 나타난 거하고 그때 '불쌍해라, 불쌍해라' 한 그 소리가 '불상을 네가 해라.' 이 소리가 아닙니까? 그죠?

☞18면으로 계속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라야



그림 · 최주현

☞17면에서 계속

▲스님: 허허. 그것도 아니에요.

▲질문자3(남): 그것도 아닙니까? (대중 웃음) 그래가지고 쭉 있다가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너는 머리 깎고 스님이 돼야 네 소원을 다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가만히 연관시켜보면 그것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내가, 불법을 늦게 만났더라도 이 길을 난 분명히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정 정리도 이제 어느 정도 다 돼갑니다, 이제. (대중 웃음)

▲스님: 이거 보세요. 앞의 것을 해결을 못하고, 저 먼데 것을 해결하려면 안 되십니다.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게 갈 거는 간다 하더라도 지금 댁에 가족 있지 않습니까? 가족을 버리고 뭘 찾으러 가십니까?

▲질문자3(남): 아뇨. 곧 다 됐습니다. 스님은 여기 앉아계셔도요, 우리 집 형편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님: 그리고 그 마음에서 지금 그러한 도리를 아신다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화(化)해서 자꾸 자꾸, 한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됐다 남편이 됐다 이러듯이 그 마음속에서도, 이 주인공 속에서도 그저 이게 됐다가 저게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마귀가 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에 자꾸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질문자3(남): 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요 며칠 전에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두 남매가 속을 얼마나 썩이는지 모릅니다. 부아를 돋우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일이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내 생각을 했습니다. '요놈, 또 내 화신(化身)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돌리니까 조용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것도 있데요.

▲스님: 하하하. 예, 참 잘됐습니다.

▲질문자3(남): 오늘 배터리 보충 멋들어지게 하고 갑니다.

▲스님: 하하하.

▲질문자3(남): 그리고 제 나름대로 백지 한 장에 그림 한 장 그려가지고 울산에서 팩스로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림 그릴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가시는군요. (삼배를 올리는 질문자를 향하여) 한 번만 해라.

▲질문자4(남자 어린이): 스님, 한마음 내어주세요.

▲스님: 왜?

▲질문자4(남자 어린이): 주인공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스님: 오. 좋았어. 응. 그래. 한마음을 내달라고 안 해도 네 마음으로 한마음을 내면은 한마음이 된단다.

어떠한 거든지 걸려서는 안 된다 그대로 놓고 가라!

▲질문자5(남): 저는 경남 울산에서 왔습니다. 저의 안식구가 한두 달 전부터 원인 모르게 어지럽고 일어나지를 잘 못하고 이래서 울산 부산으로 여러 병원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별 검사를 다 해도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는데 이 원인이 과연 어디 있는지 몰라서 좀 알아보러 왔습니다.

▲스님: 허허허. 선생님이 모르시는 걸 내가 어찌 압니까마는 하여튼, 처음 오셨습니까?

질문자5(남): 예.

▲스님: 그러면 오늘 관하는 것만 알고 가신다면, 여기 주지 스님한테 들어서 관하는 것만 알고 가신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나을 수 있는데요. (대중 박수)

▲질문자5(남): 예. 울산 지원에서 스님들이….

▲스님: 그렇게 알고 가십시오. 이따가, 예.

저 원주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저 답십리 그 집 남편이 교육감 노릇 할 때죠. 답곡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 집이. 거기를 들어가니까 별안간에 그냥 허우적허우적 어떤 사람이 오더니마는 그때 뇌염이 한창 많이 걸릴 때인데 애가 뇌염이 걸렸는데 그냥 몸을 비틀고 그렇게, 모두 병이 걸린 애들이 20명 된대요, 병원에. 그런데 우리 애도 그렇게 됐다던가 그랬는데, 그때는 이 관법을 가르쳐주지도 못했다고, 그냥 알았다고만 하고 그냥 갔지. 3분이 안 돼서 몸이 깨어나서 밥을 먹었다는 거야. 이렇게 좋은 법을 모두들 왜들 안 하십니까. 자기 자성신(自性神)은 외면하고 타신을 만날 믿고 목탁 두드리고 생각하고 해달라고 하고 온통 야단법석들이니, 부처님이 사십구 년 설하고 가르쳐주신 길은 어디 가서 찾죠?

▲질문자6(남): 저는 지금 자연과학을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자연과학을 공부하다보니까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불법을 통하지 않고서도 진리를 얻는 방편이 세상에 있습니까?

▲스님: 이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佛)이야. 어떠한 벌레도 생명이 있으니깐 불이야. 그래서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이 운용하고 돌아가는 것이 그게 법이야. 생활이 그냥 법이야. 그러니까 불법이야. 너의 생명 근본, 영원한 근본, 근본이자 생활이지. 그런데 어떻게 그 생활을 벗어나서 불법이 있을 수가 있나? 모두가 불법인데. 불법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

▲질문자6(남): 그럼 다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모든 것이 문명을 받기 전에 불성(佛性) 그 자체가 있었다고 배웠는데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불성 자체로 보면 그것도 불성입니까?

스님: 뭐? 그게 잘 안 들려. 조금 떼고…. 다시 해봐.

▲질문자6(남) 애초에 불성 자체로 볼 때도요, 그것 자체에도 불성이 있는 겁니까? 애초에 있었던 불성에.

▲스님: 불성이라는 것은 어느 것에도 불성이 없는 게 없어. 우리가 이 세상 나기 전 암흑세계에서도 이 바람과 흙과 물과 이렇게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성이 있는 거야. 그 불성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인연이 된 거야. 삼합(三合)이 한데 합쳐지자 거기서 온기가 생기니까 불도 거기서 그냥 생긴 거지.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생긴 거지. 한데 합쳐서 생명이 생긴 거야,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생기니까 광력을 얻은 거야. 그래서 광력이 얻어지니까 그 생산이 된 거지. 미생물에서부터 생산이 돼가지고 수없이 겪어왔잖아. 뭐 무슨 시대, 무슨 시대, 공룡시대, 무슨 시대 하고 겪어오면서 발전이 된 거지. 그러다 인간까지 발전이 된 거지. 그래서 인간은 맨 나중에 나왔다 하지.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불성 없는 것은 없어. 생명이 있다 하면은 다 불성이 있는 거지.

▲질문자6(남): 알았습니다.

▲스님: 그래서 이런 것도 (물컵을 가리키시고) 컵도 이것이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이 되고 인연이 돼서 이것도 살아 있는 거지. 컵이라는 거를 봐주고 써주는 인연이 있고, 물을 담고 이렇게 써주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 있는 거죠. 이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거예요. 움죽거리고 있다고요.

▲질문자7(여): 오늘 스님을 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요, 공부를 좀 하고 싶은데 몸이 자꾸 말을 안 들어서 이러는데 스님, 조금만 용기를 좀 주옵소서.

▲스님: 몸하고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데. 물론 이 몸이 아프면 마음이 허황돼지고 그렇게 되지만, 진짜로 믿고 진짜로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것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그냥 맡겨놔버리고 그대로 '네 몸뚱이, 네가 형성시킨 네 몸뚱이 네가 끌고 다니는 건데 건강하게 끌고다니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하고 거기다 맡겨 놓고 가는 길이지 뭐 공부하는 데 무슨 뭐가 그렇게 걸립니까?

▲질문자7(여): 예. 조금만 용기를 주옵소서.

▲스님: 용기를 누가 주고 자시고 할 겁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이 이 마음공부, 이것을 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열심히, 어떠한 게 닥친다 하더라도 재료로 알고, 공부하는 재료로 알고 어떠한 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발전하는 데 기본적인 모든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해나간다면 정말 용기 잃지 않게끔 벌어질 겁니다. 모두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공부란 정말이지 역대의 조사들과 부처님이 그렇게 일컬어서 길을 인도하신 이 마음의 공부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체험하고 나가다보면 이 세상살이가 전부 팔만대장경입니다. 어떻게 다 써놓겠습니까? 과거도 미래도 변치 않고 오늘도 공해서 돌아가는 이 자체, 이 진리가 그대로 팔만대장경인데….

여러분, 모두 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이 살아나가는 데 어떠한 고통, 어떠한 병고, 어떠한 재난 이런 것들을 자신들이 모두 커버해나가면서 내 진짜 참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나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니 열심히들 하십시오.

※위 법문은 1990년 8월 19일 특별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통따주기지도사 강좌(2박3일) 안내

1. 전통따주기란

우리 민족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 따주기로써 예를 들면, 급체 시 엄지손톱 뿌리 밑을 바늘로 따주기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내려갑니다.
온 몸을 이렇게 따주기로 낫게 하는 민족 고유의 슬기로운 자신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2. 따주기의 특징

- 신경을 자극하고, 탁한 피를 맑게 합니다.
- 부족한 피를 생성 시키고, 나쁜 피는 사혈합니다.
- 월 1회 따주기로 사전 건강관리
- 따주기를 접한 날부터 몸이 낫기 시작 합니다.
- 평생 잊지 않는 위치 암기에 10분이면 충분 합니다.
- 간단하고,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3. 따주기 활용

- 자신 및 가족 건강관리
- 학생지도(고교생, 대학생)
- 신도 포교
- 따주기 사회봉사
- 전통따주기지도사로 활동

4. 따주기로 건강관리 범위

- 뼈 및 수술한 부위를 제외한 모든 분야
- 마음과 육신

5. 강좌 인원

- 선착순 20명(한국전통따주기연구원장 직접강의)

6. 9월 강좌일

- 2006. 9.8(금) ~ 10(일)

7. 특전

- 18시간 교육이수 후 수료증 수여
- 교재 · 사혈기 및 필수 부항 · 펌프 보시

8. 강좌문의 054)637-3477
(장소: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구구초등학교내)

한 국 전 통 따 주 기 연 구 원

六壬 · 命理 最高位課程 募集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으면 학문이 아닙니다.
실전감정을 통한 천고비전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입 학 안 내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반명함판 사진 4매
- **모집인원 :** 00명
- **수 강 료 :** 30만원
- **교육기간 :** 12주(3개월)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六壬 오전 10시 ~ 12시
  命理 오후 2시 ~ 4시
- **개 강 일 : 2006년 9월 5일**
- **접수문의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교학과 02)766-1321~2
  담당교수 011-524-1080 / 011-1763-3567
- **특 전**
  - 전 과정 수료 시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성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청동문회 회원
  - 본 교육 수료 후 관련 자격증 취득
    (단, 자격증 취득 시 소정의 비용은 본인 부담)

서울시 종로구 숭인1동 556 수석빌딩 3층
한성디지털대학교 HANSUNG DIGITAL UNIVERSITY 평생교육원
www.hsde.ac.kr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자 모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출가하여 사홍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5세 이상 55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종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 유 혁
前 금강대학교 총장

백두산 탐내는 중국

백두산은 백두산이다. 그런데 백두산은 서로 달리 부르는 이름이 많다. 이름이 많이 붙어 다닌다는 것은 그 나름의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름을 지어 부른 사람들은 제각기 제몫을 챙기려 들게 마련이다. 그와 같은 연유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현안이 바로 '백두산 유산 추진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백두산은 한반도(함경북도)와 만주와의 접경선을 이루고 있는 산으로 높이가 해발 2,744m에 달하는 명산이다. 일찍이 동방세계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전통을 지니고 있는 신앙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는 점에서 영산(靈山)이라 부르기도 하는가 하면, 정상에 있는 호수를 우리는 천지(天池)라고 부른다.

물론 고려시대에는 달문담(達門潭)이라 하여 멀리 흘러간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이를 용왕담(龍王潭)이라 부르면서 신비성을 느끼려 했다.

산의 이름 자체도 남북조시대에는 태백산(太白山) 또는 도태백(徒太白)이라 부르다가 금(金)나라 때에 이르러서 백산(白山) 혹은 장백산(長白山)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어휘 개념으로 본다면 장백산이라는 것은 백설이 덮혀서 늘 희게 보인다는 뜻이며, 백두산은 산의 정상인 머리 부분만 희다는 뜻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아시아지역에 있어서 도주제선(道州制線)은 전통적으로 산의 능선과 물줄기를 따라서 접경선을 획정했다는 점이다. 이를 의산격수(依山隔水) 방식이라 한다.

요즈음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유네스코의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조약'에 따라 등록을 서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구별된다. 20여개국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국의 요구에 따라 접수 조사 심사의 과정을 밟게 된다. 중국의 요구가 접수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간에 위원회의 소정절차는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우리의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유네스코는 UN산하의 기관이다. 한국도 중국도 북한도 모두가 원칙적으로 동등한 유엔회원국이다. 그러나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과의 접경선을 이루고 있는 지대에 자리하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냉정히 살핀다면 역사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한 민족공동체라는 논리를 바로 세워서 남북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돌이켜보면 1712년(숙종38년)에 백두산에는 정계비(定界碑)가 세워졌다. 당시의 중국을 대표한 사람은 길림성 성장이었던 목극등(穆克登)이었다. 숙종조에서는 박권(朴權)을 접반사(接伴使)로 파견했다. 그 때 정계비는 압록강과 두만강 분수령 산마루에서 동남방 4㎞지점(해발 2200m)에 세워진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엄밀히 따진다면 이는 국경선의 획정이라기에는 너무도 설득력이 없다.

하여튼 한중국경선은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백두산을 정점으로 하여 서쪽으로는 압록강의 물줄기를, 동쪽으로는 두만강의 유로를 국경선으로 인식해왔다. 그렇다면 백두산은 한국과 중국이 반쪽 씩 나누어서 소유한 셈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두산은 남백두산과 북백두산으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다. 때문에 한국에서 백두산 문제를 제기하면 한국 백두산이 될 것이고, 중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중국의 백두산이 된다. 이런 상황 하에서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단일 산명의 개념으로 유네스코에 자연유산 등록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에 바라건대, 1712년에 정계비를 세우고자 했을 때 국제간의 예의를 존중했던 그 당시의 겸양이라도 최소한 표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일이 동북공정 개념의 것이 아니어야 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공직자의 종교중립 의식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최근 246개 광역기초단체장들에게 종교중립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고 한다.

위원회는 서신에서 "사회 공직자의 종교 편향은 부하직원의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속한 조직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한다. 또한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한순간 물거품으로 만든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직자의 종교편향이 왜 문제되는지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적시한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정교분리도 함께 언급하고 있다. 즉 공직자는 공적인 자리나 공적인 행정집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자질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는 멸사봉공의 정신, 즉 사적으로는 거마까지 허용하나 공적으로는 침하나도 용납지 않는 '사통거마 공불용침(私通車馬 公不用針)'의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가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종교에 대한 중립적 입장도 공익과 사익을 잘 분간하는 일종의 공직윤리에 다름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보여준 종교편향의 작태는 개인적 신뢰와 그 사람의 종교에 대한 호감을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까지 심각한 우려를 안겨 주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공직자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위원회가 21일까지 회신해 줄 것과 실명공개를 언급한 만큼 과연 246개 지자체 단체장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우리 불교계가 이러한 자질부족의 공직자들에 대한 대응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교편향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사람들을 불교행사자리에 버젓이 앉히는 따위의 우리 교단의 지나친 자비(?)의 행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들이 진정 참회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다르겠지만, 단지 정치적 이유로 잠시 불교계를 회유하고 있을 뿐이라면 단호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그것은 종교편향발언에 이어 불교계를 또 한번 농락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교단인사들의 각성과 단합을 아울러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도수(정업도량 회주)

특별기고

다시 찾아야 할 우리땅 북간도

이두(조계종 원로의원 · 금오문도회 문장)

날 저무는 하늘에 별이 삼형제, 반짝반짝 정답게 지내이더니,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남은 별만 들이서 눈물 흘린다.
-소파 방정환의 '별삼형제'

이 동요에는 당시 민족의 슬픔이 그대로 들어 있다. 조선을 남선(南鮮), 북선(北鮮)으로 나누어 말하던 습어(習語)가 있었고 간도(間島)에 다수의 동포가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별 삼형제'라고 했다. '날 저무는 하늘'은 그때 조국의 상황과 운명을 말한 것이다.

일제 조선척식회사와 금융조합에 토지를 약탈당하고 굶주림에 떨면서 남부여대(男負女戴)하고 살 땅을 찾아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가 정착한곳이 바로 북간도, 지금의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이다.

한국과 중국은 간도를 놓고 서로 자기의 영토라고 하는 국경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 세종때 김종서 장군은 그 땅에 6진을 세우고 조공까지 받았다. 1600년 청나라 건국과 함께 여진족들이 중국본토로 이전하자 청나라는 이곳을 봉금지(封禁地)로 정하고 한민족의 유입을 금하였으나 한인들은 내 땅으로 알고 찾아들어 청인들과 충돌이 잦았다. 이렇게 되자 중국은 불투명한 국경관계를 조사하여 1712년(숙종38년)에 목극등을 파견하여 우리 측의 박권과 국경회담을 한 결과 백두산 산정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는데 비문에 "서쪽으로 압록, 동쪽으로 토문이 있으니 그 분수령위에 비를 세운다"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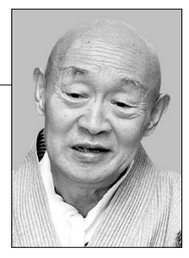
그렇다면 지금 연변일대가 한국에 속하며 이상을 넘는 광역이다. 그러나 청 말기에 중국은 토문강은 두만강을 지칭한 것이라 우겨 다시 국경논쟁이 치열해졌다. 1894~5년의 청일전쟁으로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1900년 청국의 약세를 틈타 러시아가 간도를 점령했다.

정부에서는 1902년 이범윤(李範允)을 간도에 파견하여 주민을 위무하게 하고 이듬해에는 그를 북간도 관리사(北間島 管理使)로 임명하여 이를 주한청국공사에게 통고하는 한편 여기에 포병을 양성하고 조세를 증수하며 간도의 영유권을 계속 관철해 나갔다.

청 · 일간 맺은 '간도협약'은 무효

그러나 일본이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함에 따라 간도문제는 청일간의 현안으로 넘어가고 일본은 1907년 간도에 통감부 출장소를 개설한다. 간도는 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 통감부 출장소 시설의 일본의 구실이었다. 전혀 중국은 간도에 간섭하지 못하였는데 일본이 러 · 일 전쟁 후 러시아에서 얻은 탄광 철도등 만주에 있어서의 이권문제가 엇갈리게 되자 양국협상을 통해 "청국은 일본이 간도가 청국영토임을 인정하면 만주에 있는 일본의 이권에 대해 양보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1909년 9월4일 한국영토인 간도를 청에 넘겨주는, 청일협약을 체결했다.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이 협약에 따라 통감부 간도출장소는 폐쇄되었으나 일본 총영사관으로 대체됨으로써 간도에 있어 일본이 한국인의 민족적 항쟁을 억압하고 독립운동을 방해하는 공작을 그대로 지속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더욱 집중화할 수 있는 효과까지 얻었다.



1909년 당시 간도지방 주민조사로 나타난 한국인은 8만2천9백여 명.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정계비를 무시하고 압록강 이남으로 한국영토를 규정하게 된 것이다. 힘이 없다 보니까 우리 땅을 남들이 멋대로 농락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치욕이었다. 만주에서도 간도는 특히 우리민족의 대일항쟁의 근거지로서 이름이 드높았다.

간도는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영유권 분쟁을 겪다가 1909년 한국 외교권을 빼앗은 일본과 중국이 체결한 간도협정에 따라 중국의 영토가 되었으나 일본 식민지에 체결한 조약 모두 무효로 한다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에 의거해 한국학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당시 간도는 소련군이 점령한 상태였고 중국은 중국군과 공산군의 내정싸움이 계속됐고 북한은 정부가 형성되기 이전이었다. 이러한 때 1948년 2월 소련 중공 북한이 체결한 평양문서가 나타났다. 이것에 따르면 동북지방의 일부를 3개 한인 자치구로 확정하고 장차 한국에 귀속 시킨다고 했다. 이러한 시기에 6 · 25가 터진 것이다. 인민군의 전진이 대구를 조금 남겨두고 부산을 완전 포위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탈환되고 부산을 포위했던 인민군이 총퇴각하게 됐다.

이때 김일성은 갈 길이 막막해지자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라지는 곳 병오리에 짐을 푸는데 중공지도자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확언을 하고 돌아갔다. 그 후 중공군의 인해전술로 한국과 유엔군은 총퇴각하고 서울로 후퇴, 공산군이 평택까지 오고 인민군 정찰대가 천안까지 밀려왔다고 하니 그때부터 휴전될 때까지는 말로 옮길 수 없는 파란을 겪었던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 정권이 그 후, 어떤 이유로 간도 땅을 중국에 양보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북한과 중공은 1962년 비밀리에 국경협정을 체결했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에 개인적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마침 중국에 가는 인연이 닿았다. 그때는 중국과 우리나라는 아직 국교가 정상화 되지 않은 시점이라서 홍콩에서 비자를 받아 간도에 가서 여러 사람을 만나니 간도가 중국에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김일성이 간도를 중국에 넘긴 이유에 대해선 여러 말들이 오가고 있었다. 6 · 25때 도와주었다는 이유부터 김일성이 중국을 뜻있게 돕기 위해 간도를 바쳤다는 등 중국이 마다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라고…. 김일성이 간도에 있는 동포를 생각한다면, 또 그 땅을 사랑한다면 죽어도 우리 땅을 달라고 빌었으면 간도는 그대로 우리땅이 될 수 있었다고 당시 분해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첫째는 통일된 조국을 만들어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일, 둘째는 청일간의 간도협약을 해소시켜 우리 영토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일이다. 다소 경제적 부담을 안고라도 그것을 성취해야만 부끄러운 선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간도땅을 찾아야 한다.

'현대'만평 심 민 섭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귀신을 다루는 사람이 돈벌이에 치중하고 명예를 구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서울출판 Tel. 02-313-5047 Fax 02-393-9696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공 고

1. 재단법인 대한불교원효종은 1997. 12. 20. 비법인사단인 대한불교 원효종 개정종헌이 무효라는 판결(부산지방법원 99가합16739호판결)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나 재심이 여의치 않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4카합31호 결정에 의하여 위 대한불교원효종 종정과 종회의장 김상조는 그 직함을 사용 못하게 되였고 위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송기욱도 그 직함을 사용 못하게 되었을 때에 위 대한불교원효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주시 배동 산65번지의 소재 망월사와 그 부지인 임야와 밭 등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개정종헌에 의하여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이였던 위 송기욱이 2004. 3. 29. 위 망월사를 재단법인 대한불교 원효종에 증여하여서 2004. 4. 21. 위 대한불교원효종산하법인으로 동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동 재단법인이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법인사단인 대한불교원효종은 2005. 11. 10. 경 전시한 1997. 12. 20. 개정종헌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동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종정 선임신청을 하여 동년 12. 14. 임시종정으로 김 대관을 선임받아서 현재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원효종 존재 자체에 의문이 발생한 상태가 되여 있습니다.

2. 어떻든 재단법인 이라는 것은 재산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써 위 재단법인 정관 어느 조항에도 승려증을 발급하는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승려증 발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위 재단법인소속 상급단체인 위 대한불교 원효종 승려에 대한 승려증을 심지어 돈까지 받고 발급하고 있습니다.

3.비법인사단인 대한불교원효종 종도(승려)들께서는 이치에 닿지도 않은 말에 현혹되어 법률상 비법인사단인 대한불교 원효종 승려증으로서는 무효인 재단법인 대한불교원효종 명의의 승려증을, 비법인 사단 대한불교원효종 승려증으로 착각하고 발급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2006. 8. 8.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김 대관

(자세한 것은 종단 사무처에 전화(02)735-050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화사 상수원 조수지


팔공산 향탄봉표


거꾸로여덟팔나비


으아리


꾀꼬리(사진제공= 원우 스님)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64) 대구 팔공산 동화사

인연있는 고승들 이름 붙여 노거수 보호 '눈길'

대구 팔공산은 신라가 국태민안을 기원하던 오악(五嶽)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927년 후삼국 통일전쟁이었던 동수대전의 피비린내나는 전쟁터로 바뀌고 말았다. 당시 후백제 견훤이 고려 왕건을 대파한 데는 백제계 법상종 사찰이었던 팔공산 동화사가 있었다.

신라 흥덕왕의 아들 심지(心地)에 의해 창건된 동화사가 친견훤 편에서게 된 데는 당시 미륵불교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백제 유민의 후손인 진표율사에 의해 불이 당겨진 미륵불교가 모악산 금산사에서 속리산 법주사를 거쳐 팔공산 동화사로 전해졌다. 이는 당시 미륵불교가 처음부터 친후백제적 성향을 띠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케 해준다.

팔공산은 낙동정맥의 중간에 위치한 보현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은 곁가지에 솟아오른 암산이다. 팔공산지는 해발 1192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가산-동봉-관봉-환성산을 연결하는 주능선과 외곽을 둘러싸듯이 분포하는 환상산맥, 그리고 이들 사이에 형성된 분지로 구성된다.

동화사는 들어가는 출입구가 두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근래에 조성된 집단시설지구 쪽에 동화문이 있고, 들머리 계곡 옆에 봉황문이 자리하고 있다. 사람들의 출입은 동화문이 잦지만, 원래의 배치로는 봉황문이 일주문이다.

집단시설지구 분수공원 화단에 '綏陵香炭禁界(수릉향탄금계)'라고 새긴 표지석이 있다. 이 금표(禁標)는 조선 헌종의 아버지인 익종의 능인 수릉묘에 쓸 향탄[木炭]을 생산하기 위해 백성들의 산림 출입을 통제하는 경고판 같은 것이다. 이 금표는 당시 동화사가 팔공산 산림수호와 향탄생산 책임을 맡았던 봉산수호사찰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역사물이다.

일주문 앞 절벽에 마애부처님이 천년을 변함없이 정좌하고 있다. 마애불 문화는 자연조건의 결과물이다. 팔공산은 백악기 중기 이후 한반도 남부지역에 형성된 소규모의 불국사 화강암이 퇴적암 지역에 관입된 지 오래되지 않은, 비교적 젊은 암산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화강암보다 상대적으로 세립질을 보이고 있어서 우수한 마애불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약사대불로 가는 계류를 건너면 오른쪽 숲 그늘에 장뇌삼(長腦蔘)들이 빨간 열매들을 매달고 있다. 장뇌삼은 산삼의 씨앗을 산지에 심어 재배한 것으로, 뿌리의 머리 부분이 길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산삼이 예나 지금이나 천금같이 여겨지는 것은 발아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방위, 온습도, 배수, 지질, 지형, 일조량 등을 매우 깐깐하게 따진다. 붙임성 또한 좋지 못해서 이웃한 나무들의 종류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피나무, 오동나무, 옻나무, 가래나무 등과는 비교적 친하게 지낸다. 장뇌를 심을 때도 그런 조건을 살펴보고 심어야 한다.

동화사에 봉황과 관련된 건물이나 석조물들이 유난히 많은 것은 심지대사의 동화사 창건 드라마와 깊은 관련이 있다. 심지대사가 절터를 구할 때, 겨울철인데도 절 주변에 오동나무꽃이 만발했다고 해서 이름을 동화사(桐華寺)로 지었다고 전한다.

오동나무 숲에만 봉황이 깃든다는 전설에 따라 동화사 경내에는 일주문인 봉황문을 비롯하여 봉서루(鳳棲樓), 누각 앞 봉황알 등 봉황과 관련된 상징물들이 많다. 동화사가 앉은 형국도 봉황포란형으로 전해진다.

오동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다. 자라면서 줄기에 구멍이 나면서 대나무처럼 속이 비는데, 용맹정진으로 마음을 비워가는 수행자들의 삶을 연상케 해준다.

요사채를 지나면 부후현상으로 속이 빈 노거수 느티나무 한 그루가 비스듬히 서 있다. 수령이 5백년에 이른다는 이 나무를 이름하여 '인악대사나무'라고 한다. 나무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동화사의 큰스님이었던 인악대사를 기려서 최근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런가하면, 동화사 칠성각 부근의 오동나무에는 동화사 창건주인 심지대사 이름을 붙였고, 성전암의 늙은 전나무는 성철 스님의 이름을 붙여놓았다.

사찰 경내에는 보호해야할 나무들이 많다. 이같이 해당 사찰과 관련된 고승대덕과 노거수와의 결연은 나무도 보호하고 역사인물도 기리는 일거양득의 좋은 방편이다.

대웅전 뒤로 돌아가면 거미고사리가 무리를 지어 석축에 붙어서 자라고 있다. 거미일엽초라고도 하는 거미고사리는 주로 산속의 바위나 노거수에 붙어서 자라는 양치식물이다. 잎은 녹색을 띠고 있는데, 뾰족한 잎 끝이 땅에 닿으면 거기에서 뿌리가 생겨 독립된 개체로 특이하게 번식한다. '거미'라는 접두사가 붙은 것도 그 때문이다.

약사암은 오솔길이 끝에 있다. 길 주위로는 꽤 판작한 농경지가 있고, 장마철인데도 햇볕이 양명하여 숲 가장자리에 다양한 곤충들이 관찰되고 있다. 메뚜기류로는 실베짱이, 여치, 방아깨비, 등검은메뚜기, 두꺼비메뚜기 등이 있고, 나비류로는 거꾸로여덟팔나비, 산호랑나비, 긴꼬리제비나비, 사향제비나비 등이 관찰된다. 팔공산밑들이메뚜기는 특정 지명을 머리에 달고 다니는 메뚜기이다. '팔공산'이라는 지명을 달고 다니지만,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다. '밑들이'는 날개가 퇴화되어 흔적만 조금 남아 밑을 다 드러내놓고 다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날개가 퇴화된 것 외에는 벼메뚜기와 흡사하다.

거꾸로 여덟팔나비는 봄과 여름 두 차례에 나타나는데, 여름에 나타나는 것은 검붉은 날개에 흰색 줄무늬가 선명하다. 날개를 펼치면 줄무늬가 여덟 팔(八)자를 거꾸로 세운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 이름을 가졌다. 주로 계곡 주변이나 숲 가장자리에 많이 나타난다.

약수암은 절이 크게 퇴락하여 현재는 상주하는 이가 없다. 마당 한켠에 왕원추리들이 제철을 맞아 꽃들을 피워내고 있다. 왕원추리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지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초본이다.

일반 원추리보다 꽃이 크고 색깔이 진해서 왕원추리라고 부른다. 겹꽃도 있고 홑꽃도 있다. 미국에서 인기있는 데이릴리는 우리의 왕원추리를 가져다가 개량한 원예화라고 한다.

동화사에는 주차장이 여럿 있는데, 모두가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다. 땅이 숨을 쉬고, 땅이 빗물을 받아 마실 수 있도록 생태주차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뿐만 아니라 비로암-부도암-내원암-양진암-염불암 등 산내 암자들을 잇는 길도 모두 자동차를 위한 시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다. 도로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지반이 내려앉은 곳도 있다.

지난번 집중호우 때 흙이 무너져내려 곳곳에 뻘건 상처들이 드러나 있다. 서둘러 방책을 세우지 않으면 흙이 비바람에 계속 유출될 것이 분명하다. 이 경우 지반을 탄탄하여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데는 조팝나무를 식재하면 효과적이다.

조팝나무는 습한 곳에서도 잘 자라고, 추위에도 강하고, 생육도 좋다. 토질도 별로 가리지 않고, 생장 또한 빨라서 심은 후 3년 정도면 키가 1m를 넘는다.

비로암-부도암-내원암에 이르는 골짜기는 팔공산의 대표적인 등산로이다. 옛날부터 이 골짜기를 '탑골'이라고 불러왔다. 근래에 팔공산 인근에 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점차 잊혀져 가는 팔공산 골짜기 이름 되찾기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자연을 사랑하는 또 다른 방편이 아닐 수 없다.

내원암에서는 미나리꽝을 두고 생활하수를 생태적으로 정화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미나리로 반찬을 만들어 먹는다. 미나리는 물속의 부유물질을 걸러주고, 물속의 각종 중금속과 유해 화학물질을 무해한 형태로 바꾸어주며, 물속의 질소와 인 등을 섭취하여 물이 썩는 것을 막아준다. 미나리꽝을 만드는 데는 여름이 제철이다. 미나리는 고여있는 물보다 흐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배수구가 있어야 한다.

염불암에 이르는 동안 숲은 나무 목책 등으로 보호되어 있다. 장마가 끝나고 여름이 깊어가는 즈음이면, 으아리, 까치수영, 이삭여뀌, 짚신나물 등등이 햇볕 좋은 자리를 찾아 꽃을 피운다.

비로암에서 부도암-내원암-양진암-염불암-염불봉에 이르는 구간은 참나무류를 비롯하여 활엽수 터널이다.

팔공산은 활엽수들이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혼효림이지만, 소나무도 곳곳에 군락을 이루며 튼실하게 자리하고 있다. 소나무지역은 주로 팔공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아직 재선충 감염은 없으나, 며칠 전에 예방 차원에서 항공방제를 실시하였다.

동화사 주변에서 관찰되는 조류는 대개 15종이다. 여름새들로는 지빠귀류, 꾀꼬리, 파랑새, 뻐꾸기, 노랑할미새 등 14종이 관찰되었다. 꾀꼬리는 몸이 밝은 연두빛을 띠고 있다. 사찰의 전설이나 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파랑새가 바로 이 꾀꼬리이다. 아름다운 분홍색 부리를 갖고 있으며, 눈가에서 뒷머리를 돌아 검은띠가 있다. 주로 활엽수 높은 나뭇가지에다 둥지를 틀어 4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대개 장마가 끝나면 부화한다.

그동안 나온 보고서를 종합해보면 팔공산에는 고라니와 멧돼지 등 14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들고양이는 생태계의 문제아로 지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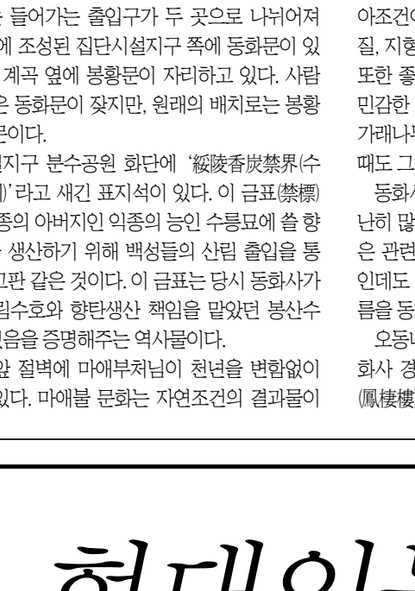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수릉향탄금계' 표지석, 봉산수호사찰 입증해주는 역사물

비로암서 염불봉에 이르는 구간 활엽수로 터널 이뤄

고라니 등 14종의 포유류 서식, 들고양이는 생태계 문제아

현대인들을 위한 화엄의 신기루



도 업 지음 / 신국판 / 281쪽 / 값 10,000원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고, 우리의 진정한 삶은 어떻게 가꾸어야 하며 우리는 누구인가를 화엄의 바다에서 담담히 일깨우고 있다. 반드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초심의 원력을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 부처님과 보살의 동체대비심으로 슬기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비로움이 가득하다.

산하대지가 내 몸이다

이 우주 법계의 두두물물頭頭物物은 그대로 나의 다른 모습이요 나는 이 세계의 일부분인 줄을 알았기에 이 책의 제목을 『산하대지가 내 몸이다』라 했다.

-동국대불교문화대학장 도업스님 서문 중에서-



· 도서출판 부다가야 (051)865-4383 · 팩스 (051)865-4821 · 홈페이지 : www.buddhagaya.co.kr · 편집디자인 : 대한기획 (051)866-7818